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정답과 해설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 자화상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1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1 이 시에는 한 문장이나 문단에서 같은 어구 또는 문장을 반복하는 반복법과 비슷한 어구나 내용을 늘어놓는 열거법이 사용되었으나, 대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과장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③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와 같이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하고 있다.

④ ‘파아란 바람’에서 촉각이 시각화되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⑤ ‘사나이가~비니다.’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02 우물은 화자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공간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가 되는 공간일 뿐 삶의 여유를 찾게 해 주는 공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우물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는 공간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비쳐진다.

② 우물 속에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는 과거 화자의 순수했던 자아를 의미한다.

③ 화자는 우물 속에서 초라한 모습의 한 사나이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한 사나이’는 현실 속 화자의 부끄러운 자아에 해당한다.

⑤ 화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03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현실의 초라한 자아인 ‘한 사나이’를 보고 미워져 돌아갔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가없어져 도로 우물에 가 들여다보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갔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 심리 및 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심리 변화의 과정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

04 화자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 ‘미움-연민-미움-그리움’의 감정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겪고, 결국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따라서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미웠던 자아가 아닌 순수했던 자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답과 해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13쪽

01 ②

02 ③

03 ④

04 우물

05 ⑤

06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07 ②

08 ③

09 ④

01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에서 감상할 수도 있고, 작품의 외적 요소인 작가, 현실, 독자 등에 초점을 둔 표현론, 반영론, 수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작품의 가치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평가하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②와 같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수동적인 감상 태도로 올바른 감상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절대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③ 주체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④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⑤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02 이 시에서는 화자가 우물을 찾아가 우물 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미워져 돌아가다가 가없은 생각이 들어 도로 가서 들여다보다 다시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리움을 느끼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 변화는 화자의 행동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물을 찾아가다가 우물을 떠나는 과정과 우물 속 풍경이 제시되고 있을 뿐,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확대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관조적 시각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자세로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므로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 시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 시에는 화자의 ‘미움, 연민, 그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관조적 시각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자신을 성찰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⑤ 화자는 우물 속 풍경과 함께 비쳐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우물’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매개체이므로, 화자의 시선은 내면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면에서 외부로 시선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한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미운 감정을 갖는다. 하지만 이어서 ‘연민-미움-그리움’으로 심리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이 고조된다는 것은 감정이 계속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은 ‘미움-연민-미움-그리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한 사나이’를 발견하고 그가 미워져 돌아간다.

② [A]의 미움은 [B]에서 연민으로, [C]에서 다시 미움으로 바뀐다.

③ [A]와 [B]에서는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이중적인 감정이, [C]와 [D]에서는 미움과 그리움의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⑤ [A]~[D]에서 우물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은 사나이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연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04 이 시에서 ‘우물’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화자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05 〈보기〉에서는 독자인 학생이 책을 읽고 나서 흥미를 갖게 된 것과 깨달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독자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⑤ 역시 시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독자에 초점을 둔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시의 내적 요소인 시간적 배경과 구성에 주목한 감상으로, 작품의 내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③ 일제 강점기 현실과 관련지어 한 감상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실에 초점을 둔 반영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④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작가에 중점을 둔 표현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06 화자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에 대해 ‘미움-연민-미움-그리움’으로 심리 변화를 겪는다. 이렇듯 화자는 애증의 반복으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내적 갈등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면서 해소된다.

07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으로, 우물에 비친 자연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현실 속 부끄러운 자아에 해당한다. 현재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순수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지막 연에서 추억처럼 서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한 사나이’는 현실 속 부끄러운 자아이자,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라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8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적 허용’은 시에서 시적 효과를 주기 위해 어법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아란’은 어법에 어긋난 표현으로, ‘파란’이 맞는 표현이지만 시에서는 ‘파아란’으로 사용되어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09 〈보기〉는 동화 『어린 왕자』의 일부분으로 ‘나’가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관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우물을 매개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자아 또는 대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동화로, ‘나’의 허구적인 경험이 담겨 있다.

② 이 시는 성인인 화자의 시선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이 시에는 두 자아 사이에서의 화자의 갈등이 나타나며, 〈보기〉에는 두 인물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나 서술자가 내면적 자아에 대해 갖는 심리는 이 시에만 나타난다. 〈보기〉에는 어린 왕자에 대한 심리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어린 왕자』 제재 개관

갈래	동화	성격	우화적, 상징적
제재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		
주제	어린 왕자의 순수함		
특징	•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모순된 세계를 바라보는 내용의 우화적인 이야기임 • 꾸밈없는 진솔한 문체와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있음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4~15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화자를 자아성찰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07 ②

01 3연에서는 현실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움과 미움의 감정이 드러날 뿐, 연민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 자신에 대한 연민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라는 행이 제시된 4연에서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하고 있다.

④ 4연과 5연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에 대해 애증을 반복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⑤ 6연은 2연의 내용을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02 ㉠는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감상한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ㅂ니다’의 평서형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즉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정한 청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과 관련지어 감상한 것으로, ㉠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시인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것으로, ㉠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④ 시의 형식과 관련지어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것으로, ㉠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⑤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말한 것으로, 작품 수용과 관련되므로 ㉠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03 ‘그대로’는 우물 속 사나이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화자가 돌아가다가 사나이가 가없는 생각이 들어 우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된 모습이다. 화자는 ‘그대로’ 있는 사나이를 보고 다시 미움을 느끼므로, ‘그대로’가 화자의 연민 또한 변함없음을 드러내는 시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만히’는 ‘움직임 따위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어로, 화자가 고요하고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② '그리고'는 우물 속에 자연 풍경과 함께 '한 사나이'도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자연 풍경과 한 사나이가 서로 잇달아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어찌'는 '그냥', '왠지'라는 의미로 화자가 사나이에 갖는 미움의 원인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이라는 인상을 부여한다.
- ④ '도로'는 우물로 되돌아가는 행동과 이어지고, '다시'는 사나이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물을 떠나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화자가 우물로 돌아가고 되돌아가는 행동을 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04 '달, 구름, 하늘'은 천상의 것들이면서 우물 속에 비친 풍경이다. <보기>에서 우물 속 자연 풍경이 화자가 지향해 온 세계를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 구름,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화자는 부끄러운 자아를 확인하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물 속 풍경만으로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우물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의 외딴 곳에 있다. 즉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있는 것이다. '우물'이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딴'은 내밀한 공간임을 부각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 ③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이므로 우물을 '홀로 찾아'간 것은 자아 성찰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그 속에 비친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물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그 속에 비친 사나이는 화자의 자아라고 볼 수 있다.

05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인 '한 사나이'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사나이에 대해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우물을 들여다보다 미움이 생겨 돌아가고 다시 그리움의 감정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돌아가다 생각'하는 것은 사나이에 대한 미련을 보여 주는 행동이면서 화자가 내면적으로 고뇌하고 있음, 즉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06 서술형 ㉠은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부끄러운 자아를 확인한 것이고, ㉡는 자아에 대한 애증을 보이며 내적으로 갈등한 끝에 화자가 자신의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한 것이다. 즉 화자는 '우물'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하고, ㉠에서 ㉡로 인식이 변화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가 우물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화자가 우물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는 내용을 썼다.	☐

07 ㉢에는 '거울 밖의 나'(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의 나'(내면적 자아)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거울 속의 나'를 '근심

하고진찰(珍擦)할수없'다고 한다. 이는 두 자아가 화합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두 자아가 화해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에서 화자는 추억처럼 있는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에서도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가 단절된 상황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자아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과 ㉢ 모두 자아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참된 자아에 의해 위로를 받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현실적 자아가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 ⑤ ㉠의 '우물'은 화자가 자아 성찰을 통해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단절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 '거울'은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만남을 매개하면서 동시에 두 자아의 분열과 단절을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이상, 「거울」

이 시는 행과 연의 구분은 있지만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통해 현대인들의 자아 분열과 자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거울은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를 들여다보게 해 주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두 자아를 단절시키며 두 자아의 분열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자아가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19쪽	01 ④	02 ④	03 ④
② 21쪽	04 ②	05 ③	06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07 ⑤	08 ①

01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통해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을 느꼈고, 친구가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를 통해 결핍을 충족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책 읽기를 통해 우월감을 가졌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02 ㉠은 과거와 지금의 청소년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글쓴이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책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 이유로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가운데-㉢'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다고 하였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책 읽기의 가치, 책 읽기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책 읽기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책 읽기를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③ 글쓴이가 언급한 문학 작품의 가치는 책 읽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④ 독서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⑤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책 읽기의 목적 중 하나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문학 작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06 ㉠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자만)’이 이에 해당한다.

07 ㉡은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였다.

08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2~23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③
07 ③

0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을 뿐,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장치나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현대 수필로, 회고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②, ④ 이 글의 글쓴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마)에서 “그렇다면 흠어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며 요즘이나 예전이나 청소년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외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사)에서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④ (바)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03 (다)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청소년기에 독서를 통해 자신의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충만해지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고,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 즉 사춘기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책’ 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유년 시절의 낭만적인 고향 풍경 때문이 아니라 책 읽기와 관련된 경험 때문임을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책 읽기를 통해 어린 시절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책’ 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른 것이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ㄷ),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관련이 있는 정보로 엮어 내는 능력(ㄱ)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해 내는 능력(ㄹ)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06 이 글의 (라)에서 글쓴이는 현대에는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에서 이러한 정보를 가치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은 꾸준히 책을 읽으며 키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아 여러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④, ⑤ 이 글의 글쓰이는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독서 신문을 만들거나 독서 토론을 하는 등의 적극적 독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07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흥미나 수준, 책을 읽는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평 등의 정보도 참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의 유명도는 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4~25쪽

01 ② **02** ④ **03** 독서를 하면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04** ⑤ **05** ②

01 ㄱ. (라)에서 '문학 작품'을 '상상의 집'에, (사)에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비늘'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쓰이는 책 읽기를 통해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길 수 있다고 하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ㄴ. (바)에서 대체로 하기 쉬운 일과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을 대조함으로써 책을 읽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ㄷ. (가)에서 어린 시절에 책을 읽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경험을 제시하며 책 읽기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글에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문학 작품의 특징과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는 설명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ㄹ. 글쓰이의 견해와 다른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은 제시하였지만, 이 글에 글쓰이의 주장과 유사한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없다.

02 <보기>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언론 분야의 책을 찾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전·현직 기자들의 경험과 직업의식을 담은 책을 통해 기자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하면서 기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소양 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들을 하나씩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꼈다.'를 통해 책을 읽은 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언론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선정하였다는 것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선별해 내는 활동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정답과 해설

[참고 자료] 진로 독서의 방법

- 관심 분야나 직업 등을 정리하며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한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읽어 본다.
-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 계획을 세워 책을 읽은 후 정보를 공유하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3 서술형 (사)에서 글쓰이는 우리 눈에는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 덮여 있다고 하며 좋은 책은 그 비늘을 벗겨 주어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독서를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은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요건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글쓰이는 책을 읽으면 정보를 선별하는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없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지 못했던 정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티끌 모아 태산'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의 답변은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을 통해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로, ㉠의 답변과는 거리가 멀다.

④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꾀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로, ㉠의 답변과는 거리가 멀다.

05 ㉠은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②는 춥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시로, '함박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슬프지만 임이 떠나가는 상황을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시는 아니다.

③ 능금이 익어 가는 과정을 그리움이 익어 가는 것으로 표현한 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의 정서를 표현한 시는 아니다.

④ 화자의 마음이 평온해진 무념무상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한 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룬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⑤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는 아니다.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② 02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정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 11 ③

01 (가)에는 화자의 내적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다 돌아가기를 거듭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한 사나이’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 오답 풀이** ① ‘-버니다.’의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③ 화자는 차분하고 고백적인 어조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④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번갈아 가며 느끼고 있다.
⑤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성상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

02 서술형 (가)는 현대 시로, 문학 작품에 해당한다. (나)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른 이들의 고통(슬픔)을 어루만지다.’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성숙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03 ①을 ‘파아란’과 ‘바람’으로 각각 나누면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이 쓰였지만 ‘파아란 바람’은 ‘바람이 파랗다’라는 의미이므로 촉각(바람)을 시각화(파아란)하여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②의 ‘푸른 휘파람 소리’는 청각(휘파람 소리)을 시각화(푸른)하여 표현한 것으로 ①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보랏빛 색지’에서 색채어를 통한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③ ‘돌 깨는 산울림’에서 청각적 심상이, ‘가슴에 금이 갔다’에 시각적 심상이 각각 쓰였다.
④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에 후각적 심상이 쓰였다.
⑤ ‘산수유 붉은 알알이’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04 작가를 중심으로 한 감상은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인 윤동주의 작품 성향에 주목하여 감상한 ⑤가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②, ④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으므로 절대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③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05 ㉔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라는 뜻의 ‘안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㉕도 ‘안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인 ‘시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사람들의 눈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6 ㉑는 다양하게 흘러 넘치는 수많은 정보로,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낸 정보가 ㉒가 된다. 그리고 서로 연관 없이 보이는 정보(㉓)를 엮어서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㉔이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㉕)을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㉑와 ㉓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㉒, ㉔, ㉕은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든 것에 해당한다. 즉 ㉑~㉕은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나눌 수 있으며, 정보의 단위 크기는 관련이 없다.

07 이 글은 책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사상 등을 형식적인 구애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글로서 글쓴이의 가치관, 생각 등이 잘 드러나며, 이를 통해 글쓴이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기문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허구의 인물 ‘나’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이다.

08 (다)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특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09 (다)에서 ‘이런 주장’은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글의 글쓴이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10 서술형 (라)에서 책 읽기는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신적 능력의 신장’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준다.’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11 ㉔에서 열거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생각의 비늘’은 책 읽기를 통해 벗겨 내야 할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㉔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1) 매체를 읽는 눈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33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❷ 35쪽	05 ③	06 ⑤	07 ①	

01 영상 광고는 그림, 문자 등의 시각적 요소와 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영상 광고는 텔레비전 등으로 송출되기도 하므로 모든 영상 광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으며, 영상 광고는 제작이 까다로워 수용자들의 의견을 광고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

02 이 광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상황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절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기보다,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이 광고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받는 영향만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④ 스마트폰의 다양한 용도보다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이 광고는 '잃어버린 []에 대한 묵념'이라는 빈칸이 있는 자막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광고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04 이 광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광고를 보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③, ⑤ 광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자료] 목적에 따른 광고의 종류

- **공익 광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광고
- **상업 광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광고

05 신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글쓴이의 개성적 표현과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느끼며 읽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의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② 표제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 주므로, 표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하며 읽는 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⑤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상관없는 글쓴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

06 (나)는 통계청 분석과 통계청 분석에 대한 반박 견해 등 서로 대립되는 성격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나)에서는 대학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는 모두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표제가 나타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인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연령별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07 ① '혼자서도 잘해요.'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 '혼자 살아요.'와 달리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6~37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1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작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용자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제작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② 광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만든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여야 수용자가 광고에 설득당하기 쉽다.

④ 아무리 좋은 광고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만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

⑤ 수용자의 기억에 오래 남아야 설득하기가 더 쉽고 효과도 좋다.

02 (가)의 앞부분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문구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가)에서는 '잃어버린 ~에 대한 묵념'이라는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03 (나)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다)에서는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04 (나)와 (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상만 분석하고 있을 뿐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는 대학교수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③, ④ (나)와 (다)는 모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나)는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반면, (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05 (나)와 (다)에 제시된 통계청의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는 노인 1인 가구 증가율과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을 분석하거나 비교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이번 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27.2퍼센트,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3.9퍼센트라고 하였다. 둘의 차이는 3.3퍼센트포인트이다.

② (다)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7.2퍼센트, 2인 가구의 비유율은 26.1퍼센트로,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혹은 둘이 사는 형태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1인 가구는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였고, (다)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27.2퍼센트, 2인 가구의 비율이 26.1퍼센트라고 하였다.

④ (나)의 도표를 참고할 때, 1990년의 1인 가구 비율은 9.0퍼센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유형이었다.

06 <보기>에 제시된 인터넷 기사의 제목에는 '충격'이라는 강렬한 인상의 단어가 나타나 있다. 기사의 제목만 보면 음식점 주방의 위생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게 되지만, 실제 기사에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 사업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기사의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행동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38~39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01 (가)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는 영상 광고이고, (나)는 이웃을 배려하여 층간 소음을 줄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인쇄 광고이다. (가)와 (나)는 둘 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마지막 영상에서 내레이션을 제시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그림은 시각적 이미지이다. (나)는 수용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을 위아래 층의 주민을 연상하도록 배치하여 수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가)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 상황을, (나)는 위아래 층에서 서로 배려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문제 상황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④ (가) 영상은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내레이션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지만, (나)는 그림과 문자라는 시각적 요소만 활용하고 있다.

02 광고를 읽을 때에는 내용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내용 면에서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보편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표현 방법 면에서는 광고가 실린 매체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광고의 특성이 아니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광고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 방법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3 (나)는 잘 알려진 명화를 위아래 층의 주민처럼 보이게 배치하여,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나)는 상업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보기>의 ㉠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될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나)에서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혼자 살 수 있는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였다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통계청 자료에는 1인 가구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가)의 인터뷰와 (나)의 통계청 분석에서는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인터뷰에서는 1인 가구 확산 요인을 고령화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의 인터뷰에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활용하여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된 노인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

05 서술형 ㉠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였고, ㉡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고령화 요인이 크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는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썼다.	☐
㉡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을 고령화 요인에서 찾고 있음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43쪽

01 ②

02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⑤

❷ 45쪽

05 ⑤

06 표절 07 ③ 08 ④

01 ‘윤서’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찾은 후,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윤서’가 중학교 때 작성했던 보고서를 찾아보지는 않았다.

02 ‘윤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는데, ‘처음-❶’에서는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3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은 ‘가운데-❶’에 나타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04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이다. 친구가 고민하는 글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조언은 진실한 글이므로 ⑤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인기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②, ④ ‘가운데-❶’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소설을 쓰기 위해 상상한 이야기나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던 경험을 자신이 겪은 것처럼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③ ‘가운데-❷’에 따르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05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쓰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위반 행위가 된다.

06 ‘가운데-❷’에 따르면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표절’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07 <보기>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상황이 되면, 다양한 종류의 글을 허락 없이 인용하기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다만 그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끝-❶’에서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였다.

④ ‘끝-❶’에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08 ‘끝-❷’에서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46~47쪽

01 ③

02 ②

03 ④

04 <보기>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그 이유는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썼기 때문이다.

05 ②

06 ③

01 이 글은 ‘글쓰기 윤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이 글은 글쓰기 윤리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뒤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즉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쓰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03 <보기>의 ㉓는 자신의 경험을 꾸미거나 과장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㉔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둔갑시킨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㉕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㉔의 설명은 ㉓가 아니라 ㉔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㉓는 자신의 경험을 꾸미거나 과장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㉔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둔갑시킨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㉓와 ㉔는 모두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③ ㉓는 경험을 거짓으로 꾸몄으므로 진실하지 않은 글을 쓴 것이고, ㉔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껴 쓴 것이므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글을 쓴 것이다.

⑤ ㉔는 표절 행위로, (라)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04 서술형 (다)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대학교수는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고 보고서를 조작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썼다.	☐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썼다.	☐

05 글을 쓸 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글쓰기 태도가 아니다. 이 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사용할 때는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아야 하며,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④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점검해야 한다.
 ③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점검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해야 한다.

06 ㉠의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태도는 (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글쓴이는 인터넷처럼 강한 파괴력을 지닌 매체를 피해서 글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매체의 경우 더욱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48~49쪽

01 ③ **02** ⑤ **03** ② **04**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데는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다. **05** ④ **06** ④

01 이 글은 (가)에서 글쓰기 윤리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하고, (나)~(사)에서 각각의 개념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말하며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꾸며 쓰거나 상상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 ㉡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이 쓴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지 말아야 한다.

03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어릴 적 경험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쓴 것이므로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③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고 이를 자신이 만든 자료인 것처럼 제출한 것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④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⑤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을 사용할 때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출처도 밝혀야 한다. 책의 한 구절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04 서술형 (사)에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의 내용에 따르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으로,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는 것은’으로 문장을 시작하였다.	☐
자신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썼다.	☐

05 이 글의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저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스톨먼’은 정보를 저작권으로 설정하여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스톨먼’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나누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내용은 ‘스톨먼’의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06 (마)에서 논문 표절로 망신을 당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만, 이 글에 쓰기 윤리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사례는 나와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② (나)~(바)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사)에서 글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이미 말하였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쓴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된 이가 악성 댓글이나 추측성 기사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① 53쪽 01 ⑤ 02 겸양의 격률 03 ②
② 55쪽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1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공손성의 원리의 원칙 가운데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은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⑤는 이와 같은 대화의 원리에 반대되는 잘못된 설명이다.

02 〈보기〉에서 ‘경수’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겸양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03 [A]에서 ‘지호’는 같이 저녁을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못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찬우’가 ‘지호’를 칭찬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④ ‘찬우’는 ‘지호’와 저녁을 먹기를 바랐지만, ‘지호’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신 ‘지호’의 제안으로 음료수를 같이 마시고 저녁은 다음에 먹기로 하며 의견 차이가 최소화되고, 일치점이 최대화되었다.

③ ‘지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자는 ‘찬우’의 제안을 들어줄 수 없었다.

⑤ ‘지호’는 “같이 저녁 먹으면 좋지.”라고 하며 ‘찬우’의 의견을 존중한 후,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04 순서 교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말하는 시점과 듣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서로 차례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5 ‘은채’는 점심 뭐 먹었냐는 친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침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한 것으로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06 〈보기〉에서 ‘딸’은 화제인 휴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여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딸’의 말을 화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고려한 것이다.

07 대화의 원리인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를 기준으로 대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 활동이므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56~59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민주’가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②
14 ③

01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02 ‘지호’가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없었으므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호’는 ‘찬우’에게 배드민턴의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주고 있다.

③, ⑤ ‘지호’는 ‘찬우’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고, ‘찬우’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고 강당 정리도 같이 하자며 자신이 부담을 지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④ ‘지호’가 강당 정리를 자청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을 지는 것이므로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하기이다.

03 (가)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나)는 ‘친구 2’가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공손성의 원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공손성의 원리의 5가지의 격률 중 2가지만 찾아볼 수 있다.

04 (나)의 ‘친구 2’는 ‘친구 1’의 말을 가로채며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가)의 여학생은 의문문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남학생에게 색연필이 필요한 이유를 묻거나 비난하는 남학생을 탓하는 것으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6 (가)의 남학생은 색연필이 있으면 달라고 하며 자신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ㄴ), 여학생이 지금 색연필을 써야 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색연필을 빌려주는 게 아깝냐면서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였다(ㄹ). (나)의 남학생은 “혹시 색연필 빌려줄 수 있어?”와 같은 의문문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부탁하고(ㄱ), 자신들이 기다리겠다고 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는 등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ㄷ).

07 사과를 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③과 같은 말은 자신의 의도를 변명하며, 상대방이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사과의 태도가 아니다.

[참고 자료] 사과할 때에 주의할 점

-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말해야 한다.

08 서술형 ‘민주’는 처음에 “우리 동강아지 학교 가니?”라고 한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는 ‘민주’가 처음에 ‘할머니’ 세대가 말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할머니’가 하신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주’가 다른 세대가 사용하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이 대화에서는 ‘동강아지’와 같이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 나타나 있다. 세대의 특성이 드러난 사회 방언은 세대 내에서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높임 표현처럼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거나 공부할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전문어의 효과에 해당한다.
 ⑤ ‘할머니’가 사용하는 ‘동강아지’라는 말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지역의 특성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방언이다.

10 (가)의 ‘친구 2’는 친구네 집에 방문하여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말도 없이 오히려 ‘친구 1’에게 편지를 주고, (나)의 ‘친구 2’는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 1’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태도이다.

11 ‘친구 2’는 모두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있다.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12 (나)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 방언을 회화화하거나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표현 등은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것의 예이다.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 따르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 따르면, 공감하며 듣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 따르면, 공감하며 듣기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에서도 대화의 상황과 대상 등을 점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보기〉에서 ‘민철’은 국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가 아쉽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희수’는 그게 뭐가 아쉽냐며 편지를 주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지 않은 듣기 태도로 볼 수 있다.

14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이란 특정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을 회화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말한다. ‘환쟁이’는 ‘화가’를 비하한 표현이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60~61쪽

01 ④ **02** ③ **03** ② **04**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05 ②

01 ‘선생님’이 찬동의 격률을 사용한 것은 조원들이 조장으로 밉고 뽐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난 ‘유미’를 칭찬한 표현이다. 조원들을 칭찬했다는 것은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오늘 방과 후에 잠시 시간 낼 수 있니?”라고 물으며 ‘유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생님도 같이 할 거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며 ‘유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요청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② ‘유미’는 과제를 해야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낼 것을 말하며 자신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③ ‘유미’는 조장을 하기에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는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⑤ ‘선생님’은 조원을 바꿔 달라고 하는 ‘유미’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유미’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본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원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이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02 ㉠의 앞 문장에서 ‘선생님’은 조원을 바꾸고 싶다는 ‘유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에서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유미’의 조별 과제와 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화제를 전환한 것은 아니다.

03 (가)에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의 생각을 오해한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민주’이다.

- 오답 풀이** ① '똥강아지'는 '할머니' 세대에서 귀한 아이를 부르는 단어이다.
 ③ (나)에서 '민주'는 '오라베'라는 지역 방언으로 '오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고, '오빠'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④, ⑤ (다)에서 '요리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요리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인 '라딩(larding)', '브레이징(braising)'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민주'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4 서술형 (가)~(다)의 상황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나이, 지역,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언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용자들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5 (가)~(다)는 각각 세대(나이), 지역, 직업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 준다. '열공'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뜻이고, '깎깎빠빠'는 '깎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말은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오라베'와 '물꾸력'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③ '똥강아지'는 세대의 특성, '라딩'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④ '버정', '문상'은 세대의 특성, '브레이징'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⑤ '손녀'와 '할머니'는 모든 사람이 두루 쓰는 말이고, '오라베'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본문 62~64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01 (가)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희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나)에서는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첫 문단은 현재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글쓰이의 경험을 보여 주며, (나)는 현재의 상황만 보여 줄 뿐,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글쓰이의 초등학교 시절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나)는 글쓰기 윤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가)는 독자에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제작자뿐 아니라 시청자도 문제의식을 지녀야 함을, (나)는 독자에게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을 권하고 있다.
 ④ (가)는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상을, (나)는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02 (가)의 글쓴이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03 매체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에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극적인 요소만을 담아 독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오히려 매체가 지양해야 할 점이므로 평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의 사례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매체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으므로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05 서술형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제시된 인터넷 기사의 제목만 보면 음식점 주방의 위생상 문제점을 다루리라고 예상하게 되지만, 실제 기사에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 사업가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기사의 제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07 제시된 기사는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본문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08 '지호'는 같이 저녁을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못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함으로써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은 사용되지 않았다.

09 '남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원한 친구의 상황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10 '규비'가 '유범'에게 선뜻 빌려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규비'네 모둠이 다른 모둠에게 색연필을 빌려주는 것을 아까워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유범'은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려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본 후, '규비'네 모둠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규비'네 모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③, ⑤ '현표'는 막무가내로 "색연필 있으면 좀 줘 봐."라고 요구하고, 상대가 거절하자 색연필 빌려주는 게 아깝냐고 하는 등 색연필을 빌려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규비'에게 비난하듯 말하고 있다.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1) 첫사랑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69쪽

01 ② 02 ③ 03 ① 04 ㉠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01 화자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과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있는 모습, 또 봄에는 그 눈이 녹은 자리에 핀 꽃의 모습에서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즉,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자연 현상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발상을 취하고 있다.

02 이 시는 전체 4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제시하고 있고, 3연에서는 끈질긴 도전 끝에 피운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연에서는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03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눈’이 도전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멈추지 않았으랴’와 같이 의문형으로 시행을 끝냄으로써 ‘멈추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4 청각적 심상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과 관련되므로 의성어를 통해 눈이 내리는 소리를 표현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과 관련되므로 눈이 어지럽게 훑날리며 내리는 모습을 그린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70~71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②
07 ③ 08 화자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눈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내고 마침내 피워 낸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09 햇살 같은 마음 10 ③
11 ④ 12 ③

01 이 시는 현대 시로,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서정 갈래는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등과 같은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되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독자에

게 전달하는 문학의 갈래이다. 한편 작가가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일을 꾸며서 쓰는 글은 소설로, 서정 갈래가 아니라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02 이 시에서 시인은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표현, 청각적·시각적 심상, 비유적·역설적 표현 방법 등을 통해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사랑의 가치와, 사랑을 통한 정신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는 눈이 도전과 헌신을 통해 피워 낸 눈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꽃이 피어난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한편 봄에 피어난 것은 눈꽃이 아니라 봄꽃이다. 따라서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눈꽃의 귀중함을 강조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고,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자연 현상의 모습에서 시의 발상을 취하고 있다.

② ‘싸그락’, ‘난분분’, ‘~겠지’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눈꽃을 피우려 거듭 시도하는 눈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눈꽃이 피어나는 자연 현상을, 눈이 사람처럼 첫 사랑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눈꽃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이 피어난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록 첫사랑이 끝남으로써 상처를 받지만, 이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04 이 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5 시인은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다가, 봄이 되어 그 눈꽃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첫사랑을 얻기 위한 인내와 노력, 그리고 첫사랑이 주는 아픔을 겪은 뒤 성숙해지는 사랑을 떠올렸기 때문에 시의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는 눈꽃이 진 자리에 피어나는 봄꽃, 즉 첫사랑을 끝낸 자리에 첫사랑을 겪은 후의 아픔과 상처를 디디고 이룩한 사랑을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풋풋한’이 아니라 ‘성숙한’이 적절하다.

06 이 시의 2연에는 ‘보았겠지’, ‘춤추었겠지’와 같이 ‘~겠지’라는 표현이 반복 사용되었고, ‘싸그락’,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반복되고 있으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유사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 운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명사로 시행을 끝맺으면 여운을 남길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음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각 행의 글자 수를 동일하게 맞추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지만, 정형시가 아닌 이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④ 묘사의 정도는 시의 운율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대상의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할 때 음악적 요소를 넣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문적 느낌을 줄 수 있다.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운율감을 형성할 수도 있으나, 이 시에서 2연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동일한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7 ‘ㄱ.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어 청각적 심상이, ‘ㄴ.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는 의태어가 사용되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③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에는 ‘서늘’에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가움을 표현하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발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②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는 쿵쿵거린다는 표현에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④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는 ‘돌돌돌’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모습이 나타나 있어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⑤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는 색채어가 나타나 있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08 서술형 3연의 마지막 행인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구에서 화자는 이처럼 은유법을 사용해 눈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내고 마침내 피워 낸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 시구에 사용된 비유의 명칭을 썼다.	☐
해당 시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9 ‘햇숨’은 ‘당해에 새로 난 숨’이라는 뜻을 가진, 하얗고 깨끗한 대상이다. 따라서 ‘햇숨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시구이다.

10 ㉠에서는 무생물인 ‘눈’이 사람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앉았으랴’라는 표현을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에서도 ‘벼’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함께 가자’에서는 의문형이 아닌 청유형이 사용되었고,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의인법과 거리가 멀다.

②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에 대구법이 사용되었지만,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④ ‘옛날같이’, ‘불경처럼’에서 직유법은 사용되었으나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아아’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였고, ‘(님은) 갔습니다’를 반복하는 반복법을 사용해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충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사라진다는 특성을 보여 주므로, 위태로움과 순간성이라는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2 시인은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여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나타내었고,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가지에 피어난 꽃을 ‘상처’라고 표현하여 첫사랑을 겪고 난 후의 아픔과, 이를 바탕으로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72~73쪽

01 ④ **02** ② **03** ‘눈꽃’과 ‘첫사랑’ 모두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 실패로 인한 아픔을 남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⑤ **07** ② **08** 역설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01 서정 갈래에서 자연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자연에서 이상적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는 경향은 고전 시가에서 두드러졌으며, 현대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자연에서 이상적 삶의 모습이 아닌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등 다양한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겠지’로 끝나는 문장 형태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청각적·시각적 심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 준다.

⑤ 이 시에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많은 시어와 시구가 나타난다. 그 예로, ‘햇숨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눈꽃’은 헌신이 있어야 이를 수 있는 첫사랑을, 봄에 핀 꽃은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02 이 시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헌신하는 ‘눈’과, ‘눈’의 노력이 이룩한 결과(눈꽃)에 대한 경탄과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 ‘싸그락 싸그락’, 의태어 ‘난분분 난분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자연 현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시는 자연물인 ‘눈’과 ‘꽃’에 빗대어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노래하고 있다. ‘눈꽃’과 ‘첫사랑’은 모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또는 실패로 인한 아픔을 남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시는 눈꽃이 피는 현상을 매개로 사

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의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이유를 썼다.	☐
‘눈꽃’과 ‘첫사랑’의 공통점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4 ㉔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피워 낸 첫사랑, 즉 눈꽃과 그 기쁨을 의미하며, 이를 ‘황홀’로 은유하여 눈이 도전과 헌신 끝에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눈이 녹은 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05 ㉔에 해당하는 시구를 일반적인 서술의 순서로 표현하면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인가’이므로, ㉔에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변화를 주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표현한 부분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이것은 ~ 아우성’, ‘이것은 ~ 손수건’이라고 한 데서 은유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도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로 나타내거나 봄에 핀 꽃을 ‘상처’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의 ‘아름다운 상처’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④ ‘물결같이’, ‘백로처럼’에서 ‘같이, 처럼’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의 ‘햇살 같은 마음’에도 ‘같은’을 활용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유치환, 「깃발」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역설적, 의지적, 상징적
제재	깃발
주제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비애
특징	• ‘깃발’의 상징적 이미지를 역설을 통해 제시함 • 동경과 좌절이라는 이원적 대립 구조를 지니고 있음 • 관념을 압축하고 정서를 상징화하여 언어의 경제성을 발휘함

06 (가)에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부정적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겨울과 봄에, (나)는 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 배경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는 내리는 눈, (나)는 떨어지는 꽃잎이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으로부터 시의 발상을 취하고 있다.

④ (가)는 인내와 헌신을 통해 얻어진 첫사랑의 의미를, (나)는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을 주제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형기, 「낙화」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성찰적
제재	낙화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특징	•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맺히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이별의 아픔이 내적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 이별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극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음

07 ‘난분분 난분분’의 ‘난분분’은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어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은 2연 1행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눈꽃이 진 자리에서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즉 ‘눈’과 ‘꽃’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 ‘첫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그려 내고 있다.

③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도전과 헌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눈의 마음을 ‘햇살’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핀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로, 눈꽃이 녹은 자리에서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이 시작하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서술형 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법이다. 부정적 의미의 단어인 ‘결별’이 긍정적 의미를 가진 ‘축복’을 이룩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 ‘상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한 4연 2행이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썼다.	☐
㉔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가)의 시행을 찾아 썼다.	☐

[참고 자료] 역설법

모순을 포함한 표현으로 그 속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나 진실을 담는 표현 방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과 구분된다.

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었을 때의 ‘찬란함’과 모란이 지고 닳을 때의 ‘슬픔’이 모순되지만, 이를 통해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77쪽	01 ③	02 ⑤	03 ④
❷ 79쪽	04 ③	05 ④	06 ①
❸ 81쪽	07 ②	08 ①	09 ②
❹ 83쪽	10 ④	11 ⑤	12 ④
❺ 85쪽	13 ⑤	14 “대문은 저쪽입니다.”	15 ①
❻ 87쪽	16 ④	17 ④	18 아홉 켄레의 구두 19 ③

01 이 소설의 주인공은 ‘권 씨’로, 서술자인 ‘나’가 그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다.

02 ‘권 씨’는 임신한 아내와 태아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때 ‘권 씨’는 돈을 빌릴 수 있는지만 물었을 뿐, 전세금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03 ‘나’를 찾아온 ‘권 씨’가 먼저 이는 언덕길을 올라왔음에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리는데, ‘나’는 ‘권 씨’의 구두가 깨끗한 이유를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권 씨’가 구두방에 들러 구두를 미리 닦았는지의 여부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이 글에서는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권 씨’의 아내에게 수술을 해 주는 일로 고민하는 ‘의사’의 갈등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에 대해 자신의 경제 상황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② ‘권 씨’는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간절히 부탁하고 있고, ‘나’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권 씨’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어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④ ‘권 씨’는 급격하게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하며 아내의 수술비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즉, ‘권 씨’와 사회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⑤ 수술비를 가져와야만 수술을 해 주겠다는 ‘의사’와, 수술비를 구하지 못하는 ‘권 씨’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05 ‘나’는 ‘권 씨’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이해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며,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 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냉정

한 면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나’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06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한 후 자신이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이자 지식인임을 드러냄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07 ‘나’는 보증금 마련을 못하는 ‘권 씨’를 비판하는 ‘의사’의 말에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것”이라고 응대한다. 이는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므로 ‘나’가 ‘의사’의 말에 공감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권 씨’의 절박함을 뒤늦게 깨달은 후 돈을 마련하여 수술비를 낸다.

③ ‘의사’는 보증금을 마련해 오겠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권 씨’를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④ ‘나’는 돈을 마련해서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냈고,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를 통해 ‘나’의 도움으로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은 날 강도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08 ‘의사’는 ‘권 씨’의 아내가 바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수술을 미루고 있다. 이는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09 ‘나’는 집주인이고 ‘권 씨’는 세입자로 둘은 소시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처지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가 뒤늦게 ‘권 씨’를 도운 것은 그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처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권 씨’가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권 씨’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한다. 이는 ‘나’가 ‘권 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돈을 마련해서 병원에 가져간 ‘나’는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④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에서 자신의 말이 ‘의사’에게 비판적으로 들리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한 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농치 버렸다고 하였다.

⑤ ‘나’는 ‘권 씨’를 몰래 도와준 것은 물론, ‘권 씨’ 아내가 낳은 태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감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따뜻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10 강도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뜨린 식칼을 되돌려주는 ‘나’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을 뿐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

11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는 ‘권 씨’로, 그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강도답지 못한 어설픈 행동을 보인다. 이는 ‘권 씨’가 강

도 행각을 벌이기에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 씨’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보기>에 제시된 강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12 ㉠과 ㉡에서는 서술자가 강도에 대해 ‘무척 모자라다’거나,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라고 직접 판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과 ㉣에서는 식칼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과 동준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강도의 모습을 서술하여 강도의 순박하고 소심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3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권 씨’가 ‘나’의 말을 듣고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분개한 이유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는데도 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정체가 들켰음을 알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14 ‘권 씨’는 자신이 강도로 침입하였다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영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에 ‘나’는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하며 ‘권 씨’의 행동을 바로잡아 준다. 이는 ‘권 씨’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게 된다.

15 ‘나’는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권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한다. 이는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한 말로, 의지할 데 없는 현실로 인해 강도짓까지 하게 된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16 이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 중인 도시 변두리이다. 글쓴이는 ‘권 씨’의 힘겨운 삶을 통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힘겨운 삶을 그리고 있다.

17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지만 정체를 들켜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은 채 집을 떠난다. 그런 그가 행방불명된 채 소설이 끝난 것은, ‘권 씨’가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이 회복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자신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권 씨’가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
③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귀가하지 않는 것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로, ‘나’는 ‘권 씨’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⑤ ‘권 씨’가 고향으로 갔는지, 거기서 인간성을 되찾았는지를 판단할 만한 단서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8 ‘권 씨’는 궁핍한 형편임에도 구두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다. 그러나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궁궁하다가 강도짓을 하고, 그마저 정체를 들켜 실패하면서 자신이 아끼던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진다. 따라서 그가 남긴 아홉 켤레의 구두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 ㉠은 ‘나(오 선생)’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고 있고,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즉 ㉢에서 ‘나’는 ‘권 씨’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 ‘권 씨’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④, ⑤ <보기>에서 ‘권 씨’는 자신이 ‘오 선생’에게 직접 들은 말을 서술하고 있으며, 강도로서 ‘오 선생’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자신의 심리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88~91쪽

- 01 ㉠ 02 ㉠ 03 ㉢ 04 ㉠ 05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여 ‘권 씨’가 전혀 자신을 떳떳이 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가서 아내와 새로 얻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4 ㉠
15 ㉠

01 이 글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이 특정 시점에서 서술되는 서사 갈래이다. 서사 갈래에서는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글은 ‘나’라는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어 서술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서사 갈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글에서는 ‘나’와 ‘권 씨’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② 서사 갈래는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나’이다.
③ 서사 갈래는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루지만, 이는 작가가 꾸며 쓴 허구적 이야기이다.
④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구성 요소이다. 이 글은 ‘나’와 ‘권 씨’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글의 (다)에서 ‘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 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마음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권 씨’는 돈을 빌릴 수 없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뒤,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털어놓고 있다.
③ (가)에 따르면 ‘권 씨’의 아내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④ (다)에서 ‘나’는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 할 뻔했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고민하다가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길 문제를 생각하고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03 이 글에는 돈을 빌리기 위한 ‘권 씨’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나’의 외적 갈등과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돈을 갚을 방법을 고민하는 ‘권 씨’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다)에서 ‘나’는 ‘권 씨’의 현실적 상황을 떠올려 본 후,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길 문제를 생각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를 통해 ‘나’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05 ‘권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찾아오지만 거절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권 씨’는 “오 선생, 이래 배도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06 <보기>에서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삼륜차에서 쏟아진 참외를 먹는 군중들의 모습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극단의 상황에 몰린 철거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온 ‘권 씨’의 모습에서 참외를 먹는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07 ㉔는 돈을 빌리기 위한 ‘권 씨’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권 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이 글에 ‘권 씨’가 돈을 갚기 위해 나쁜 일에 손을 댈 것이라는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하는 ‘권 씨’의 모습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권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로 쓸 돈을 빌리기 위한 것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며, ‘권 씨’에게 자신이 보증을 서 줄 테니 원장에게 매달려 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⑤ ‘권 씨’의 절박한 처지를 뒤늦게 깨달은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다가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므로, ‘나’가 ‘권 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08 ‘나’가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준 것은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함으로써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고 ‘권 씨’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를 통해 강도가 술의 힘을 빌려 강도 행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권 씨’는 강도 행세를 하며 ‘나’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눈치챈 ‘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③ (나)의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를 통해 ‘나’가 복면강도를 보자마자 바로 그의 정체체를 알아챘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와 (다)의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으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0 정답과 해설

09 ‘나’는 일찌감치 강도의 정체가 ‘권 씨’라는 것을 눈치채지만 그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한다. 이는 ‘권 씨’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서 ‘나’는 자신의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졸렬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나’가 ‘권 씨’를 농락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작가가 이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10 이 글은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열린 결말 처리 방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11 [A]에서 ‘나’는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화를 통해 ‘나’와 ‘권 씨’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인 ‘나’의 방에 강도로 침입했던 ‘권 씨’는 자기의 사정을 넌지시 설명하는 ‘나’의 말을 듣고 ‘나’가 자신의 정체체를 눈치채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방을 나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는 ‘권 씨’를 계속해서 강도로 대우하지만, ‘권 씨’의 정체를 알기에 여유 있게 대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가 자신을 강도로 대우해 주지 않는 점에 분노한 것은 아니다.

③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나’의 학교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방에 강도로 침입한 것이다. 따라서 ‘권 씨’는 ‘나’가 이미 수술비를 지불하여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권 씨’는 자기의 피지 못할 사정을 넌지시 설명하는 ‘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정체체가 탄로 난 것을 알고 분개한 것이며, 또한 ‘나’가 ‘권 씨’의 집안일에 대해 떠벌리고 다닌 것은 아니다.

⑤ ‘권 씨’는 강도 행각을 벌인 자신의 정체체를 ‘나’가 눈치챘음을 깨닫고 분개한 것이다. 강도 행각을 벌인 일이 결국 아픈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서 분개한 것이 아니다.

13 **서술형** ‘나’는 일찌감치 ‘권 씨’의 정체체를 파악하지만,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야 그가 전처럼 자신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를 바탕으로 하여 ‘나’가 ‘애당초 의도했던 바’의 의미를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권 씨’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정체체를 들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다 ‘나’의 지적을 받게 된다. 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㉔과 같이 집을 나갔으므로 이를 표현하기 적당한 한자성어는 ‘자포자기(自暴自棄)’이다. ‘자포자기’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② 와신상담(臥薪嘗膽) -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살신성인(殺身成仁) -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15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상황에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자신이 대하 나온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마지막 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권 씨’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92~93쪽

- 01** ② **02** ③ **03** ② **04** 인물의 행동을 보고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05** ④ **06** ④

01 이 글은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소설로,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에 해당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이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서술자인 ‘나(오 선생)’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이 글은 소설이므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 ④ 이 글은 1970년대 경기도 성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권 씨’(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루고 있다.
- 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02 이 글의 ‘의사’는 보증금을 마련해 오지 못하는 ‘권 씨’를 한심하게 여기며 혀를 차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나’는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라고 하며,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의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다)에서 ‘권 씨’는 강도 행각을 할 때 구두를 벗고 들어오다가 하면, 자신이 발을 밟아서 아이가 잠에서 깨자 아이를 토닥거리며 다시 재우고 있다. 이를 통해 ‘권 씨’의 소심하고 어수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④ (나)에서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는 ‘권 씨’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이 올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에 ‘나’가 거절의 말을 한 후 ‘권 씨’의 모습은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라고 하였다. 그후 ‘권 씨’는 실례 많았다고 하며 돈을 빌릴 것을 단념하고,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다.

03 이 글의 서술자인 ㉠은 ‘권 씨’를 관찰하는 ‘나(오 선생)’이고, <보기>의 서술자인 ㉡는 유치원에 가게 된 ‘나’이다. 따라서 ㉠과 ㉡는 모두 작품 속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나’는 물질을 중시하는 ‘의사’를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의 ‘나’는 그런 사회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이 글과 <보기>의 ‘나’는 모두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설명이 객관적 사실인지 의심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생인 <보기>의 서술자(㉡)이다.
- ⑤ <보기>의 서술자(㉡)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감각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어린이이인 ‘옥희’를 화자로 내세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와 사랑(사랑방)에 머물게 된 ‘아저씨’ 사이의 사랑과 이별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여자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어린 화자의 천진한 눈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04 서술형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는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의 방법이 있다. <보기>는 ‘권 씨’가 강도로 침입했을 때의 행동을 보고 ‘권 씨’가 순박하고 착한 성품이라는 성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인물의 행동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고 있음을 썼다.	☐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썼다.	☐

05 ㉠은 화자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대상으로,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상징한다. 화자는 아홉 결레의 신발, 즉 아홉 마리의 강아지 같은 가족을 위해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로 상징되는 삶의 고달픔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다.

06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여 도와준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가 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의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암시한다. 뒤에 나타난 강도의 태도로 보아, 이는 ‘나’에게 여러모로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는 의미와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수술 보증금을 내기 전에는 수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원장에게 거기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 씨’는 원장이 이 해타산적이며 속물적인 사람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권 씨’가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발을 문지르며 구두를 닦는 동작은 돈을 빌리려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던 ‘나’는 ‘권 씨’의 절박함을 뒤늦게 깨닫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며 ‘권 씨’를 돕고 있다.
- ⑤ 잠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오고, 잠이 깬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재우다가 식칼을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리는 강도의 미숙하고 어설픈 태도를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 결혼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97쪽	01 남자 02 ③ 03 ①
② 99쪽	04 ④ 05 ④
③ 101쪽	06 ④ 07 관객 외에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는 대사 로(방백으로)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를 알게 한다. 08 ②
④ 103쪽	09 ① 10 ⑤
⑤ 105쪽	11 ② 12 ① 13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 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⑥ 107쪽	14 ④ 15 관객 16 ⑤

01 이 글에서 '남자'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하고 '여자'와 맞선을 본다.

02 이 글에서 '하인'은 벡타이 등 '남자'가 빌린 물건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인물인 '남자'와 대비되는 보조적인 인물로 물건을 오랫동안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03 ㉠에서 '여자'는 맞선을 볼 '남자'가 엄청난 부자인 것을 알고 황홀해하고 있고, ㉡에서도 남자가 부자면 꼭 붙들어야 한다는 '여자의 어머니'의 말에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했다고 하였다. 이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며, 작가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전개-⑤'에서 '여자'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라고 '남자'에게 말하고 있으나 이는 '여자의 추측일 뿐 '여자의 아버지'가 부모님 없이 자랐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덤'은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여자'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이다.

②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덤'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여자'는 "저는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덤'이라는 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5 등장인물인 '남자'가 관객에게 벡타이를 빌리고, 관객에게 시간을 재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관객은 극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등장인물은 관객과 소통하며 극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6 '남자'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말하며 '여자'를 사랑한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남자'가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한 이유는 '여자'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여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07 **서술형** '전개-⑦'에 제시된 '남자'의 대사는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인 방백이다. '남자'는 이와 같은 방백을 통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음을 관객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방백의 특성을 썼다.	☐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08 물질을 중시하여 부자 행세를 하고, '하인'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 물건을 빼앗아 가면 저항하던 '남자'는 '하인'이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가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며 행복함을 느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를 '여자'에게 들려주며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09 사진은 자랑거리가 없나는 '남자'의 물음에 '여자'가 핸드백에서 꺼내 '남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여자의 것이다. 이 때문에 '남자'는 자신이 빌리지 않은 사진을 넘보는 하인에게 "뭘 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남자'는 '하인'이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집어 가져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간 것이 다행이며,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 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④ '남자'와 '여자'는 사진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 주자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의 나이에 맞게 '조금 씩 목소리'와 '뚝 씩 목소리'로 말하며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다.

⑤ '여자'는 자랑거리를 보여 달라는 '남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며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10 '남자'는 사진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음이나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을 '여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사진 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1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이 적힌 쪽지를 읽고도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지 않자 '하인'은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소품(ㄴ)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신으며 그 구두발로 '남자'를 내쫓기 위해 차 널 듯한(ㄷ)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ㄱ).

12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고, 맞선을 볼 남자가 부자거든 꼭 붙들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와 맹세했던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실체를 고백했는데도 ‘남자’를 즉시 떠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 이는 ‘여자’가 이미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3 **서술형** 이 글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관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남자’는 ㉠, ㉢와 같이 말하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소유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진다는 ‘남자’의 생각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여자’는 ‘남자’가 사기꾼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승낙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설득되었으며, 소유의 본질에 관한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한 맹세를 어기고 빈털터리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도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진 ‘남자’의 처지에 연민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니다.

⑤ ‘하인’은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여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15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소품을 빌리는 행위 등을 통해서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기법과, 실험적 기법의 효과로 극의 상황과 주제를 관객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은 실험적 기법을 구현하는 대사로, ‘남자’가 벵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을 가리킨다.

16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세상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하며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소유의 본질과 사랑에 대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빌렸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남자’는 ‘여자’를 빌리는 동안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을 뿐, ‘여자’가 공짜로 얻은 덤이라서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③ ‘남자’는 ‘여자’를 세상에서 빌리는 동안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여자’의 재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앞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여자’가 부유한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08~111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 역할을 하며 물건을 오래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는다. ‘하인’의 이러한 행동은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 07 ⑤ 08 ① 09 ② 10 ‘덤’은 물건을 사고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 주거나 받는 물건으로,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1 ② 12 ③ 13 ④

01 이 글은 희곡으로, 희곡은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며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면 구현에 제약이 있다. 극 갈래의 종류에는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다. 또한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따라서 서술자의 서술만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희곡의 구성 요소

해설	희곡의 첫머리에서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지시문	무대 장치, 음향 효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

02 지시문은 무대 장치, 음향 효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이나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로, 이 글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03 이 글은 일반적인 현대극과 달리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객이 극 중에 참여한다. (라)에서 극 중 인물인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어 소품인 벵타이를 빌리고 있다.

04 (다)에서 ‘남자’는 ‘하인’이 벵타이를 빼앗아 가자 ‘여자’에게 “뭘,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태연한 척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모든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남자’의 깨달음을 보여 준다.

05 ‘여자’와 ‘남자’가 서로 외모에 이끌려 처음 보자마자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며 ‘남자’의 물질적인 면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를 통해 ‘남자’는 자신이 낭독한 이야기책의 사기꾼처럼 빈털터리이지만 모든 것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여자’가 ‘남자’의 화려한 저택 앞에서 황홀해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작가는 부자 행세를 하는 ‘남자’와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06 서술형 ‘하인’은 이 글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하고, 물건을 더 오래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이러한 ‘하인’의 역할은 모든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하인’의 역할을 적절하게 썼다.	☐
‘하인’의 역할은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7 ㉠에는 관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빌린 것이며, 모든 물건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은 빌린 동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남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08 (가)에서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나)에서 혼잣말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하인’은 ‘여자’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③ (마)에 따르면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는 본래 빈털터리지만 물건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한 사기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④ (가)에서 ‘여자’는 ‘덤’이라는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것이 있다고 하며 이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⑤ (다)에서 ‘여자’는 ‘남자’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09 (다)에서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자기 발에 신고,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아닌 긴장감을 더하는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남자’가 독백을 하며 ‘여자’에 대한 마음을 고백할 때에는, ‘남자’에게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조명을 ‘남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다)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하는 말은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이므로 진지한 표정과 눈빛으로 연기해야 한다.

④ (다)에서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놀란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

⑤ 등장인물들이 대화할 때는 대화가 관객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배경 음악을 틀지 않거나, 음악을 틀더라도 음량을 낮추어야 한다.

10 서술형 ‘덤’이라는 여자의 별명을 통해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즉, ‘덤’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유의 본질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덤’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글의 주제를 썼다.	☐

11 이 글의 (라)에서 ‘남자’는 관객석의 사람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라고 말을 걸고, <보기>에서 등장인물인 ‘말뚝이’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하며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

12 ㉠은 무대 위에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된 방백으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음을 관객에게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등장인물인 ‘여자’보다 먼저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무대 위에서 혼잣말로 하는 대사는 독백이다.

13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고 놀라며 ‘사기꾼’이라 했던 ‘여자’는 결국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남자’와 포옹한다. 이로 보아 ‘여자’가 물질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12~11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관객, 이 글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③

01 이 글은 희곡으로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와 서사 갈래는 운율이 없는 줄거리로 구성되는 산문이며,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또한 수필과 달리 작가가 상상하여 쓴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극 갈래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구성 단계가 있으며, 서사 갈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 단계가 있다. ⑤에 제시된 ‘해설, 대사, 지시문’은 극 갈래에 속하는 희곡의 구성 요소로 극 갈래만의 특징이다. 서사 갈래에 속하는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참고 자료】 극 갈래와 서사 갈래

극 갈래	서사 갈래
-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함 - 장면을 구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받음 -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음	-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함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장면 구현이 가능함 - 신화, 전설, 민담,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음

02 (라)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대하겠다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청혼하고 있다.

03 <보기>는 이 글에 대한 작가의 설명으로,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주는 것은 이 연극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글의 (가)와 (라)에서 ‘남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며, 영원한 소유는 없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04 이 글에서 ‘남자’는 ‘여자’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여자’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적 어조’가 적절하다.

05 <보기>는 이 글의 주제로 소유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에서 ‘여자’가 어머니에게 했던 맹세는 맞선을 볼 남자가 부자라면 꼭 붙잡겠다는 것으로 <보기>와 달리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여자’의 별명 ‘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덤으로 빌린 것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보여 준다.
 ② (라)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베탁이를 빌려서 소중하게 아꼈다가 돌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유의 본질과 관련된다.
 ④, ⑤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돌려준 나무와 시간이 지나가자 생명을 돌려주기도 태연한 고양이는 (가)에서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여자에게 알려 주기 위해 든 사례이다.

06 ㉠은 젊음이나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단지 과거의 흔적만 남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남자’가 한 말이다.

07 서술형 이 글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에서는 등장인물인 ‘남자’가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즉 ㉠은 관객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관객을 의미하고 있음을 썼다.	☐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인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썼다.	☐

08 ㉠과 ㉡는 ‘남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인’의 주인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소품이다.

오답 풀이 ① ‘하인’은 시계를 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고 있다.
 ② ‘하인’은 저택을 빌린 시간이 다 되자 ‘남자’를 저택에서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밭에 신으며 그 구두발로 차 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 ㉡는 시간이 되면 물건을 빼앗는 설정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극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하인’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다 되자, ‘남자’를 저택에서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고 있다. 즉 시계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은 ‘하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다.

(4) 반 통의 물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① 117쪽 01 ③ 02 ③ 03 ④
 ② 119쪽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1 이 글의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하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당근을 속아 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기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즉 글쓴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환멸을 느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농사를 짓게 된 계기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채소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풀을 뽑지만,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라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며, 싹이 나오지 않아서 알아보았더니 새들이 잘 먹고 간 뒤였다고 하였다.
 ④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났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의 첫 부분에서 김을 매며 속담을 자주 떠올린다고 하였다.

02 글쓴이가 뿌렸던 당근씨에서는 싹이 촘촘하게 돌아났고,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많았다. 글쓴이는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당근을 속아 주며 뿌리들의 ‘아우성을 중재’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당근을 속아 준 이유는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당근의 뿌리가 뻗뻗하게 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03 글쓴이가 ㉢에서 원주민 풀들에게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원주민 풀들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04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즉 서술자가 작가 자신으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다. 허구적인 서술자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교술 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 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다.
 ④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⑤ 한국 문학의 교술 갈래에는 설(說), 기(記) 등의 한문 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있다.

05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본 경험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의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할아버지를 보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농사를 짓는 자신의 마음이 이 할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편안하게 농사짓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채소를 키우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마음도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생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는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에는 농부의 사랑과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밭에 물을 길어다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7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은 채소들에게 물통의 물을 흠뻑 쏟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을 흠뻑 쏟기 때문에 물통이 비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비유적 표현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0~12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반
통의 물 07 ④

01 이 글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②)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①)한 문학인 교술 갈래이고, 그중에서도 수필에 해당한다. 교술 갈래에는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있으며(③), 수필은 일상적인 경험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경험을 겪은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⑤). 그러나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02 (가)의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의 둔덕에서 원래 자라던 풀들을 '원주민 풀'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에서 식물을 사람에 비유하였다(㉠). (다)에서 '절뚝절뚝', '휘청휘청'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는 당근을 속아 준 경험, (나)에서는 김을 맨 경험, (다)에서는 불편한 몸으로 물을 주는 할아버지를 본 경험을 말하며 농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03 (나)에서 글쓴이는 감매기를 하면서 풀 뽑기를 망설이고 있다. 이때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하며, 생명이 공존하는 숲보다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잡초를 뽑는(죽이는) 밭이 오히려 생명에 덜 가깝다고 하였다.

26 정답과 해설

04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통해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다. 이런 깨달음으로 보아, 글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05 ㉠은 뻣뻣하게 자란 당근을 속아 주어서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글쓴이가 농사를 지으며 잡초를 뽑지도 못하고 아예 안 뽑지도 못하며 망설이는 일이다. 따라서 ㉠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글쓴이의 망설임을 담고 있으므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려는 행동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③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은 뻣뻣하게 자란 당근을 속아 주는 일을 말한다. 이는 당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주는 일이다.

②, ④ '이런 안절부절'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생각하는 글쓴이가 잡초를 뽑는 것을 망설이는 행동으로, 이것 덕분에 글쓴이의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라고 하였다.

06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 때문에 물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길에 흘리지만, 남은 '반 통의 물'을 채소에 쏟아부으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07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글쓴이가 경험했던 (가)~(다)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말한다. (다)에 나타난 '그 젖은 길'은 할아버지가 물통을 들고 걸어가면서 생긴 것으로, 글쓴이가 그 길을 물로 적신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당근을 속아 주는 경험을 통해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②, ⑤ (다)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러 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도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잡초와 채소는 인간에 의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매기는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풀들을 쫓아내는 일이므로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밭에 나는 잡초를 완전히 뽑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풀을 아예 뽑지 않으면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만 뽑아 주고 있어서 다른 밭보다 글쓴이의 밭에 풀이 무성하다고 하였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22~123쪽

01 ① 02 ④ 03 ⑤ 04 수필은 작가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 수필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쓴 글이다. / 수필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등 05 ③

01 이 글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수필을 읽을 때에는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02 (나)에서 글쓴이의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잡초와 채소의 기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으며 생명을 키우기 위해 원래 있던 생명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작년에도 너무 알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 ② (가)에서 글쓴이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새와 벌레를 위해 나눌 줄 아는 농부들의 넉넉한 마음을 깨닫고 있다.
- ③ (나)에서 글쓴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라고 하면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라고 하였다. 즉 생명(채소)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풀들(잡초)을 뽑아야 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다)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

03 글쓴이는 (다)에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을 흘리면서도 몇 번씩이나 길을 오가며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는다. 성실하고 변함없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서술형 글쓴이가 글을 쓴 과정을 통해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여 얻은 깨달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곧 수필의 갈래적 특성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글을 쓴 과정과 관련하여 수필의 특성을 썼다.	☐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05 이 글에는 농사를 지으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보기>에는 배추 포기를 묶으며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글과 <보기>는 채소를 기르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나희덕, 「배추의 마음」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연 친화적
제재	배추
주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
특징	- 배추를 의인화하여 인간과의 교감을 형상화함 - 대화체, 독백체의 서술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함

→ 배추를 의인화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낸 시이다. 대화체로 서술하여 정감 있는 분위기를 그려 내었으며, 마지막 행을 통해 배추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이 글에서는 '나'와 '권 씨'가 갈등하고 있다.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였다. **12** ⑤
13 ② **14** ⑤ **15** ② **16** ④

01 (가)는 서정 갈래인 시 작품이고, (나)는 극 갈래인 희곡 작품이다. 시의 구성 요소는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이 있다. ③에서와 같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사 갈래인 소설에 해당한다.

02 (가)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헌신적인 노력과 눈꽃이 피어난 모습, 마침내 봄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나) 또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사랑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남자'와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가)의 주제인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사랑의 결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 ② (나)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과 헌신적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구애하는데, 이는 (가)에서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남자'와 '여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난 것은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는 (나)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 주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03 (가)의 2연에서는 '싸그락', '난분분'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ㄱ). 또한 2연의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를 표현하여 청각적 심상이,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여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ㄴ).

04 (가)에서 '획 날아갈 사랑'은 바람 한 자락에도 쉽게 날아가는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주며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한다. 사랑을 통해 얻게 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② '햇숨 같은 마음'은 상대를 위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③ '황홀'은 눈이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후에야 마침내 피워 낸 눈꽃으로, 역경을 딛고 피워 낸 아름다운 첫사랑을 의미한다.
- ④ '그 한 번 댄 자리'는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자리로, 눈꽃은 첫사랑을 의미하므로 첫사랑이 지나간 아픔의 흔적을 의미한다.
-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피어난 봄꽃으로, 눈꽃이라는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5 희곡은 무대 위에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므로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06 (나)에서 '하인'은 보조적 인물로,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 역할을 한다. (나)에서 '하인'은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남자'에게 표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 '여자'에게 '남자'의 사랑을 전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여자'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예요."라고 하며 '남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할 때,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③ 방백은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 대사이다. '남자'는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며 방백으로 '여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라고 말하고 있다.

07 (나)의 '남자'의 말에 소유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다.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도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고, 관객의 베타이를 소중하게 돌려주었던 것처럼 '여자'를 빌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빌린 것도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한 ⑤는 (나)에 나타난 소유에 대한 관점과 거리가 멀다.

08 이 글은 지식인이었으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 '권 씨'의 삶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권 씨'는 아내의 출산을 위해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는 '권 씨'의 처지와 심리를 보여 주는 일화일 뿐,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②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을 다룬다.

③ 강도로 침입해 어설픈 모습을 보이는 '권 씨'의 행동을 통해 소심하고 순박한 '권 씨'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인 '권 씨'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09 (라)에서 '나'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고 하며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권 씨'는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하며 '나'가 자신을 몰래 도와 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권 씨'를 관찰하여 '권 씨'의 외양이나 행동을 묘사하면서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와 같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② '권 씨'는 '나'에게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라고 하며, 그 뒤에 자신의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나'는 어둠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고 금세 강도가 초보임을 알아채며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먹을 거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등에서 '권 씨'의 긴장한 모습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권 씨'가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에서는 '오 선생(나)'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보기>에서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11 **서술형** (가)와 (나)에서 '권 씨'가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한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그 결과 (다)와 (라)에서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권 씨'가 갈등하고 있음을 썼다.	☐
갈등의 원인으로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사건을 썼다.	☐
갈등의 결과로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내용을 썼다.	☐

12 '권 씨'는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뒤에, 또 얼굴을 숨기고 강도질을 하다가 정체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안 뒤에 자신이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한다. 두 상황은 모두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권 씨'가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로 짐작할 수 있다.

13 ①의 '움찔거리다'는 '몸을 뒤로 움츠리다.'라는 뜻이다. ②의 '기운이나 생각 따위가 새로이 일어나다.'는 '움트다'의 의미이다.

14 이 글은 작가가 말을 가꾸며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즉 개인의 경험과 통찰을 전달하는 글로, 자신의 경험을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하거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수필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는 글이므로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다.

② 수필은 형식과 표현이 자유로운 글이다.

③ 수필은 자유롭게 쓰는 글이므로 글쓰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15 '나'는 채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을 한 통씩 길어다 준다. 채소에게 반 통의 물을 부어 주는 것은 '나'가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는 '할아버지'이다.

16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며 걸어간 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4.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의 변동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133쪽

01 ⑤
05 ②

02 비음화

03 ②

04 ①

❷ 135쪽

06 ②
09 ⑤

07 • 그피, ㅍ • 싸치, ㅈ

08 ③

10 ②

01 ‘밭에서’는 [바테서]로 발음되는데, 앞말의 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로 연음된 것뿐이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먹는다’는 ‘먹’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멍는다]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 ‘해돋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므로 [해도지]로 발음된다. 즉,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③ ‘달는다’는 ‘달’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므로 [단는다]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났다.
④ ‘한라산’은 ‘한’의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되어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즉, 유음화가 일어났다.

02 ‘국민’은 [궁민], ‘침략’은 [침:낙], ‘대통령’은 [대:통녕]으로 발음되며, 이들은 모두 비음이 아닌 음운이 각각 앞 또는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었으므로 공통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03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② ‘강릉’은 뒤 음절 첫소리 ‘ㄹ’이 앞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유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신래[실래]는 받침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천리[철리]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대관령[대:괭령]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04 ‘굳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ㅈ’으로 교체되면서 [구지]라고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마치’와 ‘해맞이’는 앞말의 끝소리가 ‘ㄷ’ 또는 ‘ㅌ’이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읽’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05 ②는 [날:로]로 발음되므로 ‘난’의 받침 ‘ㄴ’이 뒤의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나머지 단어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궁물]로 발음된다.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ㅇ’에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③ [담:넝]으로 발음된다. 뒤 음절 첫 소리인 유음 ‘ㄹ’이 비음 ‘ㅇ’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④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받침 ‘ㅍ’의 대표음인 ‘ㅂ’이 뒤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⑤ [만며느리]로 발음된다. ‘만’의 받침 ‘ㄷ’이 뒤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일어났다.

06 ‘안기다’는 그대로 [안기다]로 발음이 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발전’은 [발쩐]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③ ‘입학식’은 [이팍씩]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④ ‘할 도리’는 [할뜨리]로 ‘ㄷ’이 된소리 ‘ㅌ’으로 교체되었다.
⑤ ‘만날 사람’은 [만날싸람]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07 ‘급히’의 표준 발음은 [그피]로 앞말의 받침 ‘ㅂ’과 뒷말의 첫소리 ‘ㅎ’이 축약되어 ‘ㅍ’이 된 것이며, ‘쌍지’의 표준 발음은 [싸치]로 앞말의 받침 ‘ㅎ’과 뒷말의 첫소리 ‘ㅈ’이 축약되어 ‘ㅊ’이 된 것이다.

08 ③은 ‘자--았--다’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ㅏ’ 뒤에 ‘ㅏ’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한쪽의 ‘ㅏ’가 탈락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아라’가 결합된 형태로 같은 모음인 ‘ㅏ’가 탈락하였다.
② ‘고--어’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④ ‘쓰--어라’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⑤ ‘크--어서’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09 ⑤는 ‘건너--어서’의 결합으로 같은 모음이 중복되는 ‘ㄴ’이 탈락하였다.

오답 풀이 ① ‘잡히다’의 발음은 [자피다]로, ‘ㅂ’과 ‘ㅎ’이 합쳐져 ‘ㅍ’이 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더듬지’의 발음은 [더듬찌]로,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이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③ ‘닭장’의 발음은 [닥짱]으로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이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와서’의 발음은 [와서]로, ‘오-’와 ‘-아서’가 결합하여 ‘와서’가 되었으므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10 ‘입술’은 [입쑤]로 발음되며, 예사소리인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파랑다’는 [파:라타]로 발음되며,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고파서’는 ‘고프--아서’가 결합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이다. ‘파랑다’를 발음할 때는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전체 음운이 7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다.



- 오답 풀이** ① ㉠은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6개로 변동이 없다. ‘ㅅ’은 하나의 음운이다.
- ③ ㉢은 어간 ‘고프-’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었다.
- ④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교체, ㉤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⑤ ㉥은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은 반면, ㉦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36~139쪽

- 01 ③ 02 ④ 03 ③ 04 탈락, ㉠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조음 방법 10 ㅈ, 구개음화, ㅈ, ㅈ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저카판], ‘적’의 ‘ㄱ’이 ‘합’의
 ‘ㅎ’과 축약되어 ‘크’으로 발음되고, ‘합’의 ‘ㅂ’이 ‘한’의 ‘ㅎ’과 축약되어 ‘표’으
 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21 ⑤ 22 ④
 23 빙방우리 → 비빔우리/빔빔우리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된다.

- 오답 풀이** ①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② 어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⑤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02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으며, 이는 발음을 쉽게 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03 ‘묻히다’는 [무치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묻’의 받침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무티다]로 바뀐 후, ‘티’과 형식 형태소 ‘ㅣ’가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뀐 것이다. 즉 ‘묻히다’를 발음할 때에는 축약(거센소리되기)과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꽃잎’은 [콘닙]으로 발음되는데,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② ‘젓는다’는 [전는다]로 발음되는데,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만 일어난 것이다.
 ④ ‘낫설다’는 [낫셀다]로 발음되는데, 교체(된소리되기)만 일어난 것이다.
 ⑤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되는데, 교체(유음화)만 일어난 것이다.

04 ㉠에서는 ‘ㅡ’가 탈락하며, ㉤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음운 변동 현상은 ‘탈락’이다. ㉠은 발음되는 대로 ‘따라’로 표기하여 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고, ㉤은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것이다.

05 ‘빛[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박사[박싸]’는 된소리되기, ‘논리[눌리]’는 유음화, ‘많다[만:타]’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반면에 ‘넓음[널빔]’은 앞 음절 받침의 ‘ㅂ’이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므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06 이 글의 (가)는 비음화, (나)는 유음화를 설명하고 있다. ㄴ의 ‘달나라’는 [달라라]로 유음화가 일어난다. ㄹ의 ‘밥물’은 [밤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ㄴ과 ㄹ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ㄱ. ‘툼밥’은 [툼뵵]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ㄷ. ‘국화’는 [구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7 ‘만리포[말리포]’는 유음화, ‘종로[종노]’와 ‘백마강[뱅마강]’은 비음화, ‘북한산[부간산]’은 거센소리되기, ‘낙동강[낙동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은 ‘종로’와 ‘백마강’이다.

08 ㉠은 받침 ‘ㄴ’이 뒷말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 ‘실내화’는 뒷말 ‘ㄴ’이 앞말의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광한루’는 ‘한’의 받침 ‘ㄴ’이 뒷말 ‘루’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광:할루]로 발음된다.
 ③ ‘난로’는 ‘난’의 받침 ‘ㄴ’이 뒷말 ‘로’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날:로]로 발음된다.
 ④ ‘신라’는 ‘신’의 받침 ‘ㄴ’이 뒷말 ‘라’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⑤ ‘대관령’은 ‘관’의 받침 ‘ㄴ’이 뒷말 ‘령’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대:괵령]으로 발음된다.

09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교체되므로 영향을 준 비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교체되므로 역시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조음 방법은 자음을 발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10 ‘가을걷이’는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음절의 끝소리 ‘ㄷ’이 ‘ㅈ’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가을거지]로 발음된다. 이처럼 ‘ㅣ’ 모음 앞에서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이유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11 ㉠ ‘해돋이[해도지]’와 ㉤ ‘맡이[마지]’에서는 ‘ㄷ’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 ‘불임성[부침쟁]’ 역시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오답 풀이** ㉡ ‘감춰 왔던’은 ‘감추+--어’가 ‘감춰’로, ‘오+--왔던’이 ‘왔던’으로 축약된 것이다.
 ㉢은 [이파칸]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ㄱ’과 ‘ㅎ’이 축약되어 ‘크’이 된 것이다.
 ㉣은 ‘ㄷ’과 ‘ㅣ’가 결합했지만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③ ‘눈동자[눈똥자]’는 ‘ㄴ’ 뒤에 결합된 예사소리 ‘ㄷ’이 된 소리 ‘ㅌ’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눈동자는 ‘눈’과 ‘동자’가 합쳐진 합성어로, 눈동자의 ‘ㄴ’은 어간의 받침 ‘ㄴ’이 아니므로 ㉠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는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 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13 <보기>는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④번의 ‘쌍네’는 [짚네]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쌍네’가 [짚네]가 되고, 다시 이 [짚네]의 받침 ‘ㄷ’에 비음 ‘ㄴ’이 영향을 주어 [짚네]로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국화꽃[구과꽃]’은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었다.

② ‘잡혔다[자편따]’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③ ‘급히[그피]’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⑤ ‘빨갈대[빨:가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14 ‘샷다’는 ‘사-+-샷-+-다’가 결합한 말로, 어간의 ‘ㅌ’가 탈락한 것이다. 한편 나머지는 모두 ‘ㄴ’가 탈락한 사례이다. 따라서 답은 ②다.

오답 풀이 ① ‘담가’는 ‘담그-+-아’의 형태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③ ‘썻다’는 ‘쓰-+-엿-+-다’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④ ‘꺼’는 ‘꼬-+-어’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⑤ ‘예뻐서’는 ‘예쁘-+-어서’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15 ㄱ의 ‘국물’은 [궁물]로 비음화가, ㄴ의 ‘윤리’는 [올리]로 유음화가, ㄷ의 ‘만형’은 [마형]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ㄹ의 ‘먹을지’는 [머글지]로 된소리되기가, ㅁ의 ‘피붙이’는 [피부치]로 구개음화가, ㅂ의 ‘갈 데가’는 [갈떼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각각 ㄹ과 ㅂ이다.

16 ‘집’은 [집]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소리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빚’은 [빔]으로 발음되며 음절 끝소리의 교체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집’과 ‘짚’은 모두 [집]으로 발음된다.

② ‘빚’, ‘빔’은 모두 [빔]으로 발음된다.

④ ‘빚’과 ‘히읇’은 각각 [빔], [히읇]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음절 끝소리는 모두 ‘ㄷ’으로 같다.

⑤ ‘히읇’의 ‘히’는 받침이 없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겉모양’은 [건모양]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건모양]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꽃눈’ 역시 [꼇눈]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꼇눈]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밥물’은 [밤물]로 비음화만 일어난다.

③ ‘땀뻘’은 [땀뻘]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땀뻘]으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④ ‘못한’은 [몬:한]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몬:탄]으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⑤ ‘물상식’은 [물쌍식]으로 된소리되기 현상만 일어난다.

18 ㉠에서는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에서는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ㄷ’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19 ㉢ ‘물혀’는 ‘물-’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된 후,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과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무쳐]가 된다. 마지막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는 [치]로 발음하므로 [무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 ‘입니다’는 비음화에 의해 [임니다]로 발음된다.

② ㉡ ‘확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확뽕]으로 발음된다.

③ ㉢ ‘역할’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여칼]로 발음된다.

⑤ ㉤ ‘커지고’는 모음 탈락이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20 서술형 ㉤는 ‘적’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이 되고, ‘합’의 받침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마찬가지로 거센소리인 ‘ㅍ’이 되므로 [저카판]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에서 어떤 음운이 어떻게 거센소리로 변하였는지 정확하게 썼다.	☐

21 ‘의견(意見)’에 사용된 두 글자는 모두 변동 없이 [의:견]으로 발음되며, 본래 첫소리가 ‘ㄴ’이나 ‘ㄹ’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래(來)’는 ‘내일(來日)’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내’로 쓰이지만 ‘미래(未來)’에서처럼 뒤에 올 때는 ‘래’가 된다.

② ‘류(流)’는 ‘유행(流行)’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유’로 쓰이지만 ‘하류(下流)’처럼 뒤에 올 때는 ‘류’가 된다.

③ ‘례(禮)’는 ‘예의’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예’로 쓰이지만 ‘혼례(婚禮)’처럼 뒤에 올 때는 ‘례’가 된다.

④ ‘리(理)’는 ‘이발(理髮)’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이’로 쓰이지만 ‘진리(真理)’처럼 뒤에 올 때는 ‘리’가 된다.

22 ‘흙으로’가 [흘그로]로 발음된 것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왔을 때 겹받침 중 뒤엿것을 연음해서 발음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유음화가 일어나려면 원래의 단어에 비음 ‘ㄴ’이 있어야 하므로, ‘흙으로’는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3 ‘빗방울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빔방우리]가 되고, 다시 받침 ‘ㄷ’의 영향을 받아 연결되는 소리인 ‘ㅂ’이 된소리로 변한다. 최종적으로 [비뽕우리] 또는 [빔뽕우리]로 발음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 하늘이 / 떨어진다 - 연음 현상에 의해 각각 [하느리] / [떠러진다]로 발음된다.

• 젖는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젼는다]가 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젼는다]가 된다.

• 어두운 / 거리에 / 찬 - 모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들이다.

- 01 ④ 02 ② 03 ③은 ‘발’과 실질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된 말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다. ⑥은 ‘발’과 형식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04 ④ 05 ⑤
06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앞말의 끝소리 ‘ㅌ’이 ‘ㄷ’으로 바뀌었다.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티’가 ‘치’로 바뀌었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으로 바뀌었다. 07 ④ 08 ⑤

01 (가) ‘꽃다발[꼇따발]’에는 받침 ‘ㅈ’이 ‘ㄷ’으로(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은 ‘ㄲ’으로 바뀌는(된소리되기 현상) 교체가 일어났다. ‘받고[받꼬]’ 역시 ‘ㄱ’이 된소리 ‘ㄲ’으로 교체되었으며, ‘웃는[운:는]’은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ㄱ에 해당한다.
(나) ‘국화[구과]’는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으며, ‘종다[조타]’ 역시 ‘ㅎ’이 ‘ㄷ’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따라서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ㄱ에 해당한다.

02 제시된 내용은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이다. ②의 ‘놓은’에서는 자음 ‘ㅎ’이 탈락되어 [노은]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많다’, ‘달도록’, ‘좁히다’, ‘꽃 한 송이’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만:타], [달토록], [조피다], [꼬탄송이]로 발음된다.

03 서술형 ③의 ‘발이랑’은 ‘발’의 고랑 사이에 흡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이라는 의미로, 실질 형태소인 ‘발’과 ‘이랑’이 결합된 말이다. 그러므로 [발이랑]처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 비음화가 일어나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반면, ⑥의 ‘발이랑’은 실질 형태소인 ‘발’과 형식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이랑’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였다.

평가 기준	확인 ☑
③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썼다.	☐
⑥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썼다.	☐

04 ‘축하’에서는 ‘ㄱ’과 ‘ㅎ’이 기존에 있던 음운의 성질을 지닌 채 하나의 음운 ‘ㅋ’으로 축약되었다. 한편 ‘바쁘-’에 ‘-아서’가 결합한 ‘바빠서’에서는 ‘ㄷ’의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지는 탈락이 일어났다. 따라서 모음 ‘ㅏ’가 ‘ㅑ’와 결합하여 ‘ㅑ’가 덧붙었다는 ④는 잘못된 내용이다.

05 제시된 표는 자음 체계표이며, <보기>의 ㉠은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 ㉡은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은 앞 음절 ‘식’의 끝소리 ‘ㄱ’이 비음인 뒤 음절 첫소리 ‘ㅁ’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뀐 것이므로 뒤 음절의 첫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앞말 끝소리가 변화한 경우다. 한편 ㉡은 앞 음절 ‘돋’의 끝소리 ‘ㄷ’이 뒤 음절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뒤 음절 첫소리의 음운이 구개음인 ‘ㄷ’으로 바뀐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비음이 아닌 음운 ‘ㄱ’이 비음 ‘ㅇ’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② ㉠에서 원래 음운인 ‘ㄱ’의 조음 위치는 여린입천장이다. 비음화가 일어난 후의 음운인 ‘ㅇ’도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는 동일하다.

③ ㉡은 자음 ‘ㄷ’이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음운 변동이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④ ㉡에서 원래의 음운 ‘ㄷ’은 잇몸에서 소리 나는 파열음이다. 한편 바뀐 음운 ‘ㅌ’은 센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파찰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했다고 할 수 있다.

06 서술형 ‘날날이’는 첫음절의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면서 [날:나티]가 되었다(㉠). 이어 [날:나치]가 되는 과정(㉡)에서 받침 ‘ㅌ’이 뒤에 오는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이 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날:나치]로 되는 과정(㉢)에서 받침의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평가 기준	확인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히 썼다.	☐
각 단계에서 음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양상을 정확히 썼다.	☐

07 ‘치렀으니’는 ‘치르-+-었-+-으니’의 결합으로, 모음 ‘ㅡ’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맞춰’는 ‘맞추-+-어’의 결합이며, 이 과정에서 모음 ‘ㅜ’와 ‘ㅣ’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다. 즉 모음 축약이 일어났으며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권력[꺠력]’과 ‘편리[꺠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이 되었으므로 유음화가 나타났다.

② ‘뽕드레[뽕드러]’와 ‘속는다[송는다]’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이 되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③ ‘좁히고[조피고]’와 ‘옳지[올치]’는 예사소리가 ‘ㅎ’과 만나 거센소리가 되었으므로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났다.

⑤ ‘줄 사람[줄싸람]’과 ‘굳세대[굳세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났다.

08 ㉡은 ‘럽’의 받침 ‘ㅂ’의 영향을 받아 ‘다’의 첫소리 ‘ㄷ’이 ‘ㅌ’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존경스릅따고]로 발음된다. 음운이 교체될 때에는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내일(來日)’의 ‘내’는 본디 ‘래’로 쓰이는 글자이지만,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를 꺼리는 두음 법칙에 의해 ‘내’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② ‘깎는’의 받침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바뀐 후, ‘ㄱ’과 ‘ㄴ’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 [깁는]이 된다. 즉 ‘ㅍ’은 하나의 음운으로, ‘ㄱ’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③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뀐 후, ‘ㄷ’이 뒷말의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수탄]으로 발음된다.

④ ‘웃음도[우슴도]’는 받침의 ‘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로 연음된 것으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 음절에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본음 그대로 연음된다.

(2) 한글 맞춤법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① 145쪽 01 소리, 어법, 단어 02 ③ 03 ① 콧구멍, ㄴ 전 세방
- ② 147쪽 04 ④ 05 ③ 06 차V한V대를V사려면V돈이V 얼마나V필요할까?

0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리대로만 적으면 같은 단어인데도 표기가 그때그때 달라지거나, 다른 뜻을 지닌 두 단어의 표기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문장의 의미 파악이 쉽도록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참고 자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표음주의	맞춤법에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음
표의주의	맞춤법에서, 단어를 어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장.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음

02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썩-'와 같이 어간이 'ㄴ'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어울려 '내'가 된 경우에 이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③의 밑줄 친 말은 '썩-+-고'의 결합으로 어미 '-어'가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썩고'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한 순우리말 합성어로 'ㄴ'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 ②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인 '돌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④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가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인 '쓸다'의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 ⑤ '더듬이'는 용언 '더듬다'의 어간 '더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03 ㉠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04 '야단법석'이 [야단법쩍]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한자음 '녀'가 첫머리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남녀'로 적어야 한다.
- ② '룰'이 모음 뒤에 오고 있으므로 '내재룰'로 적어야 한다.
- ③, 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소리가 겹쳐 나므로 ' 짹짹', ' 똑똑똑'으로 적어야 한다.

05 '시작한 지'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지'는 의존 명사로,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
- ② '줄넘기'는 명사이다. '를'이 조사이기 때문에 명사인 '줄넘기'에 붙여 쓴 것이다.
- ④ 한글 맞춤법 총칙에 따르면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가 아닌 단어이다.
- ⑤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지만, 단위 명사가 아니다.

06 한글 맞춤법에서는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를 고려하여 '한'과 '대'를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48~151쪽

- 01 ④ 02 ② 03 ④ 04 ㉠은 한자어와 고유어(순우리말)의 결합인 반면, ㉡은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다. 또 ㉢은 '제30항-3'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5 ② 06 ②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4 ⑤ 15 ② 16 ⑤ 17 마니 → 많이, 해소될까 → 해소될까, 쓰는데 → 쓰는 데 18 ①

01 '괴로움'의 원형은 형용사 '괴롭다'이며, 어간 '괴롭-'에 접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이다. 만일 형태를 밝혀 적고자 한다면 원래의 모습인 '괴롭-'을 밝혀 적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가'의 발음은 [대:개]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 ② '밥만'은 [밥만]으로 발음된다. 이때 '밥'을 '밤'이라 적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밥'이라 표기하였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③ '주었지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주엄쩌만'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표기와 달라진다.
- ⑤ '차마'와 '참아'의 발음은 모두 [차마]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경우 두 단어의 표기는 같아진다.

02 '날날이'는 명사 '날날'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즉 '날날'은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이며, '날날이'도 명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 ③ '많이'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 ④ '익히'는 형용사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 ⑤ '바둑이'는 명사 '바둑'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다.

03 ④의 ‘햇볕[해볕/헐볕]’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여야 한다. ‘햇볕’은 ‘해+볕’의 결합으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귀뺨/귓뺨], [나루뺨/나룻뺨], [아래뺨/아랫뺨]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②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인똥], [아랜니], [터마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③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깁뉘], [탄:닐], [두렌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난다.
 ⑤ ‘훗날[훈:날]’은 ‘후(後)와+날’의, ‘제삿날[제:산날]’은 ‘제사(祭祀)+날’의, ‘툇마루[툇:마루/툇:마루]’는 ‘퇴(退)+마루’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쳐진 말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04 서술형 ㉠은 한자어 ‘수도(水道)’에 고유어 ‘물’이 결합되었고 [수도물]과 같이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만, ㉡는 한자어 ‘세(稅)’가 결합된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이며 제시된 규정의 3번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은 한자어와 고유어(순우리말)의 합성어, ㉡은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임을 썼다.	☐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못함을 썼다.	☐
㉡의 경우 제시된 규정의 3번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썼다.	☐

05 ‘돼지’는 하나의 명사로, ‘돼’와 ‘지’를 분리할 수 없으며 용언이 아니기에 어간도 없다. 따라서 어간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썩둑[썩둑]’은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으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까닭이 분명한 경우이다. 또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도 아니므로,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썩둑’이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풀이** ① ‘잔뜩[잔뜩]’은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③ ‘거꾸로[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④ ‘썩썩썩썩[썩썩썩썩]’은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다.
 ⑤ ‘납작하다[납작카다]’는 표준 발음법에 의해 된소리가 나는 것이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도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07 ‘용(龍)’은 본디 ‘룽’으로 읽지만, ‘용궁(龍宮)’이라는 단어의 첫머리에 왔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ㄹ’을 ‘ㅇ’으로 교체하여 ‘용궁’으로 적는다. 또한 ‘매년(每年)’의 년(年)은 단어 안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년’으로 적는다.

- 오답 풀이** ① ‘년세(年歲)’는 ‘연세’로 적어야 한다.
 ③ ‘년도(年度)’는 ‘연도’로 적어야 한다.
 ④ [제11항]의 [붙임 1]에 따라 ‘백분률(百分率)’에서 ‘률’이 ‘ㄴ’ 받침 뒤에 오므로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⑤ ‘남남북여(南男北女)’는 ‘남남북녀’로 적어야 한다.

08 ㉠은 부사 ‘안’이 ‘하면’을 수식하여 청소를 하는 동작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편 ㉡의 ‘안’은 단일어 ‘안되다’의 여러 의미 중 하나인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됐다’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자료] 부사 ‘안’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아니’의 준말
 예 • 안 벌고 안 쓰다. / •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 비가 안 온다. / •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

09 (가)~(다)에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은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사를 어떤 순서대로 붙여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를 보면 의존 명사가 자립성이 없어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가)를 보면 우리말에서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③ ‘송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송이’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④ (나)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써야 함이 언급되어 있다.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먹을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0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녀를 V알아 V주는 V사람은 V나밖에 V없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대문 밖에 누가 왔다.’처럼 명사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11 ③의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이다. (나)에서는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의존 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에는 서로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어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보다’와 ‘도’는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진 것으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② ‘에게’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 것이다.
 ④ ‘뿐’은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편 조사 ‘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 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마리’는 단위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2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별로 띄어 쓰지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서술형 ㉔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며, ㉕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와 ㉕의 품사를 정확하게 썼다.	☐
의존 명사는 앞말에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함을 밝혀서 썼다.	☐

14 한글 맞춤법에서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렬/률’의 경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적으며,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확’의 끝소리 ‘ㄱ’은 ‘ㄴ’이 아니므로 ‘확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① 어미 ‘-(으)ㄹ걸, -(으)ㄹ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전화할게’가 맞는 표기이다.

②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어야 하므로 ‘잘하더라’가 맞는 표기이다.

③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뚱뚱그려[뚱뚱그려]’는 한 단어 안에서 ‘뚱’의 받침 ‘ㅇ’ 뒤에 오는 자음 ‘ㄷ’이 된소리 ‘ㄸ’으로 소리 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④ 이 문장에서 ‘드러냈다’는 문맥상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앞말인 ‘들다’의 본뜻(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이 유지되므로 원형을 밝혀 ‘들어냈다’로 고쳐 써야 한다.

15 ‘우윳빔’은 한자어 ‘우유’와 고유어 ‘빔’이 결합되어, [우유빔] 또는 [우윳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우윳빔’으로 적어야 한다. ‘돼요’는 ‘되’ 뒤에 ‘-어’가 어울려 ‘돼’가 된 것으로 바른 표기이다.

16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이에 해당하는데, ‘절뚝’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또한 ‘-ㄴ데’는 어미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에 따라 ‘두 마리’로 띄어 써야 한다.

②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으므로 ‘뚝뚝뚝’이 바른 표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쓰지 않으므로 ‘곱슬곱슬’이 바른 표기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 ㉔ ‘밋밋한’의 ‘밋밋’은 [민민]으로 두 글자가 달리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밋밋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17 ‘마니’는 어간 ‘만-’에 접미사 ‘-이’를 붙여 부사가 된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만이’라고 적어야 한다. ‘해소될까’는 어간이 ‘해소되-’로, ‘ㄱ’ 뒤에 ‘-ㄹ까’가 붙은 형태이므로 ‘해소될까’로 적어야 한다. ‘쓰는데’의 ‘데’는 ‘일’이나 ‘것’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8 ㉔의 글쓴이는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며, 댓글을 달 수 있는 누리집에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52~153쪽

01 ㉕ **02**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따라 두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으로 될 적에, ㉔는 앞말 ‘들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고, ㉕는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03** ㉕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1 ‘바둑이’와 ‘날날이’는 각각 명사 ‘바둑’과 ‘날날’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와 부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제20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사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① ‘흠여지다’는 제15항 [붙임 1]의 예는 맞지만, 앞말 ‘흠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용언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 해당한다. ‘흠다’의 뜻은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이며, ‘흠여지다’의 뜻은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이다.

② ‘꼼꼼히’는 부사 ‘꼼꼼’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어간에 ‘-히’가 결합하지 않았기에 제19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이다.

③ ‘살림살이’에서 ‘-이’는 동사 ‘살다’의 어간 ‘살-’에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20항이 아닌 제19항의 규정이 적용된 예이다.

④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제19항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살살이’는 명사 ‘살’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제20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02 서술형 ㉔ ‘들어내다’는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라는 뜻으로, 앞말 ‘들다’가 가진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라는 본뜻이 유지되므로 원형을 밝혀 ‘들어냈다’로 써야 한다. 한편 ㉕ ‘드러내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들다’의 본뜻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드러냈다’로 표기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하는 조항을 정확히 찾아 썼다.	☐
㉔와 ㉕의 본뜻이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썼다.	☐

03 ㉕ ‘제사(祭事)+날’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하고, 앞 단어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제산날]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3단계가 아닌, 3-2단계를 만족하여 ‘제삿날’이라고 써야 한다.

04 고유어끼리의 합성어인 ‘부싯돌[부싯돌/부싯돌]’은 결합한 뒷말 ‘돌’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였다. ‘훗일[훗:닐]’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로 결합한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을 충족하였다.

- 오답 풀이** ① ‘핏대[피때/핀때]’와 ‘햇볕[해뻬/햐뻬]’은 ㉠을 충족한다.
 ② ‘예삿일[예:산닐]’은 ㉠을 충족하지만, ‘잇몸[인뭉]’은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한다.
 ④ ‘멧나물[멘나물]’은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하며, ‘콧병[코뻬/콩뻬]’은 ㉠을 충족한다.
 ⑤ ‘나룻배[나루뻬/나루뻬]’는 ㉠을 충족하지만, ‘뿔마루[뿔:마루/뿔:마루]’는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한다.

05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모음 ‘ㅛ’ 뒤에 ‘-었-’이 결합하면 ‘갸’이 된다. 질문의 경우 어간 ‘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갸-’이 되므로 ‘갸다’로 적어야 바른 표현이다.

[참고 자료]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를 말한다. ‘-시-’, ‘-읍-’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는-’, ‘-더-’, ‘-겠-’ 따위와 같이 시제와 관련된 것이 있다.

06 ‘오빠[오빠]’, ‘훗씬[훗씬]’, ‘엉뚱하다[엉뚱하다]’는 된소리로 발음될 뚜렷한 까닭이 없음에도, 다시 말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놓여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주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07 ⑥ ‘약속한대로’의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앞말인 ‘약속한’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의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③의 ‘뽀’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④의 ‘밖’의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명사 ‘밖’과 조사 ‘의’가 결합한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⑤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참고 자료] 의존 명사 ‘뽀’와 조사 ‘뽀’

- ① 의존 명사
 ‘1. ‘뽀’: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소문으로 들었을 뽀이네.
 ‘2. ‘(‘-다 뽀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예 시간만 보냈다 뽀이지 한 일은 없다.
 ② 조사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뽀이다

08 ㉠의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너만큼’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①의 ‘벌’과 ‘그루’는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③의 ‘같이’는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④의 ‘대’와 ‘땀’은 둘 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로, 앞말과 뒷말에 띄어 써야 한다.
 ⑤ ⑤의 ‘뽀’는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본문 154~156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② **02** ① **03** ③ [흔니불], ⑥ ‘이불’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04** ③ **05** ④ **06** ⑤
07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썬는다] **08** ⑤ **09** 선를 → 선을.
 ‘를’은 ‘ㄴ’ 받침 뒤에 오면 ‘을’로 적어야 하므로 ‘선을’로 적어야 한다. / 쌍용 → 쌍룡.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만 적용되므로 ‘쌍룡’으로 적어야 한다.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⑤

01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교체 현상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비음화, (다)는 구개음화로, 둘 다 교체에 속한다. 또한 (다)는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는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02 (나)는 비음화의 개념과 예, (다)는 구개음화의 개념과 예를 설명하고 있다. ‘권력’은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꺠력]으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03 서술형 우선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흔이불]이 된다. 이어서 ‘ㄴ’ 소리가 덧나서 [흔니불]로 발음된다. 그리고 이 ‘ㄴ’이 앞말 ‘ㄷ’에 영향을 주어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최종적으로 [흔니불]로 발음된다. 한편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여야 하는데,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홀이불’의 정확한 발음을 썼다.	☐
‘홀이불’이 구개음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썼다.	☐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썼다.	☐

04 ‘갑자기’는 [갑짜기]로 발음되어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많다’는 [만:타]로 발음되어 ‘ㅎ’과 ‘ㄷ’이 ‘ㅌ’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난다. 또한 ‘따라’는 ‘따르-’와 ‘-아’의 결합인데, ‘ㄷ’이 탈락하여 [따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먹을지[머글찌] -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을지’에서 ‘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칼국수[칼국쑤]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좋은[조은] - 자음 ‘ㅎ’이 탈락되었다.
 • 메워서 - ‘메우-+-어서’에서 모음 ‘ㅜ’와 ‘ㅑ’가 ‘ㅟ’로 축약되었다.
 • 건너서 - ‘건너-+-어서’에서 중복되는 모음 ‘ㅑ’가 탈락되었다.

05 ㉠ ‘갈증(渴症)[갈쑹]’은 한자어 ‘ㄹ’ 받침 뒤에 연결된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다)의 예에 해당한다. ㉡ ‘절도(節度)[절도]’ 역시 한자어 ‘ㄹ’ 받침 뒤에 연결된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다)에 해당한다. ㉢ ‘입술[입쑤]’은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된 경우로 (가)에 해당한다. ㉣ ‘더듬고[더듬꼬]’는 어간 ‘더듬-’의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며, ㉤ ‘껴안다[껴안파]’ 역시 어간 ‘껴안-’의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나)에 해당한다.

06 (가)의 ‘웃 한 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오향발]로 바뀐 후,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오향발]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 이후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나)는 ‘쓰-’와 ‘-어서’가 합쳐져 ‘ㄷ’이 탈락하였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즉 (가)와 (나)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예사소리가 ‘ㅎ’과 만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거센소리되기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다.
 ② 축약 현상은 두 음운이 가지고 있던 소리의 성질이 축약된 음운에 모두 남아 있다.
 ③, ④ ‘쓰-+-어서’는 ‘써서’로 발음되며 ‘쓰-’의 ‘ㄷ’이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된다.

07 ‘썬는다’가 ‘썬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ㅅ, ㅆ, ㅈ, ㅊ, ㅌ, ㅎ’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다. 한편 ‘썬는다’에서 ‘썬’의 끝소리 ‘ㄷ’은 연결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썬는다]로 발음된다.

08 ‘납작하게’는 한글 맞춤법 제5항의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납작하게’라고 적어야 한다.

09 서술형 한글 맞춤법 제10항과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나, 그 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의 경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울’로 적고, ‘ㄴ’이 아닌 받침 뒤에서는 ‘렬/률’로 적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쳤다.	☐
‘선물’에 해당하는 두음 법칙의 규정을 썼다.	☐
‘쌍용’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썼다.	☐

10 ㉢ ‘공짜[공짜]’는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이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므로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풀이** ① ㉠ ‘고기집[고기집/고기집]’은 ‘고기’+‘집’으로 고유어끼리의 결합이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고기집’이라 적어야 한다.
 ② ㉢ ‘공사중입니다’에서 ‘중’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공사 중입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한편 ‘입니다’의 원형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④ ㉣ ‘떡볶기’는 동사 어간 ‘볶-’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형태이므로 원형을 밝혀 ‘떡볶이’로 써야 한다.
 ⑤ ‘남여노소’에서 ‘녀(女)’는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남녀노소’가 맞는 표현이다.

11 ‘만큼’과 ‘뿐’은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2 ‘발’과 ‘이랑’이 결합하면 ‘발’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이 되고, 이 ‘발이랑’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니랑]이 된다. 여기서 ‘ㄷ’이 뒤에 오는 ‘ㄴ’을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즉 ‘발이랑[반니랑]’의 발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며 앞말 ‘발’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이’와 ‘몸’은 모두 순우리말이며, 결합했을 때 [인몸]으로 발음되므로 ‘ㄴ’이 덧붙는다.
 ③ ‘꼭지’는 순우리말, ‘점(點)’은 한자어이며, 결합했을 때 [꼭찌점] 또는 [꼭찐점]으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④ ‘전세(傳貰)’와 ‘방(房)’은 둘다 한자어이므로 ‘전세방’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⑤ ‘초가(草家)’와 ‘집’이 결합했을 때 [초가집]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쓰기 위한 뒷말의 첫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3 ㉢ ‘같이’는 앞말의 받침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서 구개음인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만 일어나고 있다.

14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16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❷ 163쪽	06 ②	07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08 ③	09 ②	
❸ 165쪽	10 ⑤	11 ⑤	12 ③	13 ⑤	

01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 방법은 ‘읽기 중’ 과정의 활동으로 적합하다.

02 첫 문단에서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함으로써 독자들을 글에 집중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03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을 등장시킨 것은 공의 패스에 집중하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이, 집중하던 대상이 아닌 고릴라를 인지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1’의 ②를 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실험의 목적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운데 1’의 ①을 보면, 실험자들은 농구공 패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후 이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운데 1’의 ②에서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⑤ ‘가운데 1’의 ②를 보면, 일부 실험 참가자는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4 글쓴이는 글의 ‘처음’에서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을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

05 ‘처음’의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보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며 도리어 실험자들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06 다른 친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글을 ‘읽은 후’의 과정에서 하기에 적절한 활동이다.

07 ‘가운데 1’의 ③에서 ‘무주의 맹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무주의 맹시’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08 시각 피질은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과 V2,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등의 영역이 조합되어 사물을 인지한다. 따라서 V4 영역에 이상이 있으면 색을 감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09 ㉠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 고릴라’는 평소에도 늘 존재했으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대상을 비유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10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⑤ ‘자신의 생각과 글쓴이의 주장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글을 능동적, 비판적으로 읽을 때 어울리는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정보에 대해 찾아보며 읽기, 정보가 정확하지 판단하며 읽기,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긋거나 적어 두며 읽기, 스스로 묻고 답하며 읽기 등은 모두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가운데 2’의 ⑤에 따르면, 뇌는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각 정보의 심층적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정보에 집중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각 정보는 너무 많고 뇌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뇌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의 ⑤에서 우리의 뇌는 색의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2’의 ⑥에 따르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편식하는 것은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③ ‘가운데 2’의 ⑤에서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운데 2’의 ⑤에서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12 ‘가운데 2’의 ⑥의 사례를 참고하면, 판단을 피우는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재미있는 말로 발표를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의 ⑥에 따르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선택적

으로 수용할 것이므로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모든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운데 2'의 ㉠에서는 십 대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일 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뇌의 한계 때문일 수 있으나, '가운데 2'의 ㉡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집중만 한다면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실현한 날 행복한 연인들이 자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실현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대비되는 행복한 연인들을 계속 인지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3 ㉠은 '우리의 뇌는 집중한 정보만 처리하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6~167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유
추(유비추리), ㉠-시각 피질의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
율되어야 세상을 볼 수 있음

01 (가)를 통해 사람들은 오감 중에서 시각으로 습득하는 정보
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첫 번째 메모는 제목의 의미를 추론해 보는 활동이고(㉠),
두 번째 메모는 글을 훑어보며 본문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
이다(㉢), 세 번째 메모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서적이거나 인터넷
을 활용하며 책을 읽는 활동이며(㉤), 네 번째 메모는 스스로 질
문하고 답하며 읽는 활동이다(㉡).

03 ㉠, ㉡, ㉢, ㉤은 모두 항상 존재했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
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인 ㉡과는 반대의 대상이다.

04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도를
그려 가며 중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과학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
기 위해 글쓰기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읽기 방법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설명문의 구조나 설명문
에 사용되는 설명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05 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듯이 자신이 집중
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정보만 처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뇌가
주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는 이 글에 나
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를 보면 아이들이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무의식적으
로 집중하지 않는 정보를 흘려버리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하
였다.

② (가)에서 시각 피질의 V1~V5 영역의 각 영역별 역할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시각 피질에서 30여 개의 영역들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사물을 인지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편전을 피우는 아이는 일단 관심을 보일 만한 달콤한 말로 시
작해서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06 서술형 (나)에서 시각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개의 영역
들이 조합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동시에 정확하
게 연주되어야 음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
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을 '유비추리' 또는
'유추'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 무엇인지 썼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썼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68~169쪽

01 ⑤ 02 ③ 03 ③ 04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05 ② 06 ③ 07 ③

01 본문에 나온 쥐의 예는, 우리의 뇌가 집중했을 때 쥐의 꼬
리만 보고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려 낼 수 있다는
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뇌는 벽에 가려진 꼬리
만 보고도 쥐 자체에 집중한 것으로, 꼬리만 선택하고 몸통은 무
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각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다는 점이 나타난다.

② (라)의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 따르면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시각 피질로 보내는 것은
망막의 시각 세포이다.

④ (마)에 따르면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은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가
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을 소개하고 있으며(㉠), 「무주의 맹시」
가 일어나는, 독자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상황을 예
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3 '나'는 평소 A 빵집만 다녔기에 다른 빵집에는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아 B 빵집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나 B 빵집은 항상 존재
했던 것으로 이제야 '나'의 필요에 의해 인지된 대상이다.

- 오답 풀이** ① A 뽕집은 평소에 '나'가 즐겨 다니던 곳이므로, A 뽕집이 평소에도 존재하였고 '나'가 인지하고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 ② B 뽕집은 늘 존재하였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이므로 (나)의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알아채지 못한 '고릴라'와 같은 대상이다.
- ④, ⑤ '무주의 맹시'가 청각에 일어난 경우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그 친구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뽕에 집중하느라 다른 감각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주의 맹시'의 경우에 해당한다.

04 서술형 실험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증명하였다. 즉, (가)에서 제기한 의문인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었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음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감탄고토(甘呑苦吐)'이다.

- 오답 풀이** ① 지록위마(指鹿爲馬) -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 ③ 암중모색(暗中摸索) -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 ④ 건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 ⑤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깨나 잊지 못함

06 ㉠의 앞 문장인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와 ㉡이 '그러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이 ㉢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07 〈보기〉는 동피랑 마을을 다녀온 작가의 기행문이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읽을 때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글 안에서 확인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찾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보기〉의 제재 개관

갈래	기행문
성격	묘사적, 사색적
제재	통영 동피랑 마을
주제	통영 동피랑 마을의 아름다움
특징	한 마을의 역사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제시함

(2) 조선의 얼, 광화문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01 ④	02 ②	03 ③	04 조선 총독부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광화문이 그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그러한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① 173쪽			
② 175쪽	05 ④	06 ⑤	07 광화문
			08 ⑤
③ 177쪽	09 ②	10 ㉠ 국립 중앙 박물관, ㉡ 경복궁 재건, ㉢ 2006년	

01 '가운데-②'에서 인용된 기사에 일제가 경복궁의 전각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은 나타나지만, 그 전각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처음-①'에 따르면, 광화문의 본래 이름은 '오문'이었다.
- ② '처음-①'에 따르면, 광화문이 결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③ '처음-②'에 따르면,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이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의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운데-①'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광화문은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문이다. 세종 때에 집현전 학사들이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03 '처음-②'의 내용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세운 이유는 조선을 일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건축물인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이러한 상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광화문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리는 것의 의미를 썼다.	☐
조선 총독부 건물이 상징하는 바를 썼다.	☐

05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1921년 5월 『동아일보』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한 것(㉠), 1925년 10월 26일 『조선일보』가 「나는 가나이다」를 게재한 것(㉡), 1926년 7월 22일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가운데-①'을 보면 『동아일보』가 「헐려 짓는 광화문」을 게재한 것은 기사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를 내보내기 '며칠 앞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의 순서는 ㉠ → ㉢이 되어야 한다.

06 문화부 기자인 설의식이 지은 「헐려 짓는 광화문」은 1926년 『동아일보』에 실린 고별사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글이지,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한 글이 아니다.

07 ‘가운데-⑥’의 내용을 보면, 「나는 가나이다」가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경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의 ‘나’는 ‘광화문’을 가리킨다.

08 ‘가운데-⑥’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이 바랜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광화문이 원래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성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09 ‘끝-②’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며,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이자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②이다.

10 ‘끝-①’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 청사로 사용하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86년에 보수하여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95년에는 경복궁의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 비로소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78~179쪽

- 01** ② **02**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려 하였다. **03** ③ **04** ② **05** ①
06 ④ **07** 비유법, 광화문의 이전이 민족혼과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별사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다는 의미이다.

01 이 글은 (나)에서 당대에 발간되었던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02 **서술형** 일본은 조선의 신을 모시던 남산의 국사당을 없애고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으며,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우고 광화문을 비틀어 일본의 신을 모시는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우고 국사당이 있던 곳에 일본의 신사를 세운 공통적인 이유를 썼다.	☐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조선 총독부 청사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광화문이 그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그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광화문을 없애려 하였을 것이다.

04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광화문은 철거 뒤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의 옆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가)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광화문을 철거하려는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나), (다)에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나는 가나이다」, 「헐려 짓는 광화문」의 고별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광화문 앞의 해태 석상은 1923년 철거되었음을, (나)에서 광화문은 1926년에 철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 1921년 5월 『동아일보』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5 당시에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태 석상의 철거는 막지 못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이를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 때문에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지식인들이 광화문 철거라는 사회적 문제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민중들은 그 기사를 읽고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이들 간에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동아일보』는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최초로 폭로하였는데, 이는 사회 문제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려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시도라 할 수 있다.

⑤ 고별사의 글쓴이들은 자신들의 글이 조선 백성의 슬픔과 분노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일제에 저항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06 ‘석공’과 ‘역군’은 광화문의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고, 연장으로 광화문의 허리를 들추는 존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광화문을 만든 사람이 아닌, 광화문을 철거하는 인부들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뚝뚝’, ‘우지끈’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광화문을 ‘그’, ‘너’라고 칭하며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다.

③ 철거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는 달리, 조선 백성들은 광화문의 철거를 두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을 대조하고 있다.

⑤ ‘울어도 보고 설워도 할’, ‘가슴 아파하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화문 철거를 보는 조선 백성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서술형** ‘붓으로써’라는 말은 ‘글로써’라는 의미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은 설의식이 일제가 광화문을 옮기고자 한 것이 민족 혼을 말살하려는 의도임을 고별사를 통해 폭로하여, 민족적 관심을

고취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비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썼다.	☐
고별사를 씀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다는 ㉠의 의미를 썼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80~181쪽

01 ㉢ 02 ㉤ 03 조선의 역사와 민족을 상징하는 광화문의 복원은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우리 민족의 정기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04 ㉢ 05 ㉤ 06 ㉤

01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밝히며 광화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말하고 있다.

02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인쇄 매체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글을 읽고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저항하려는 관점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②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읽는 시점에 따라 독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그 반응도 다를 수 있지만,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 자체가 시간의 제약 받는 것은 아니다.

③ 고별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광화문 철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④ 광화문 철거 반대 운동이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이 취소될 정도로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은, 기사의 독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여 강력한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서술형**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화문을 철거하는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광화문을 세우는 것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마)의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라는 부분에도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
광화문의 상징적 의미를 썼다.	☐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썼다.	☐

04 (다)는 설의식이 쓴 「혈려 짓는 광화문」의 일부이다. '우지 끈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 저려 할 것을 내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뽀아 지은 광화문아!', '우리의 광화문아!' 등에서 영탄법을 사용해 조선 백성들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광화문을 '너'라고 지칭하며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광화문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드러내었다(ㄷ).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아!'라는 부분에서 광화문을 만드는 데에 들인 정성과 우리 민족이 광화문에 대해 가지는 절절한 심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ㄷ).

【참고 자료】 설의식, 「혈려 짓는 광화문」

갈래	신문 사설, 중수필	성격	민족적, 저항적
제재	일제의 광화문 훼손		
주제	일제의 광화문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		
특징	• 광화문을 의인화하여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함 • 반복법, 열거법을 통해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강조함		

05 ㉠~㉤은 일본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우리 정부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음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 청사로 사용한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운 이유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근정전을 일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로 가림으로써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② 단군을 비롯해 우리 민족의 신을 모시던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한 것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다.

③, ④ ㉢의 광화문 앞을 지키던 해태 석상 두 점을 철거한 것은 광화문을 철거하여 새 자리로 이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은 광화문을 철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화문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 정기를 상징하므로 ㉢, ㉤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며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6 ㉢를 읽고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일어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의 독자가 글을 읽은 뒤 새로운 글을 생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보기>의 독자는 댓글을 달며, 카드 뉴스 읽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 특히 신문이나 카드 뉴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그 내용을 신뢰하는 매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게끔 한다.

②, ③ ㉤를 통해서 조선 백성들이 당대 사회의 문제였던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하게 되었고,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보기>는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를 다룬 카드 뉴스인데,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댓글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났다.

④ ㉢ 기사는 인쇄 매체인 신문을, <보기>의 카드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다.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18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③
	05 ㄱ, ㄴ	06 ③	07 ⑤	08 ⑤
② 187쪽	09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음			

01 협상은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인 담화는 '토론'이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상우'와 '구 공무원'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질문을 하여 협상의 안전을 명확히 만드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03 구청 강당을 빌리려는 이유를 묻는 '구 공무원'의 질문에 '상우'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는 점을 들어 답하고 있다.

04 ㉠은 사진 전시회에 공공성이 있어야 강당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구 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전시회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발언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진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협상의 안전이다.
 ② ㉠은 구청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 강당을 대여해 주지 않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④ '상우'는 '구 공무원'에게서 사진 전시회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에서 전시회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있다.
 ⑤ 사진 전시회가 공공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우'와 '구 공무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05 ㉠에 이어지는 '구 공무원'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다음 주에 구청 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ㄱ), 구의 강당 운영 규칙상 한 단체에게는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ㄴ) '상우'의 요구에 부정적으로 답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청소년과 성인의 강당 대여 일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이 담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ㄷ. '조정 단계'에서 '구 공무원'의 마지막 발화 중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라는 말을 통해 사진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 같이 말한 이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06 '구 공무원'은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은 상우네 동아리를 위해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대여해 준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3일 동안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07 협상 결과, 상우네 동아리는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당을 빌려 3일간 전시회를 하기로 하였고, 구청 측에서 주민들에게 전시회를 홍보해 주기로 하였다. 상우네 동아리가 구청의 어린이 재단 후원 사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08 협상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이루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09 협상에서 참여자 양측의 이익은 상호 의존적이다. '상우'와 '구 공무원'은 협상의 결과 둘 다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상우'는 구청 강당을 빌려 동아리의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구 측은 구가 주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88~189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다음 주에는 구청 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 강당 운영 원칙상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고, 한 단체에게는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④

01 협상은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로 전개되는데, 조정 단계에서는 주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기,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기 등의 전략이 사용된다. ④와 같이 상대방 의견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토론'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02 (가)에서 '상우'는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진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 빌리기'가 협상의 안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03 '구 공무원'은 처음에 구청의 강당 대여 원칙을 제시하며 '상우'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를 들은 뒤 강당 이용 시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대여 기간을 3일로 늘려주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범위를 재차 밝힌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상우'는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 '상우'는 다음다음 주로 날짜를 옮기는 것이 어떠한지 '구 공무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구 차원에서 전시회를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가)에서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에서 전시회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상우'의 제안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또 (나)에서 '구 공무원'은 전시회 홍보를 해 달라는 '상우'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⑤ '구 공무원'은 최대 2일간 대여되는 구청의 강당 대여 규정을 완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04 '구 공무원'은 전시회 기간이 짧아져서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상우네 동아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시회를 홍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상우네 동아리는 주민들 강연회가 잡혀 있는 다음 주를 피해서 전시회를 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오답 풀이 다. (나)의 첫 발화로 볼 때, 전시회의 공공성 확보 문제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라. '구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전시회 홍보를 하는 것만 수락하였으므로 일정 인원 이상의 관람객을 확보해 줄 필요는 없다.

05 서술형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 한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구 공무원'이 '상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썼다.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유를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6 ㉠는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신문에 과일이나 글, 기사 따위를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⑤의 '올리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 인사, 절 따위를 하거나 물건 따위를 건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서류 따위를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협상이 성립하려면 첫째,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협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상 참여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야 한다. 셋째, 협상 참여자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상호 협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토의에 어울리는 상황이다.

②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설득해야 하는 토론에 어울리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토의, 토론, 협상의 차이점

	토의	토론	협상
관계	상호 협조적	상호 경쟁적	상호 의존적
목적	정보 교환과 합의	주장과 설득	갈등 조정과 합의
평가준거	해결 방안 모색	논증과 태도 변화	상호 이해득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90~191쪽

01 ③ **02** ③ **03**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아리 누리집에서 모금한 돈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할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⑤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자신의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은 '토론'에 해당하는 말하기이다(ㄱ). 또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ㄹ).

02 상우네 동아리는 동아리 누리집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것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려고 하며, 이 활동을 통해 전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청의 주도로 후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상우네 동아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강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② '상우'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라고 전시회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④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 공무원'은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⑤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에서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전시회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상우'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전시회가 구청에서 강조한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다는 근거를 썼다.	☐
동아리 누리집을 통한 모금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고자 한다는 근거를 썼다.	☐

04 ‘구 공무원’과 ‘상우’가 만족스러운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청 측이 구청의 강당 대여 원칙을 완화하여 상우네 동아리가 3일 동안 전사회를 열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 공무원’이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다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어느 한쪽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었을 것이다.

05 ‘구 공무원’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구청 강당을 빌려줄 수 없는 이유나,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강당을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밝힘으로써 상대를 이해시키고 있다.

06 <보기>에서는 ‘먼저 자신이 양보를 한 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㉔에서는 ‘상우’가 먼저 자신이 양보하여 ‘날짜를 바꾸는 것’을 수락한 후, 상대방에게 ‘전사회 홍보’라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제안하였다.

본문 192~194쪽

대단원 정리 문제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무주의 맹시
06 ② 07 ⑤ 08 ② 09 ② 10 ③

01 (가), (나)와 (다), (라)는 모두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글이다.

02 (가)에서는 일상 속에서 ‘무주의 맹시’를 경험하는 예를, (나)에서는 뇌가 선택과 집중, 무시와 융통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예를 각각 들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 뇌의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은 광화문 철거 계획이다. 이 글에는 일제가 경복궁의 철거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광화문 앞 양측’에 ‘수문장 노릇을 하던 해태 석상 두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이라는 부분에서 광화문이 원래 목조 건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두 번째 문단 ‘설의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의미입니다.’라는 구절에서 ‘설의식’이 광화문 철거를 반대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를 보면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광화문 철거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 광화문의 철거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04 (라)를 보면 글쓴이는 광화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숨결, 혼이므로 광화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정기

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와 의견이 유사한 것은 ⑤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라)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광화문을 건축물로만 보는 관점은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다.

②, ③ 글쓴이는 광화문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며, 바르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다.

05 ㉔과 같이 뇌가 집중하지 않은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에서 ‘무주의 맹시’라고 칭하고 있다.

06 ⑥는 ‘고릴라’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릴라’, 실연한 날 보이는 ‘행복한 연인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난 날 보이는 ‘나이 든 어른들’은 평소에 없었던 대상이 아니라 모두 평소에도 존재하였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들이다.

07 (다)에서 「나는 가나이다」는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의 슬픈 심정을 광화문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글이라고 하였다. <보기> 역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의 슬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광화문을 ‘너’로 표현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한편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은 표현되어 있으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드러나 있지 않다.

08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며,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한다.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가)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 해당하며, (나)는 협상의 해결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다.

09 ㉔에서 ‘상우’는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만 전사회를 진행해야 하기에 2일로는 전사회 기간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사회 기간에 대해서 양보를 받고 싶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 공무원’은 ㉔에서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를 고려하여 전사회 날짜를 다음다음 주로 바꾼다면 강당 사용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도록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 반언어적 표현 : 어조, 장단, 강약 등의 표현 방식을 이룸
 - 비언어적 표현 : 몸짓, 표정, 눈빛 등의 표현 방식을 이룸
- 이와 같은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199쪽	01 ⑤	02 ⑤	03 ①
❷ 201쪽	04 ④	05 ③	06 ②
❸ 203쪽	07 ③	08 ⑤	09 Insert(인서트)
❹ 205쪽	10 ④	11 ②	
❺ 207쪽	12 ③	13 ②	14 ②
❻ 209쪽	15 ③	16 ②	17 ① 18 ④
❼ 211쪽	19 ⑤	20 ①	21 ③

0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서술자가 등장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장면 표시(Scene Number)는 장면의 극중 순서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번호로, 'S#'으로 나타낸다.
 ② 시나리오는 영화 촬영을 전제로 하여 창작되며, 장면의 차례, 인물의 대사 및 동작, 배경 등을 지시한다.
 ③ 시나리오에서는 현재형 진술로 사건이 전개된다.
 ④ 시나리오에서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등을 지시하는 글인 지시문을 사용한다.

02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자라 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아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여학생 3'은 스마트폰으로 '아름'의 정보를 검색하기는 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대수'에게 인사만 하였을 뿐 '대수'와 '아름'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부인'은 택시에서 '아름'을 본 뒤 반가움을 드러내었다.
 ② '여자'는 통화를 하다가 뒤늦게 '아름'을 발견하고는 '깽!' 하며 비명을 지르고 짜증을 내며 혐오감을 드러내었다.
 ③ '여학생 1'은 제일 먼저 '아름'을 알아보고 '여학생 2'에게 속닥거렸다.
 ④ '여학생 2'는 '아름'을 보고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03 '아름'은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며 평범한 삶을 사는 또래들에게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기대, 아쉬움, 불만, 걱정 등은 [A]의 상황에서 느낄 만한 심리와 거리가 멀다.

04 시나리오는 희곡처럼 한정된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을 나타내는 세트나 실제 야외에서 촬영하여 영화로 상영된다.

05 '아름'과 '미라', '대수'는 한강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미라'에 대한 지시문을 비롯하여 '미라'의 행동과 대사로 미루어 볼 때, '미라'가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수'와 '아름'도 맥주를 사러 같이 간 것이지, '미라'를 위해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대수'와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과 한강 둔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등 가족과 함께할 때 편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아름'과 '아름'의 부모인 '대수', '미라'는 밤에 한강 둔치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④ '대수'는 "내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며, '아름'의 병에 대해서도 가볍게 농담하며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⑤ '미라'와 '대수'는 서로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아들인 '아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대수'와 '미라'는 아들인 '아름'이 조로증에 걸려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특별하게 의식하며 괴로워하거나 과보호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7 이 글의 '불량한 학생들'은 조로증 때문에 또래의 아이들보다 늙어 있는 '아름'의 다른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이한 동물처럼 대하며 '아름'을 괴롭히고 있다.

08 이 글은 조로증을 앓고 있어 또래와는 다른 외모를 지니게 된 '아름'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아름'에 대한 진심이나 배려보다는 편견과 호기심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통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 '아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09 이 글에서는 '아름'이 '불량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 사이에 '아름'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대수'의 모습이 'Insert(인서트)'로 삽입되고 있다.

10 S# 16에서 '아름'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엄마인 '미라'에게 빨리 가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것은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여 병색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또래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다.

11 S# 15에서 '미라'가 '아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은 '아름'이 자신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아름'과 '주치의'의 갈등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치의'는 '아름'의 병세가 악화될 것을 이야기하며 '미라'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주치의'가 '아름'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미라'는 '아름'의 병세가 걱정되고 '아름'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질 뿐,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④ S# 16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름'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보고 있다.

⑤ "나, 열일곱 살에 애 낳은 여자야."라는 말을 '아름'이 따라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미라'가 평소 애 자주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으며, 갈등을 겪던 '미라'와 '아름'은 이 말을 통해 웃음을 되찾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12 '아름'과 '서하'에 대한 설명은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나타난다. '아름'과 '서하'는 '서하'가 먼저 전자 우편을 보내고, '아름'이 이에 답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아름'은 처음에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입원을 한 후 용기를 내어 '서하'에게 전자 우편을 쓴 것이므로, '아름'이 즉시 답장을 보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름'은 자신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하'라는 소녀에게서 전자 우편을 받고, '서하'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설렘을 느끼고 있다.

④ '아름'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하'라는 소녀가 먼저 '아름'에게 전자 우편을 보낸 것이다.

⑤ '아름'에게 전자 우편을 보낸 '서하'라는 소녀는 '아름'과 같은 나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아름'과 처지가 비슷하다.

13 '장 씨'는 평소보다 멋을 낸 옷차림으로 촬영장에 나타나고, '아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장 씨'를 쫓아 우쭐해한다. 이를 통해 천진하고 꾸밈없는 '장 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4 이 글의 '미라', '장 씨', '송찬', '서하'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을 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자라 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②와 같이 대상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일치한다면 모두 비슷한 태도로 '아름'을 대했을 것이다.

15 '아름'과 '장 씨'는 늙어 가는 것에 대하여 서로 마음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로, 나이 차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다. '장 씨'는 방송 인터뷰를 처음 해 보고 쉬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방송을 통해 '아름'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다. '장 씨'와 '아름'은 원래 이웃 사이로 알고 지냈다.

16 전자 우편함에 새 편지가 0통임을 확인하는 '아름'의 모습이 반복되다가 'Cut to(컷 투)'를 통해 전자 우편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ut to(컷 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몽타주(montage)', ③은 '큐(cue)', ④는 '인서트(insert)', ⑤는 '이미지(image)'에 대한 설명이다.

17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아름'의 전자 우편에 대한 답장으로 '서하'는 자신의 손을 찍은 사진을 보낸다. 지시문에서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 그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서하'는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손을 찍은 사진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에서 '아름'은 '서하'의 답장을 기다리느라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전전반측(轉轉反側)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다.

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19 '아름'은 상상 속에서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서하'와 함께 오솔길을 걷고 있다. '서하'는 '아름'과 마주 보고 미소 지으며 '아름'에게 언제 살고 싶어지냐고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하'의 모습에서 '서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떠올릴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상상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하'와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② 상상 속에서 '아름'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하'를 만나는 이유는 '아름'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평범한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③ '아름'은 현실에서 노인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상상 속에서는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④ S# 50의 첫 부분에,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아름'의 현실)이 실제로 맞잡은 손('아름'의 상상)이 되고 있다. 현실과 상상이 연결되는 장면이다.

20 '아름'이 언급한 순간들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아이들이 웃고, 엄마와 함께 빨래를 하는 등,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평화롭고 평범한 순간들이다.

21 이 시나리오의 작가는 장애를 가진 소년인 '아름'과 '아름'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독자는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의 면면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읽는다고 해서 독자가 시나리오 속 인물들의 삶을 모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12~215쪽

- | | | | | | |
|------|------|------|------|------|------|
| 01 ③ | 02 ⑤ | 03 ⑤ | 04 ① | 05 ④ | 06 앞 |
|------|------|------|------|------|------|
- 의 장면에서는 여학생들이 택시 안에 있지만, 뒤의 장면에서는 여학생들이 학원가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즉 이 글에서 'Cut to(컷 투)'는 택시 안에서의 시간 경과를 보여 준다.
- | | | |
|------|------|------|
| 07 ④ | 08 ④ | 09 ④ |
| 10 ⑤ | 11 ② | 12 ② |
| 13 ③ | 14 ① | |

0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음악성을 얻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갈등의

문학으로 음악성을 갖추어야 하는 갈래가 아니다.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얻는 것은 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라)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모자를 벗기고 등성등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고 있으며,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혹시 옮는 병 아냐?”라고 하며 혐오감을 더욱 표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대수’와 ‘미라’는 서로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아들인 ‘아름’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다.
 ② (가)와 (나)에서 ‘대수’가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아들인 ‘아름’과 함께 택시를 타고 다니며 손님들을 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여자’는 ‘아름’을 보자 혐오감을 표출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④ ‘여학생들’은 ‘아름’을 보고 인증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는 ‘아름’과의 만남을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03 이 글에서는 장애가 있는 소년인 ‘아름’을 대하는 ‘여자’, ‘여학생들’, ‘불량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아름’의 부모인 ‘대수’와 ‘미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04 (다)에서 ‘아름’은 ‘대수’, ‘미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름’은 자신이 비록 병에 걸려 아프기는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다.

05 (라)의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에게 심한 언행을 하며 ‘아름’을 괴롭히고 있다. 이는 ‘아름’의 노인 같은 외모를 조롱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아름’이 아니라 ‘불량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라)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외모를 보고 ‘할배, 외계인’ 등이라고 놀리며 ‘아름’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③ ‘불량한 학생들’의 행동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한 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⑤ ‘불량한 학생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혼자인 ‘아름’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06 **서술형** ‘Cut to(컷 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나)에서 ‘여학생들’은 택시 안에서 ‘아름’과 인증 사진을 찍고, ‘Cut to(컷 투)’를 통해 시간이 경과한 뒤 택시가 학원가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택시에 타고 있던 여학생들이 시간 경과 후 학원가 앞에서 내렸다는 내용을 썼다.	☐
이 글에서 ‘Cut to(컷 투)’가 택시 안에서의 시간 경과를 보여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7 (라)의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외모를 놀림거리로 삼으며 ‘아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므로, ‘불량한 여학생 2’가 ㉞에서 주위를 의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이 글에서 ‘아름’은 조로병에 걸려 80세 노인의 외모를 지닌 환자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는 개인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의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⑤ ‘아름’은 사회적 약자로 장애를 가진 소년이다. 이 글은 이런 ‘아름’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고민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끔 한다.
 ② ‘아름’을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대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아름’을 비롯하여 ‘아름’의 엄마인 ‘미라’, ‘아름’의 친구가 되어 주는 ‘장씨’, 전자 우편을 주고받는 ‘서하’ 등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09 (나)의 내용에 따르면, ‘아름’과 ‘서하’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아름’을 보고 ‘서하’가 먼저 전자 우편을 보낸 후 ‘아름’이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따라서 ‘서하’는 처음부터 ‘아름’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

10 (가)에서 ‘미라’는 ‘막내 외삼촌’의 사례를 들어 ‘아름’을 설득한 뒤, ‘아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걷고 있다. ‘아름’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나, ‘아름’을 강압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가벼운 수술을 했던 ‘막내 외삼촌’의 상황과 비교하며, 이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많이 넘긴 ‘아름’을 칭찬하고 있다.
 ② ‘미라’는 ‘아름’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미라’는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라고 하며 ‘아름’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④ ‘아름’에게 친숙한 ‘막내 외삼촌’의 사례를 제시하고, ‘아름’은 이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하며 상황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11 (라)에서 ‘아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전자 우편함을 계속 확인하는데, 이를 통해 ‘아름’이 ‘서하’에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낸 뒤의 일로, 어렵게 사귀는 친구인 ‘서하’와 멀어지거나 이대로 계속해서 연락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의 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2 ‘서하’는 사진을 보내 달라는 ‘아름’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손 사진을 보낸다. 이를 통해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름’은 비록 ‘서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를 서운해하기보다는 ‘서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라)에서 ‘서하’의 답장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서하’의 손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④ '아름'은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서하'의 손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공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서로 맞잡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과 소녀의 손이 (마)의 '아름'이 상상하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다.

13 ㉠을 통해 이 장면이 시나리오(작품의 갈래)의 49번째 장면(장면의 순서)이며, '아름이의 병실'이라는 공간(공간적 배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시간적 배경)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동작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아름'은 현실에서는 노인의 외모를 지닌 아픈 모습이지만, 상상 속에서는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름'이 나이에 맞는 신체로 살고 싶은 소망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16~217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1 작가는 자신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독자는 이를 읽으며 작가가 전달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작가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글을 읽음과 동시에 작품의 주제가 독자의 삶과 독자가 속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두근두근 내 인생」의 뒷이야기

'승찬'이 알아보니, '서하'는 작가 지망생이 꾸며 낸 인물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름'은 몹시 상심해서 게임에만 빠지는 등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대수'는 작가 지망생을 만나 때려 주려다 결국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된다. 병세가 악화된 '아름'은 시력마저 잃게 되고, '대수'는 그런 '아름'에게 '서하'가 보낸 전자 우편인 것처럼 편지를 읽어 준다. '아름'은 모든 사실을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마워한다. '아름'은 자신이 듣고 상상했던 것을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소설을 써서 '대수'와 '미라'에게 선물하고, '미라'가 읽어 주는 소설을 들으며 숨을 거둔다.

02 (라)에서 '서하'가 전자 우편으로 보낸 손 사진은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름'과 '서하'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근거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하'의 손이 '아름'처럼 늙게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주치의'는 '아름'의 병이 악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② '미라'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아름'에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움과 함께 속상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③ (라)와 (마)에서 '서하'의 대사는 '소리'로 들리고 있다. '소리'는 화면 밖에서 들리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말한다.

⑤ (나)에서 '미라'는 아픈 '아름'이 주위를 의식하며 창피해하는 것에 대해 안쓰러워하며 선글라스를 벗기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03 〈보기〉를 통해 '아름'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⑤ 중 가장 일상적인 상황은 비 오는 날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초등학교 때 대학에 입학한 영재, 자치구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수영 선수,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소녀의 모습 등은 모두 일상적 경험보다는 특별한 경험에 가깝다.

04 (마)에서 '아름'이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아름'의 바람을 형상화한 것이지,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자신이 항상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미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아름'의 어른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다.

② 아픈 '아름'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병원비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아프면 울고 때쓰며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기 바라는 '미라'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③ '아름'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 씨'를 '짱가'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동안이라고 하는 등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하고 있다.

④ '아름'은 '서하'의 마음에 공감하여 사진 위에 손을 포개어 보고 있다.

05 〈보기〉는 겨울밤 거리에서 굴을 파는 '할머니'를 소재로 하여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글의 '서하'는 '아름'의 또래 친구로, '아름'에게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보기〉의 '너'는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팔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는 '할머니'에게 그 굴값을 깎는 사람이므로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아름'은 조로증을 앓고 있고, 〈보기〉의 '할머니'는 힘겹게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므로 둘 다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③, ⑤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쓰인 시나리오이므로 화면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보기〉는 작가의 정서를 운율감 있게 전달하는 시이므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④ 이 글은 '아름'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보기〉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굴값을 깎는 '너'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아름'과 '할머니'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끔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겨울밤에 차가운 밤거리에서 굴을 파는 할머니를 소재로 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한 시이다.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이기적인 '너'에게 화자는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슬픔', 즉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221쪽

01 ⑤

02 ③

01 ‘결론-①’에서는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이단자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말하고 있다. ⑤에서 말하는 ‘이탈리아가 몰락한 이유는 갈릴레이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결론-①’의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근거이다.

02 쓰기 맥락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과 같이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의미한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글의 주제나 무엇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설명인지 설득인지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자를 설득하는 논설문이다.

②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이므로, 인쇄 매체에 실릴 수 있다.

④ ‘존 스노’의 연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 예상 독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⑤ 이 글은 이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제시하며,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22~223쪽

01 ④ **02 ⑤** **03 ⑤** **04**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5 ②** **06 ⑤** **07 ④**

01 이 글의 제목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회의 너그럽지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기존의 권위나 통념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단자’들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반란’이라는 표현에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02 (라)에서는 과학의 도약이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과학, 사회, 조직 모두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이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19세기인 1854년에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과학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당시 과학자들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03 이 글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와 콜레라균의 매개체가 물이라는 가설을 입증했던 ‘존 스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글에 ‘존 스노’가 했던 실험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기존의 통념인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는 ‘용기 있는 이단자’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갈릴레이’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오염된 공기가 콜레라균의 매개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통념을 부정하고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임을 밝혀냈던 ‘존 스노’의 사례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이다.

④ 예상 독자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존 스노’의 실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4 서술형 (바)에서 글쓴이는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였음을 썼다.	☐
인용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음을 썼다.	☐

05 쓰기 맥락이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말한다.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 글을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글의 주제나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③ 글을 고쳐 쓸 때에는 쓰기 맥락 및 문장의 호응, 맞춤법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④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글쓰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⑤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는 글쓰기 상황이 어떠한지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06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⑤는 환경 문제보다는 과학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글을 평가할 때 정보의 양은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보를 많이 넣어도 글에 짜임새가 없으면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정보를 적게 넣어도 짜임새 있게 전달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24~225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6 (가)
와 (나)의 주제는 환경 보호이고, 글을 쓴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가 일반인이고, (나)는 학급 친구들만 아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가 학급 친구들이다.

01 이 글의 글쓴이는 다양한 근거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반론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와 콜레라균의 매개체가 물이라는 가설을 입증했던 '존 스노'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② (마)에서는 영국의 시인 '밀턴'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례로,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⑤ 과학 분야의 사례인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조직과 사회에 확대 적용하여,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 사회의 발전과 도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2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에서 '새로운 생각'이란 기존 사회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태도란, 새로운 생각을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온한 이단자였다고 하였다.
③ '갈릴레이'와 '존 스노'는 모두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 사람으로, 이러한 용기 있는 이단자들로 인해 사회의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④ '갈릴레이'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지 않은 이탈리아는 결국 몰락하였다는 말로, 폐쇄성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이상한 말'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다.

03 <보기>는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시각이 위험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4 ㉠~㉣ 중 <보기>의 '환경이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태'와 내용상 가장 유사한 부분은 현 사회의 심각한 환경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이다. '본론'에서는 학급에서 쓰레기 분류가 되지 않는 문제 상황, 환경 보호의 실천 사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가)에서 이제 '구호'뿐인 환경 보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환경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호를 만들어 일상에서 기억하자고 되새기는 내용의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④ (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 이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 캔, 플라스틱 등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서 버리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06 서술형 <보기>의 쓰기 맥락에 따라 (가)와 (나)를 분석하면, (가)와 (나)는 글의 주제와 글을 쓴 목적이 같다. 그러나 내용과 표현 형식으로 볼 때 예상 독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의 주제와 목적을 알맞게 썼다.	☐
(가)와 (나)의 예상 독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본문 226~228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③

01 (가)는 사회적 약자인 '아름'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고, (나)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이다. (나)에서 과거의 인물인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 인물이 겪었던 사건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② (나)는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쓰인 논설문이다.
③ (가)는 '아름'과 '대수', '불량한 학생들'이 간이 화장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겪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독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나)의 독자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02 (가)의 '불량한 학생들'은 자신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아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의 '불량한 학생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아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것을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가)에는 자신들과 다른 '아름'을 괴롭히는 '불량한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이, (나)에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려 하는 편견이, <보기>에는 가난이라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04 (가)에서 ㉠의 앞부분에는 '불량한 학생들'이 '아름'을 괴롭히는 장면이, ㉠의 뒷부분에는 '대수'가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즉 '대수'의 모습이 삽입되면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05 (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단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의 설득하는 글이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오답 풀이** ① 설득하는 글을 쓰기 전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 다양한 글쓰기 상황인 쓰기 맥락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②, ⑤ 설득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글쓴이는 글을 통해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한다.
 ③ 논설문, 연설문, 건의문, 신문 사설 등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06 (나)에서는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이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을 연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7 (나)에서는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으므로, ④는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생각)을 의미한다.

08 (가)와 (나)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고 주장하며 각각의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격식체를 사용하였고, (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였다.
 ② (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는 글쓴이의 교실에 쓰레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여 쓰레기를 분류하여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를 학급 친구들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환경 보호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쓰기 맥락의 차이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9 (가)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는 교실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쓰레기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글쓴이의 경험은 나타나지만, 환경 보호를 실천한 경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요즘 뉴스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②, ⑤ (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자동차 매년 줄이기를, (나)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둘 다 글의 끝부분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가)에서는 '구호'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환경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환경 보호 구호를 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1) 국어의 문법 요소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① 233쪽	01 ⑤	02 ②	03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04 ②
② 235쪽	05 ④	06 ④	07 • 진행상: 꽃이 피고 있다. / 꽃이 피어 간다. • 완료상: 꽃이 피어 있다. / 꽃이 피어 버렸다.	
③ 237쪽	08 ②	09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경찰에 의해) 잡혔다.	10 ②	

01 높임을 나타낼 때에는 한 문장에서 조사, 어미, 특수 어휘 등의 높임 표현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 가방을 가져다 드렸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조사 '께', 어미 '-습니다', 특수 어휘 '드리다'가 쓰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법이 된다.
 ② 대상이 높으면 하십시오체 등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대상이 낮으면 해라체 등 그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③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④ 주체 높임법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 객체 높임법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

02 ②에서는 어휘 '저'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을 낮추고, '-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03 이 문장에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여야 한다.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로 고치면 된다.

04 <보기>에서는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인 '께'와 특수 어휘인 '여쭙어보다'를 사용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문장에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③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였다.
 ④, ⑤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나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등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5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건너는'은 동사 '건너다'의 어간 '건너-'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말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시간 부사 ‘내일’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음을 나타낸다.

②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음을 나타낸다.

③ 동사 어간 ‘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결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음을 나타낸다.

⑤ 관형사형 어미 ‘-(으)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ㄹ 것’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6 ④의 ‘먹는다’는 동사 ‘먹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동사 ‘내리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동사 ‘앉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결합하고, 부사 ‘지금’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어지럽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결합하고, 부사 ‘어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동사 ‘볼다’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오후에는’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7 진행상은 보조 용언 ‘-고 있다’, ‘-아 가다/-어 가다’의 형태로,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 있다/-어 있다’ 또는 ‘-아 버리다/-어 버리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상은 ‘꽃이 피고 있다.’ 또는 ‘꽃이 피어 간다.’로, 완료상은 ‘꽃이 피어 있다.’ 또는 ‘꽃이 피어 버렸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8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에는 문장 안에 있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을 문장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방금’은 ‘지금’과 유사한 의미의 부사어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09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먼저 능동문 주어(경찰이)를 ‘에게’나 ‘에 의해’를 사용한 부사어(경찰에게/경찰에 의해)로 바꾸고, 목적어(도둑을)는 주어(도둑이)로 바꾼다. 그리고 이에 맞게 서술어는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바꾸고(잡혔다) 나머지 문장 성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또는 ‘경찰에 의해’) 잡혔다.’가 된다.

10 ‘형성되었다’는 능동사(형성하다)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말로, 피동 표현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칠판에 쓰여진 글씨’에서 ‘쓰여진’은 동사 ‘쓰다’의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아-’와 피동 표현 ‘-어지다’가 둘 다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쓰인’이나 ‘써진’으로 고쳐야 한다.

③ ‘뒤집혀졌다’는 동사 어간 ‘뒤집-’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뒤집혔다’나 ‘뒤집어졌다’로 고쳐야 한다.

④ ‘입증되어진’은 ‘입증’에 피동 접미사 ‘-되다’와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입증된’으로 고쳐야 한다.

⑤ ‘믿겨지지’는 동사 어간 ‘믿-’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쳐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38~241쪽

-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용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셔.(오라고 하셔.)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아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널어 두는’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널어 두는’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한 ‘널어 둔’으로 바꾸어야 한다.
14 ⑤ **15** ④ **16** •(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7** ②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④ **23** ⑤ **24**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곧 돌아오실 거야.

01 ‘아버지’는 문장의 주어이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여기서 ‘있다’의 주어는 ‘걱정거리’인데, ‘걱정거리’가 ‘아버지’에게 속한, 일종의 생각이므로 ‘있으시다’라고 높여 간접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에게는’ ‘께’로, ‘주었다’는 ‘드렸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고모’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가’는 ‘께서’로, ‘왔다’는 ‘오셨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잔다’를 ‘주무신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청자를 높이려면 ‘나’를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저’로 바꾸어야 한다.

02 ㉞에서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손님’인데, 어말 어미 ‘-니다’를 적절히 사용하여 상대 높임법을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은 ‘찾는’ 행위의 주어인 ‘손님’이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찾는’을 ‘찾으시는’으로 고친다.

② ‘만나다’의 대상은 ‘선생님’으로,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맞게 ‘만나리’를 ‘뵈러’로 고친다.

③ 높임의 대상이 부사격 조사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배님’이므로 ‘몰어볼’을 객체 높임에 맞게 ‘여쭙볼’로 고친다.

④ ‘좋으세요’의 주어는 ‘제품’이다. ‘제품’은 사물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좋으세요’를 ‘좋아요’로 고친다.

03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할아버지’이며,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04 (가)는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에 사적으로 만나 나누는 대화이므로 비격식체의 반말을 사용하였지만, (나)는 방송이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격식체의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나)는 공식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두 인물의 친밀도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가)는 사적인 자리지만, (나)는 방송 중이므로 공식적인 자리이다.

⑤ (가)와 (나)에서는 격식적인 상황이나 아니냐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이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05 청자이자 문장의 객체인 '용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며,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선생님'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모시다'는 높임의 뜻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인데, '선생님'이 학생인 '용준'을 '모시고' 오라고 높여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높임 표현이 아닌 '데리고'로 고쳐야 한다. 또한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의 준말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이 오는 행위의 주체인 화자와 '용준'을 높임 표현이다. 따라서 '선생님'을 높이려면 '선생님'이 주체인 '해' 부분을 높여서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한다.

06 사건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고, 발화시는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고,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다.

07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뒤에 온다는 것은 말하는 시점 이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이라는 과거 시간 표현,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해 과거를 나타낸 ⑤가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③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②, ④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08 ①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반면, '-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겠-'을 '-ㄴ-'으로 바꾸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되므로, ①의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뀌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도 사라진다.

09 '산다'는 동사 '살다'의 어간 '살'에서 'ㄹ'이 탈락한 후,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쓰인 현재형 표현이다. 하지만 '옛날'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와 어울리려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해 '살았다'로 고쳐야 한다. ②의 '살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표현으로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했다'는 과거형이므로 시제 표현에 맞게 '했다'를 '하겠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내리는'은 현재형이므로 시제 표현에 맞게 '내리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학생 시절'은 과거이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과거를 나타낼 때 관형사형 어미 '-던'과 결합하므로 '학생이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미'는 완료상, 과거형과 호응하는 부사인데, '밝아 간다'는 진행상, 현재형이므로 과거 완료형인 '밝아 있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지 않지만,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11 동작상 중,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인 '완료상'이 나타난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④는 동사 '있다'에 보조 용언 '-아 있다'를 결합하여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사 '되다'에 보조 용언 '-어 가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② 동사 '치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③ 동사 '썰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⑤ 동사 '먹다'에 연결 어미 '-으면서'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12 동작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어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 ③의 '먹어 버렸다'는 먹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낸 것으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 '-어 간다'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②, ④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⑤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13 서술형 '아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런데 '널어 두는'의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ㄴ'을 사용하여 '널어 둔'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어진 문장의 시제와 그 근거를 썼다.	☐
밑줄 친 부분의 어미가 어색한 이유를 썼다.	☐
밑줄 친 부분의 어미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썼다.	☐

14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감탄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에는 종결 어미 '구나'를 '-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절 뒤에는 '라고'를 쓰지만, 간접 인용절 뒤에는 '고'를 써야 한다. 따라서 ⑤는 '아름답다고 말했다.'로 고쳐 써야 한다.

15 제시된 문장은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한 직접 인용 방식이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 표현을 할 때는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고, 큰따옴표 뒤에 조사 '라고'를 써야 하므로 ④를 '라고'로 고쳐야 한다.

16 서술형 (가)에서는 말의 내용을 일부만 인용하여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나)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17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다. ㉔는 ‘엄마’가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밥을 먹게 하는 것으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㉔에 쓰인 사동 접미사 ‘-이-’는 피동 접미사 ‘-이-’와 모양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

오답 풀이 ① ‘담겨’는 동사 ‘담다’의 어간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③ ‘팔리지’는 동사 ‘팔다’의 어간 ‘팔-’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④ ‘깎이지’는 동사 ‘깎다’의 어간 ‘깎-’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⑤ ‘널려’는 동사 ‘널다’의 어간 ‘널-’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참고 자료] 사동 표현

- 의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실현 방법: 사동 접미사 ‘-아-, -하-, -라-, -가-, -우-, -구-, -추-’를 쓰거나 ‘-시키다’, ‘-게 하다’를 씀

18 ㉔는 능동문이고, ㉔는 피동문이다. 능동문에서는 행위의 주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피동문에서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㉔는 ‘그 사건’에 초점이, ㉔는 ‘학교’에 초점이 맞춰진다.

19 ‘만들어지다’는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만 붙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접혀졌다’는 동사 어간 ‘접-’에 피동 접미사 ‘-하-’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열려지다’는 피동 접미사 동사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입증되어졌다’는 명사 ‘입증’에 ‘-되다’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쓰여진’은 동사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20 <보기>의 ㉔와 ㉔는 능동 표현, ㉔와 ㉔는 피동 표현이다. 제시된 글에 따르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숨겨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은 피동 표현인 ㉔와 ㉔이다.

오답 풀이 ① ㉔와 ㉔는 능동 표현이므로 ‘물을 낭비하는’, ‘식탁을 안 닦은’ 행위를 한 주체가 드러난다.

②, ③ ㉔와 ㉔는 피동 표현이므로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 즉 ‘물이 낭비되는 사실’과 ‘식탁이 안 닦인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시된 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은 행위를 하는 주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④ 능동 표현인 ㉔는 피동 표현인 ㉔와 달리 문장에서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드러나므로, 물을 낭비하거나 식탁을 닦지 않은 문제 상황의 원인이 주체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21 제시된 ‘선생님이 “선영이를 모시고 와라.”라고’라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로 바뀌었다. 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던 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것이다(ㄱ). 또한 ‘선생님이’는 ‘선생님께서’로, ‘모시고’는 ‘데리고’로 바뀌었다. 이는 화자보다 높은 대상인 ‘선생님’을 낮추어 표현하는 주격 조사 ‘이’ 대신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선생님’보다 낮은 대상인 ‘선영’에게 불필요하게 쓰였던 높임말인 ‘모시고’ 대신 반말인 ‘데리고’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 쓰인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고 있다(ㄴ).

22 ㉔는 인용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 잘못 쓰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인 ‘무엇이 배워졌는지’를 ‘무엇을 배웠는지’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참가되었습니다’의 주어는 ‘저’이다. ‘저’가 능동적으로 백 일장에 참가한 것이므로, ‘참가하였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실패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는 ‘실패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인용 표현이 된다. 혹은 “실패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라고처럼 고칠 수도 있다.

③ ‘말해 주었습니다.’의 주어는 ‘어머니’이므로 주체 높임법에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앞으로도’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실패하였지만’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므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써서 ‘실패하겠지만’으로 고쳐 써야 한다.

23 ⑤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인용 표현을 모두 알맞게 사용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발굴되어졌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모두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발굴되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나오다’의 주어는 사물인 ‘커피’이므로 높임 표현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할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미래 시제 표현이므로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는 ‘할 것이다’를 그대로 두고, 과거 시제 표현인 ‘어제’를 미래 시간 표현인 ‘내일’, ‘다음 주에’ 등으로 고칠 수도 있다.

④ 간접 인용일 경우 조사 ‘라고’가 아닌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소중하냐라고’를 ‘소중하냐고’로 바꾸어야 한다.

24 서술형 ‘기다리는’ 행위의 주체는 ‘동생’이므로 화자보다 어린 사람이다. 따라서 ‘기다리시면’을 ‘기다리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는 ‘돌아오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주체 높임 표현에 맞게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곧’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부사이므로 ‘돌아오는 거야’를 미래 시제에 맞게 ‘돌아오실 거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곧 돌아오실 거야.’로 고쳐 쓴다.

평가 기준	확인 ☑
‘기다리시면’을 ‘기다리면’으로 고쳐 썼다.	☐
‘어머니’를 ‘어머니께서’로 고쳐 썼다.	☐
‘돌아오는 거야’를 ‘돌아오실 거야’로 고쳐 썼다.	☐

- 01 ⑤ 02 ③ 03 (1) 높임의 대상: 어머니, 할아버지 (2)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종결 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 ‘진지, 잡수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②

01 ⑤에서 운동을 하는 주체는 ‘아버지’이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하신다’는 주어를 직접 높인 말이 된다.

오답 풀이 ①은 ‘삼촌의 발’을, ②는 ‘선배의 손’을, ③은 ‘어르신’의 따님을, ④는 ‘할머니의 걱정거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문장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02 ‘어느 쪽으로 가세요?’는 종결 어미 ‘-어요?’가 쓰여 비격식체의 ‘해요체’에 해당하고,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여 격식체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즉 ③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섞여 쓰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문장 모두 비격식체의 ‘해체’에 해당한다.
②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하체’에 속한다.
④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해라체’에 해당한다.
⑤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어머니’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이다. ‘어머니’에 대한 높임을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해요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나타내었으며, 이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 ‘진지, 잡수다’를 사용해 나타내었으며 이는 주체 높임법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높임의 대상으로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썼다.	☐
‘어머니’를 높이는 방법으로 ‘종결 어미의 사용’ 또는 ‘비격식체의 해요체의 사용’을 썼다.	☐
‘할아버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께서’, ‘-시-’, ‘진지’, ‘잡수다’의 사용을 썼다.	☐
‘어머니’의 높임을 실현한 방법이 상대 높임법이고, ‘할아버지’의 높임을 실현한 방법이 주체 높임법임을 썼다.	☐

04 ③에서 사용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의 ‘-겠-’은 의지, ②의 ‘-겠-’은 추측, ⑤의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05 ‘좀 전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 ‘먹는’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은 맞다. 그러나 ‘먹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이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인 것이다. ‘먹는’이 위에 오는 명사 ‘빵’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는’이 관형사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06 “부족하면 더 잡수세요.”가 간접 인용절로 안길 때에는 일단 ‘부족하면 더 잡수시라고’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높임말인 ‘잡수다’의 주체는 ‘나’이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서 주어에 맞게 높임 표현을 조절하면 ‘먹으라고’가 된다. 따라서 ㉠의 빈칸에는 ‘부족하면 더 먹으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7 가족들끼리 직접 시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④와 같이 ‘맞추어져’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의 ㉠ ‘맞추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대화가 부족한 상황’은 가족들로 인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지속하다’는 피동 표현인 ‘지속되다’로 고쳐야 한다.
② ‘가정’은 구성원들에 의해 변하는 것이므로 ‘변하게 한다’는 피동 표현인 ‘변하게 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대화’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루어야’는 피동 표현인 ‘이루어져야’로 고쳐야 한다.
⑤ ‘대화의 문’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의해 바뀌는 것이므로 ‘열 것이다’는 피동 표현인 ‘열릴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08 ‘찍이었다.’는 동사 어간 ‘찍-’에 피동 접미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닌 정상적인 피동 표현에 해당하고, 바람에 의해 나뭇가지가 꺾는 동작을 당했다는 상황을 표현하여 불필요한 피동 표현도 아니므로 <보기>를 뒷받침하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찢겨져’는 동사 어간 ‘찢-’에 피동 접미사 ‘-가-’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읽혀지지’는 동사 어간 ‘읽-’에 피동 접미사 ‘-하-’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예상되어집니다’는 명사 ‘예상’에 피동 접미사 ‘-되다’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달려진’은 동사 어간 ‘달-’에 피동 접미사 ‘-하-’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9 ㉠의 ‘하셨다’에서는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였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보조 용언 ‘-어 있다’를 통해서 완료상을,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의 ‘드렸던’은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예쁜’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과 ㉠은 모두 하십시오체의 어말 어미 ‘-습니다’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은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선물을 받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247쪽

01 ②

02 ④

03 ⑤

01 훈민정음 창제 당시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만을 허용하는 8종성법이 원칙이었다.

02 ‘여·름·하·늬·니’가 ‘열매 많습니다.’로 풀이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하다’는 현대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늬’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인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② 글자 옆에 점을 하나 또는 두 개 찍거나 점을 찍지 않는 것으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 방점이 쓰였다.

③ ‘기쁜’은 ‘깊-+-은’으로, 소리나는 대로 이어서 ‘기쁜’으로 적은 것이다.

⑤ ‘부루매’는 ‘부름’과 조사 ‘ㅁ’가 결합된 말이고, ‘구무래’는 ‘구물’과 조사 ‘ㅁ’가 결합된 말이다. 이에는 ‘·, ㅁ’의 양성 모음들이 어우러진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성조

소리의 높이를 의미하며,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평성	낮은 소리로 방점이 없음
거성	높은 소리로 방점이 한 개임
상성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로 방점이 두 개임

03 끊어적기는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것이다. ⑤는 소리나는 대로 ‘얼구리며’라고 적지 않고 ‘얼굴’이라는 각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48~251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④:
변화, ⑥: 역사성 19 ③ 20 ② 21 ㉠은 몸과 형태와 머리털과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은 임신하여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01 제시된 글을 보면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어휘들이 현대 국어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02 ㄱ은 몽골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한 예이고, ㄴ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ㄹ은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예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ㄷ은 현대 국어에서 우리의 옛말을 다시 살려 사용한 것으로 ㉠와는 관련이 없다.

03 제시된 글은 15세기에 쓰인 『용비어천가』로 중세 국어 자료이다. 중세 국어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어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간 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가리킨다.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국어는 현대 국어이다.

[참고 자료] 『용비어천가』 제재 개관

갈래	악장(조선 시대 초기에 궁중에서 종묘제향 때 부르던 송축가)
성격	설득적, 서사적, 예찬적, 송축적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함
의의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임 • 한국 악장 문학의 대표작임

04 ‘여·름’은 현대어로 ‘열매’라는 의미이다.

05 ㉠은 형태소를 밝혀 ‘깊은’과 같이 끊어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기·쁜’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이어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자 앞의 ‘·, ㅁ’을 보면 방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부루매’에는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가 창작성 중세에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하·늬·니’의 기본형은 ‘하다’로 이는 현대 국어로 ‘많다’는 뜻이다.

⑤ ‘므·른’, ‘구·무·래’, ‘바·루·래’ 등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참고 자료] 모음 조화

동일한 계열의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으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양성 모음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줌 예 ㅏ, ㅑ, ㅓ, ㅕ 등
음성 모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줌 예 ㅓ, ㅕ, ㅗ, ㅛ 등

06 중세 국어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함께 쓰였다. 현대에는 끊어적기만 쓰이고 있다.

07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와 목적으로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워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훈민정음 언해'라고도 불리는 글로, 한문으로 쓰인 훈민정음을 한글로 풀어 쓴 글이다.

② 훈민정음의 서문은 세종이 쓴 것이다. '·내 ·이·를 爲 ·왕·후·야 ·어엿 ·비 너 ·겨 ·새 ·로 ·스·물여·듸 字·중·를 밍·그노·니'를 통해 '내'가 '세종'임을 알 수 있다.

④ 훈민정음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 책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을 뿐,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익히기 쉽게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의 실용 정신을 알 수 있으나, 이 글을 통해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해 보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세종어제훈민정음』 제재 개관

갈래	훈민정음의 서문
성격	설명적, 교시적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목적, 의의
의의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

08 '·어엿 ·비'는 현대 한국어로 '가엾게, 불쌍히'라는 의미였다가, 후에 현대 한국어의 '어여뻐'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어휘이다.

09 '·뿌·메'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에 명사형 어미 '-에'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中·國·국·에 달·아'는 '중국과 달라'라는 뜻으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 '과'와 대응된다.

② '니르·고·저'는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은 형태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저'로 쓴다.

③ '무·춤·내'는 '·'와 'ㅁ'의 양성 모음끼리 어우러진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쁘·들'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 군인 'ㅃ'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어두 자음군은 '·쁘·들'이 '뽇'이 된 것처럼 현대 한국어에서 대개 된소리로 변화했다.

10 『세종어제훈민정음』에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 점에서 우리나라를 독립된 주체로 생각한 자주정신이(①, ②),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정신이 드러난다(③). 또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로 창제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엿보인다(④). 하지만 이러한 실용 정신으로 인해 자음과 모음을 최소화하였다는 내용은 추론할 수 없으며, '훈민정음'에도 기본적인 문법 요소는 존재했기 때문에 ⑤는 적절하지 않다.

11 『소학언해』는 중국의 수양서인 『소학』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이다.

[참고 자료] 『소학언해』 제재 개관

갈래	언해
성격	교훈적, 유교적
주제	효의 시작과 마침
의의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

12 중세 국어 초기에는 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가 점차 실제 발음하는 한자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소학언해』에서도 '父·부母:모'와 같이 현실적인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면 중성 자리에 'ㅇ'을 썼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자 옆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찍혀 있다.

② 이 글에는 'ㅁ(순경음 비음)'이 나타나지 않으며 원래 'ㅁ'을 썼어야 할 'ㅁ조운'에서도 'ㅁ'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ㅁ(순경음 비음)'의 사용이 축소되었거나 아예 음운이 소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현대와 같은 문장 부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몸·이며', '알·흠·을'에서 보듯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13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로, 이 글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②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③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다 갖추어 장상(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냄을 이르는 말'인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⑤ '오륜(五倫)'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는 의미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14 'ㅁ조·온'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현대로 계승되지 않고 소실되었으므로 현대의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께'와는 관련이 없다. '께'와 관련 있는 것은 '父·부母:모·씩'에 사용된 '씩'이다.

오답 풀이 ① '孔·공子·지'의 'ㅣ'는 주격 조사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가'가 되는데, '공자'가 높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께서'에도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② '을중子·조두·려'는 '증자에게'라는 의미이므로 '드려'는 '에게'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③ '·몸·이며'는 '몸과'라는 의미이므로 뒤에 이어지는 '얼굴·이며 머·리털· 이·며'를 고려하면 '이며'는 접속 조사 '과'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⑤ '·효·도·이'의 '이'는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된다.

15 '몸'에는 양성 모음 'ㅛ'가 사용되었으므로, 뒤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을'이 와야 모음 조화에 맞다. 그런데 '을'의 'ㅡ'는 음성 모음이다. 따라서 '·몸·을'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만났으므로 모음 조화에 어긋난다.

16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17 (가)는 15세기, (나)는 16세기에 쓰인 글로, 둘 사이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세 국어에 속한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왔다.

-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ㄸ, ㅃ, ㅆ’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로 표기하였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의 유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고, 의미 구분이 되는 곳에 ‘방점’이 아닌 ‘구두점’을 찍었다.

18 (가)와 (나)는 모두 중세 국어 자료지만 약 13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자료이다. 두 자료의 표기를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19 중세 국어에서는 ‘이’와 ‘ㅣ’가 주로 쓰이고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가)와 (나) 모두 주격 조사로는 ‘이’와 ‘ㅣ’만을 쓰고 있으며 ‘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용되었던 ‘ᄃ(순경음 비음)’과 같은 음운은 (나)에 이르러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② (가)에서 음의 높낮이를 표기했던 기호는 글자의 왼쪽 옆에 찍는 점인 방점으로, (나)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④ (가)에서 한자음은 ‘중국’을 ‘中東國’이라고 실제 한자음에 일치하지 않는 발음으로 표기하고, ‘字(자)’를 ‘중’로 적은 것처럼 종성에 음가가 없는 말도 종성 자리에 ‘ㅇ’을 적는 등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현실 한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나·랏·말·ㅅ·미’처럼 글자를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아·니·ᄃ·이’처럼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단어의 의미가 이동하였다.

21 서술형 효도의 시작인 ㉠은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효도의 끝인 ㉡은 임신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임을 썼다.	☐
㉡이 임신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썼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52~253쪽

- 01** ⑤ **02** ③ **03** -좁-, ‘받-’이 ‘ㄷ’으로 끝나므로 자음 ‘ㄷ, ㅌ, ㅈ, ㅊ’ 뒤에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04** ②
05 ④ **06** ⑤ **07** ①

01 ‘ᄃᄃ·매’는 체언 ‘ᄃᄃ’과 조사 ‘ㅣ’가 결합된 말이다. 따라서 체언 ‘ᄃᄃ’에 주격 조사를 붙이면, 자음 ‘ㄹ’ 뒤이므로 ‘이’가 와야 한다. ‘ᄃᄃ중주·ᄃᄃ·려’의 체언은 ‘중중’로, 뒤에 주격 조사를 붙이면, ‘ㅣ’ 모음 이외의 모음 뒤이므로 ‘ㅣ’가 와야 한다. 따라서 모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불·휘’는 ‘ㅣ’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는 없음의 형태로 결합되었다.
 ② ‘시·미’는 ‘ㅅ’ 뒤에 주격 조사가 온 것이므로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인데, 이어적기를 하여 ‘시미’가 된 것이다. ‘ᄃᄃ·ᄃᄃ·ᄃᄃ·이’는 ‘ᄃᄃᄃ’의 뒤, 즉 자음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었다.
 ③ ‘공·지’는 ‘공주+ㅣ’이고, ‘ᄃᄃ·배’의 ‘배’는 ‘바+ㅣ’로 모두 주격 조사 앞에 모음이 오므로 ‘ㅣ’가 결합되었다.
 ④ ‘남·ᄃᄃ’은 ‘남+ㅣ’와 ‘ᄃᄃ’이 결합한 것이고, ‘ᄃᄃ·ᄃᄃ’은 ‘ᄃᄃ+ᄃᄃ’을 이어적기한 것으로 ‘남+ㅣ’와 ‘ᄃᄃ’은 자음 뒤에 오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될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초·중·종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받침 없는 말의 받침 자리에 ‘ㅇ’을 표기한, 『동국정운』식 표기의 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中東國·ᄃᄃ’ 역시 『동국정운』식 표기에 해당하지만 원래 받침 소리가 있는 말이어서 음가가 있는 ‘ㅇ(옛이응)’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ᄃᄃ·ᄃᄃ(세)’, ② ‘ᄃᄃ·ᄃᄃ(제)’, ④ ‘字·ᄃᄃ(자)’, ⑤ ‘爲·ᄃᄃ(위)’은 모두 종성이 없는 한자들이므로, 받침 ‘ㅇ’은 형식적 기호로 사용된 것이다.

03 서술형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자리의 앞말은 ‘받-’이다. 즉 ‘ㄷ’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놓이는 것이므로 ‘-좁-’이 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좁-’이 들어가야 함을 썼다.	☐
자음 ‘ㄷ’ 뒤에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근거를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어엿쁘다’는 ‘가없다,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동한 말이다. ‘씩씩하다’가 ‘엄하다’라는 뜻에서 ‘용감하다’라는 의미로 변한 것도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미인’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말에서 여지만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③ ‘세수’는 ‘손’에서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로 바뀐 것이므로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④ ‘지갑’은 종이로 만든 것에서 다양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확대에 해당한다.
 ⑤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와 ‘사랑하다’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랑하다’의 한 가지 의미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의미의 변화

의미의 확대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것
의미의 축소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것
의미의 이동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05 (나)의 ‘머·리털·이·며’는 ‘머리털’과 ‘이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머리털’은 체언이고, ‘이며’는 ‘와/과’의 뜻을 가진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머·리털·이·며’에서 끊어적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은 것이 아니라,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뜯’은 뜯+을인데, 체언 ‘뜯’에 조사 ‘을’이 결합할 때,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뜯을’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으므로 (가) 시기에는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나·랏·말쑈·미’는 ‘말쑈’이라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말쑈이’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고 있다.

③ (나)의 ‘거·시·라’는 ‘것’에 ‘이’가 결합한 것인데,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고 있다. 따라서 끊어적기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적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쑈·미·라’와 (나)의 ‘무·춤·이·라’는 각각 체언 ‘쑈’와 ‘무춤’ 뒤에 ‘이·라’를 결합하고 있다. 이때 (가)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은 반면, (나)는 앞말의 형태를 살려 끊어적고 있으므로, (가)에서 (나) 시기로 넘어가며 끊어적기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나·랏·말쑈·미’에는 이어적기 표기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은 ‘남+은’과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노·미’는 체언 ‘놈’에 주격 조사 ‘이’를 결합하여 이어적기한 것이다.

② ‘뜯·들’은 ‘뜯+을’인데, 체언 ‘뜯’에 음성 모음 ‘ㅡ’가 쓰였고, 조사 ‘을’에도 음성 모음 ‘ㅡ’가 쓰였다. 따라서 모음 조화를 지킨 사례에 해당한다.

③ 중세 국어에는 ‘어·터·비’처럼 글자 왼쪽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방점을 찍거나 점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시하였다.

④ ‘몬홀’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모인 ‘· (아래아)’와 ‘ㅎ(여린히을)’이 쓰였다.

07 (나)의 ㉠ ‘글·으·샤·디’를 보면, 어간과 어미를 모두 양성 모음인 ‘·, ‘ㅏ’, ‘ㅣ’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 ‘하늘·을’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된 체언인 ‘하늘’에 음성 모음으로 된 조사인 ‘을’을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모음 조화의 혼란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거룩·후야’, ‘하늘·을’에서 보듯 아래아(·)가 계속하여 쓰이고 있다.

③ ㉠과 ㉡는 둘 다 고유어이다.

④ ㉠과 ㉡는 둘 다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

⑤ ㉠과 ㉡에서는 받침 ‘ㄹ’이 사용되었다.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① 257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②
② 259쪽 05 ③ 06 ③ 07 ④

01 ‘가운데 1’에서는 한국어의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을 보여 주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국가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글의 우수성 또한 한국어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으로는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에서의 위상’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한국어 기관이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 주기 위한 부분적인 내용이므로 소재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④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⑤ 한국어의 위상이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국어 보급 기관과 수강생 수, 한국어 교재 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 등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02 ‘가운데 1’에 제시된 시각 자료에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와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 학당, 한글 학교, 한국 학교 등의 개수를 알 수 있다.

② 시각 자료는 이미지가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료에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 옆에 막대그래프로 학생 수를 표시하고 있다.

④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별 현황은 객관적 수치를 표시하고 있고, 교육 부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3 ‘가운데 1-①’에 따르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나라 안팎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약 3,400권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양의 한국어 교재가 발간되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이들 교재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추세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한국어 교재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가운데 1-①’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증가하여 한국어 보급 기관과 수강생,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04 이 글에서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유용한 언어라고 한 근거로 한글의 우수성을 들고 있다. 이 글에 드러난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ㄱ),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디지털 기기에서의 정보 검색 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ㄷ)이다.

오답 풀이 ㄴ. 한글의 자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ㄹ. 한글은 『훈민정음』과 그 서문을 통해 글자를 만든 목적, 글자의 유래, 제자 원리 등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정보 사회에 적합한 한글의 우수성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05 이 글에서 글쓰이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말과 글을 다듬고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이 뒤따를 때 진정한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① 글쓰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고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꾸어 가자고 하였으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국어를 고쳐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한국어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자고 하였을 뿐, 위상에 맞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글쓰이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자고 하지는 않았다.

⑤ 한국어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어 사용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06 ‘가운데 2-②’에서 국내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한국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③’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2-④’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원 문서와 같은 공문서와, 계약에 사용하는 각종 문서에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④ ‘가운데 2-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⑤ ‘가운데 2-③’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

07 ‘자정 작용’은 우리말을 소중하게 가꾸고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쉬운 우리말이나 순화된 말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외래어와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60~263쪽

- | | | | | |
|------|------|------|--|------|
| 01 ⑤ | 02 ⑤ | 03 ④ | 04 지구촌 시대 | 05 ② |
| 06 ① | 07 ④ | 08 ⑤ | 09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다. | 10 ⑤ |
| 11 ④ | 12 ⑤ | 13 ① | 14 ② | 15 ④ |
| 16 ③ | 17 ④ | | | |

01 (가)에서는 현대가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면서 시대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고,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보고 있다.

02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 자료는 한국어 보급 기관과 이 기관의 수강생,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와 응시자에 대한 도표이다. 이들 내용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 준다.

03 (나)에서는 4천여 개에 이르는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 3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강생,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태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추가한다는 발표는 있지만, 세계의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04 ㉠의 내용은 (가)에 제시되어 있다. 즉 현대는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지구촌 시대라는 것이다. 이는 한 민족이라고 해서 한 나라에서만 살지 않으며, 한 언어라고 해서 한곳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05 ㉡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외국인 응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짐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한국인이거나 평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일 수도 있다. 즉,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어 사용자는 아닌 것이다. ③ (나)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④ 한국어 사용자는 말 그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국어 사용자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⑤ (나)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가 17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한국인 인구와만 비교해 보아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한국어 사용자 수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06 (다)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기기나 음성 인식 기술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과 알파벳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음성 인식 기술

컴퓨터가 마이크와 같은 소리 센서를 통해 얻은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한글은 한 글자에 하나의 음이 대응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 유용하다. 한글은 영어에 비해 한 글자에 대응되는 음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음성 인식을에서 앞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07 (라)를 보면, '정부에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행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우리말 순화를 위한 노력은 민간의 언어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인 정부의 주도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국외에서의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 낮아지고 있는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주로 매체의 영향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새말이나 합성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합성어는 한국어의 위상을 낮추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합성어가 한국어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긍정적 입장은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서술형 <보기>의 대화는 지나치게 축약된 어휘나 어휘의 조성, 맞춤법에 어긋난 유희적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에서는 청소년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청소년이 이런 말을 씀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문제로 보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세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문제를 썼다.	☐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

10 ㉠은 오염된 물이나 공기의 자정 작용에 빗대어 언어생활에서의 자정 작용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 역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인 유추를 사용하였다. '유추(유비추리)'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 오답 풀이** ①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석'이 사용되었다.
 ②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갖고 다름을 검토하는 방식인 '대조'가 사용되었다.
 ③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류'가 사용되었다.
 ④ 용어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인 '정의'가 사용되었다.

11 글쓴이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말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를 성찰하고 세계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말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자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2 [A]의 '구입 시 할부 수수료율은'은 [B]에서 '할부로 살 때에는 할부 이자율'로 풀어 썼고, [A]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는 [B]에서 '후대 전화 값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월 내는 방식으로 갚습니다.'로 풀어 설명하였다. 즉 [A]의 어려운 한자어를 [B]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B]는 한자어로 된 전문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어 설명한 것으로, 외래어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② [A]와 [B] 모두 같은 수치(5.9퍼센트)를 제시하였다.
 ③ [B]가 전문 용어를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만, [A]와 [B] 모두 전문 용어(할부, 원금)를 사용하고 있다.
 ④ [B]에서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였을 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13 (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 말하던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는 속담을 사용하여 말하려는 바를 비유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한 조상들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 (다)에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켰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나)에서는 속담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상황을 완곡하되 말맛을 살려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속담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속담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세세히 설명해야 될 것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속담은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청자는 속담에 담긴 의미를 바탕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④ '밀바닥 뚫어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속담을 사용해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청자의 부담을 고려해 속담을 사용하여 돌려 말할 수 있다.

15 ㉠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의미한다. 한편 ㉡에서는 창문을 닫으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용돈을 더 달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② '게임을 그만하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③ '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⑤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16 ㉠은 새로운 말을 만들었을 때,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만 두루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새말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 즉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야 대중적으로 쓰이게 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17 '네티즌(netizen)'은 영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순화된 말인 '누리꾼'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네티켓(netiquette)'을 '누리꾼 예절'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피겨(figure)'는 흔히 '피규어'라고 잘못 쓰는 말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을 뜻한다. '정밀 모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캡처(capture)'는 주로 편집이나 저장을 위해 화면에 나타난 일부 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는 '화면 담기', '장면 갈무리' 등의 말로 바꿀 수 있다.

③ '컬러링(color ring)'은 기존의 단조로운 통화 연결음 대신에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바꿔 들려주는 통신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멋울림', '발신대기음'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⑤ '비트박스(beat box)'는 손과 입을 이용하여 강한 악센트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일을 뜻하는 단어로, '입소리손장단'으로 순화할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64~26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이
성계를 왕으로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자. 07 ④
08 ⑤

01 (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이 한국어의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말하고 있고, (나)에서는 빠른 경제 발전,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같은 사회·문화적 역량의 성장이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는 언어와 기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는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단기간에 높아진 것인지 장기간에 걸쳐 높아진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② (가)는 한국어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글을 가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에는 한국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룬 반면, (나)에서는 한국어 보급 정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말하고 있으므로 둘 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02 <보기>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생각이다.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을 세계에 보급하고 한국어 교원을 세계에 파견하거나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각국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고와 문화가 담겨 있으므로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로 통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

03 [A]는 한글은 몇몇 개의 모음과 자음만으로 많은 음운과 글자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글의 원리는 글자판을 만들 때 자판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와 같은 작은 기기의 글자판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다. [B]는 표의 문자의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표의 문자를 글자판으로 만들 때에는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의 비교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따른 자판 개발 시 한글이 매우 유용할 것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의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자판에 로마자로 발음을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표음 문자에 비해 입력 과정이 더 복잡하다.

② 기본 음운에 획을 더하는 방식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천지인 방식으로, 표의 문자의 입력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자는 휴대 전화에 입력할 때 먼저 로마자로 발음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한글의 모아쓰기는 글자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장점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오지 않는다.

⑤ 한자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에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모두 사용해 검색하는 것보다 한글만을 사용해 검색하는 것이 더 빠르다.

04 '분실(紛失)하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의 단어로,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다.'라는 뜻의 단어인 '유실(遺失)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은 순우리말인 '잃어버림' 등으로 고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수(收受)'는 '거두어서 받음', '무상으로 금품을 받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따라서 순우리말 '받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야기(惹起)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순우리말 '일으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매몰(埋沒)되다'는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순우리말 '파묻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추출(抽出)하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라는 뜻으로, 순우리말 '뽑아내다'와 바꿀 수 있다.

05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뜯 따위를 하는 일.'을 뜻한다. <보기>는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나 그림말(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을 지양해야 할 언어이기는 하지만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예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진지한 대화나 지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말과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기>의 말과 표현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서 진지한 대화나 토론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②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고유어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국어 어휘들이나 표현이 사라질 수 있다.
 ④, ⑤ <보기>의 언어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06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시조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정몽주를 완곡하게 설득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방원은 이 시조를 통해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설득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처럼 시조를 통해 비유적으로 전달하곤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조에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썼다.	☐
40자 내외로 썼다.	☐

[참고 자료] 이방원, 『하여가』 제재 개관

갈래	시조, 단시조, 평시조
성격	회유적, 우회적, 설득적
제재	드령침
주제	조선 건국에 동참하기를 회유함
특징	협력하여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회유를 만수산 드령침이 얹히는 것에 비유함

07 ‘ㄱ.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에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고, ‘ㄴ.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ㄷ. 거짓말도 잘만 하면 눈 닷 마지기보다 낫다.’는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은 아무쪼록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고, ‘ㄹ.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한편 <보기>에는 같은 말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같은 말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속담에는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가 있다.

08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 어휘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우리말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함께 잃게 되며, 한국어 사용자들 간에 국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한편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일컫는 것으로, 외국어는 비속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외국어를 순화하면서 더 좋은 우리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말을 더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게 된다.
 ③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면 이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④ 우리말 어휘력이 늘어나면 우리말로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본문 266~268쪽

대단원 정리 문제

01 ① **02** ㄱ.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다. 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학생들이 있겠다(있으리라). ㄷ.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읽던) 학생들이 있었다.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②

01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것은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으로, 주어에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실현한다. 또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은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①에서는 주어인 ‘선생님’에 ‘께서’를 붙이고, ‘택’과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선어말 어미 ‘-사-’를 써서 과장님의 소유물인 ‘옷차림’을 ‘멋있으십니다’라고 표현하여 ‘과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의 자녀인 ‘따님’은 ‘몇 살이신가요?’라고 높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④ ‘있어요’에서 해요체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특수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2 서술형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ㄱ은 현재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ㄴ은 미래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ㄷ은 과거 시제이다. 동사 ‘읽다’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할 때, 현재 시제인 ㄱ에서는 ‘-는’을 써서 ‘읽는’으로, 미래 시제인 ㄴ에서는 ‘-(으)ㄹ’을 써서 ‘읽을’로, 과거 시제인 ㄷ에서는 ‘-(으)ㄴ’이나 ‘-던’을 써서 ‘읽은’이나 ‘읽던’으로 고친다. 형용사인 ‘있다’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할 때는, 현재 시제인 ㄱ에서는 형용사 시제 표현이 따로 없으므로 ‘있다’로, 미래 시제인 ㄴ에서는 ‘-겠-’이나 ‘-(으)리-’을 써서 ‘있겠다’나 ‘있으리라’로, 과거 시제인 ㄷ에서는 ‘-았-’/‘-었-’을 써서 ‘있었다’로 고친다.

평가 기준	확인 ☒
ㄱ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사용, 선어말 어미는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현재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ㄴ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 사용, 선어말 어미는 ‘-겠-’이나 ‘-으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ㄷ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던’ 사용, 선어말 어미는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문장을 ‘-다.’로 끝나는 평서문 형태로 썼다.	☐

03 진행상은 보조 용언 ‘-고 있다’, ‘-아 가다/-어 가다’, 연결 어미 ‘-(으)면서’를 쓴다.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 있다/-어 있다’, ‘-아 버리다/-어 버리다’, 연결 어미 ‘-고서’를 쓴다. 따라서 ‘-아 버리다’를 쓴 ③은 완료상, 나머지는 진행상이다.

-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 ‘-어 가다’를 쓴 진행상이다.
②, ⑤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쓴 진행상이다.
④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한 진행상이다.

04 간접 인용으로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원래 문장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한다.

- 오답 풀이** ① 간접 인용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고, 직접 인용은 ‘라고’를 붙인다.
③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절 앞뒤에 큰따옴표를 표시하고 조사 ‘라고’를 붙이며, 원래의 형식과 내용은 유지한다.
⑤ 직접 인용절에서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또는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꿀 때에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05 ‘불·휘’는 ‘ㅣ’ 모음 뒤이기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홍·배’의 ‘배’는 ‘ㅌ’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시·미’, ‘·말·ㅅ·미’, ‘·ㅍ·ㅅ·ㅅ·성·이’ 등에서 보듯 자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나 모음이나에 따라 주격 조사 ‘이’나 ‘ㅣ’가 쓰이고,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기·폰’, ‘부·루·매’, ‘·말·ㅅ·미’ 등에서 보듯 이어적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자 옆에 있는 점은 점이 없거나, 점을 하나나 두 개를 찍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다.
③ 중세 국어의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사용하는 8종 성법이 원칙이었다.
⑤ ‘부·루·매’, ‘·하·ㅅ·니’, ‘·ㅅ·무·래’에서 보듯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06 <보기>는 어두 자음군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ㅍ·들’의 ‘ㅍ’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에 속한다. 어두 자음군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발음되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에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 음운상의 특징 때문에 된소리 ‘ㅍ, ㅃ, ㅆ, ㅈ’으로 변했다.

07 ㉠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고, ㉡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이동한 경우로, 둘 다 어휘의 의미가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똥다’의 의미는 유지되되, 형태가 변하여 ‘쫄다’가 된 것이고, 중세 국어의 ‘쫄다’는 사라진 예이다. 따라서 형태가 변한 것이지 의미가 변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대 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열매’를 의미하는 ‘여름’은 사라지고, ‘너름’의 형태가 변하여 ‘여름’이 되었다. 따라서 형태가 변한 것이지 의미가 변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받·주·온’은 ‘받-+-줍-(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온’의 구성으로, 15세기에는 ‘받·주·븐’으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에는 ‘받’이 소실되어 ‘받·주·온’으로 표기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되었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높임 선어말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② ‘孔·공·지’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공자께서’이다. ‘공지’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이지, ‘께서’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굴·우·사·디’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말씀하시기를’이다. ‘굴·+-우·사·+-오디’에서 ‘시’와 ‘오’가 줄어서 ‘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격식체는 ‘하심시오체’(아주 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하게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 낮춤)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오체’(두루 높임), ‘해체’(두루 낮춤)로 나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쇼셔’, ‘-라’ 등과 같은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09 『동국정운』식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시하여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의 ‘孔·공·지’, ‘曾·중·지·즈’, ‘父·부·모·모’ 등은 중성 표기가 없어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므로 이는 현실음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16세기 작품인 (나)에서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모습이 보인다. 그 예로 ‘비·르·소·미·오’를 보면 음성 모음인 ‘ㅡ’ 다음에 음성 모음인 ‘ㅜ’가 쓰인 ‘-움’이 아니라 양성 모음인 ‘ㅛ’가 쓰인 ‘-움’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② ‘굴·우·사·디’, ‘·몸·이·며 열굴·이·며 머·리·털·이·며’, ‘일·출·을’, ‘무·춤·이·나·라’ 등에서 보듯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③ 글자 옆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오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을 ‘孔·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다)의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며,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습관적으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정리는 적절하지 않다.

11 ‘뵈다’는 ‘뵈어’ 또는 ‘뵈’가 되므로 그 뒤에 보조사 ‘요’가 붙을 때에는 ‘뵈어요’나 ‘뵈요’의 형태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여간’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
③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아-’를 잘못 넣어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목매다’를 ‘목매이다’로, “해매다”를 ‘해매이다’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④ 어미 ‘-(으)ㄹ걸, -(으)ㄹ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할게’로 적어야 한다.
⑤ ‘잠궂다’는 ‘잠궂-+-았-+-다’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므로 ‘잠궂다’로 적어야 한다. 준말이 ‘잠궂다’가 되려면 ‘잠궂-+-았-+-다’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잠궂다’는 ‘잠궂다’의 잘못이다.

8. 한국 문학의 빛깔

(1) 시조 두 수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273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1 (가)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을 잘라 내어,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임이 없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기다리던 임이 온다는 소식에 마중을 나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02 (가)에서 ‘동지스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므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유나 직유 같은 비유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동지스들 기나긴 밤’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각 장은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② ‘기나긴 밤’을 임이 없는 밤에는 ‘서리서리 너털다가’, 임이 온 밤에는 ‘구뽀구뽀 퍼리리’라고 하여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추상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를 잘라 내거나 이불 아래 넣어 두었다가 여러 굵이로 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서리서리’, ‘구뽀구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이와 같은 순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03 (나)는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임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곰비늬늬 늬늬늬’,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 ‘위령충창’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설의법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른다. (나)에는 질문의 방식이 쓰인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의인법은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나)에 제시된 사물 중 인간처럼 표현된 것은 없다.

④ (나)에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확히 어떤 계절 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웃음을 유발하는 시조의 내용으로 보아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에서는 화자가 중문 지나 대문을 지나 건너편 산에 보이는 주추리 삼대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즉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는 드러나지 않는다.

04 (나)의 화자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이 오는지 바라

본 것은 맞지만,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은 아니다. 화자는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서 임이 오는지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건너편 산을 바라보다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그리로 뛰어가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74~275쪽

01 ①

02 ②

03 ④

04 주추리 삼대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③

0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의 화자는 임이 오면 넣어 두었던 동짓날 밤을 길게 펴 임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에 허둥지둥 서두르며 마중 나갈 정도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 둘 다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은 나타나지만, 임에 대한 비탄이나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는 둘 다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가)에서는 임이 오는 날 밤을 길게 하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는 나와 있으나, 임과 정확히 때를 정하여 약속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에는 현재 임과 이별했다는 상황만 나타날 뿐, 임과 이별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임이 없는 현실을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와 (나)의 화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나)는 사실시조로 주 작자층이 중인이거나 평민이어서 실제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사랑과 정, 부정적인 현실 비판 등의 삶의 진솔한 문제를 드러내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기녀인 ‘황진이’가 지은 평시조이고, (나)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사실시조이다.

③ (가)에 비해 (나)의 초장과 중장은 길이가 길어져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가)의 종장 첫 음보는 ‘어른 님’으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고, (나)의 종장 첫 음보 역시 ‘모쳐라’의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⑤ (가)와 (나)는 외형률이 나타나는 정형시이다. 평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났고, 조선 후기에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사실시조가 나타났다. 사실시조는 양반을 비롯하여 중인, 평민 계층에서 향유되었다.

[참고 자료] 연시조

시조는 평시조, 연시조, 사실시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자	양반 사대부 계층이 심화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평시조를 엮어 부름
주제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이나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로 평시조와 유사함
형식	2수 이상의 평시조를 하나의 주제로 엮었으며 각 수가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됨



03 ‘어론 남’은 정든 임이라는 의미이다. (가)의 화자가 황진이라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어론 남’은 ‘이사중’이라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긴 겨울밤의 시간을 비축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동지·소독 기나긴 밤’이다.

② ‘기나긴 밤’은 임이 없기에 더 길게 느껴지는 밤이다. 그래서 이 밤을 잘라 내고 싶은 것이다.

③ ‘춘풍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가리키는 말로, 황진이의 거처에 있는 것이다.

⑤ ‘님 오신 날 밤’은 황진이와 임이 만난 기쁜 날로, 화자가 길이를 길게 늘리고 싶은 밤이다.

04 (나)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여서 그렇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즉, 주추리 삼대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05 화자는 밤이라서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며 낙천적인 사고관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겹언쩍어 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추상적인 시간 개념인 ‘밤’의 허리를 자른다고 표현한 것에서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이 없는 밤을 잘라 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잘라서 넣어 두었던 동짓달의 긴 밤을 임이 오신 날 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임과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

③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이 오는지 보러 가는 화자의 행동에서, 임이 오기도 전에 들뜬 화자의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나타내어 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06 (나)는 초가에 있는 화자가 ‘달’과 ‘초가’를 바라보는 근경에서, 초가를 둘러싼 ‘강산’을 바라보는 원경으로 시야가 확장되고 있다. 즉,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화자의 움직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추상적인 시간인 ‘밤’을 잘라 넣어 두었다가 펴겠다는 독특한 발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 역시 자연물인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에서는 ‘곰비늠비 늠비늠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는 기녀인 황진이의 작품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나)는 양반 사대부인 송순의 작품으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즉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하고 있다.

⑤ (나)는 평시조로 초창, 중창, 종창의 기본 형식을 지키고 있는 반면, (다)는 사설시조로 초창과 중창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07 (가)는 기녀인 황진이의 시조로 섬세하고 우아한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는 청자를 어떤 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리라’와 같이 화자의 다짐이 느껴지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임이 없는 ‘동지·소독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임이 오는 밤에 굶이굽이 펴 것이라며 임과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화자가 ‘십 년을 경영’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소망대로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가 ‘초가삼간’을 지은 곳은 강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므로 화자가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연을 단순히 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방을 한 칸씩 나눠 가지며 살 정도로 자연 속에 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황진이’의 시조로 여성 화자의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이 느껴지고, (나)는 ‘송순’의 시조로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풍류가 나타난다.

08 화자가 ‘강산’을 들이지 않는 것은 화자의 초가가 매우 작아 들여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강산’ 역시 ‘달’, ‘청풍’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즐기는 자연물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집을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초려삼간’은 세 칸짜리 초가를 이르므로, 아주 소박한 집이며 이는 욕심 없는 청빈한 생활을 보여 준다.

③ 화자는 초가집의 세 칸 중 한 칸은 ‘달’에게 주고, 한 칸은 ‘청풍’에게 준다고 하였으므로 ‘달’과 ‘청풍’은 화자가 함께 지내고 싶은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⑤ 화자가 자연물인 ‘강산’을 둘러 두고 보는 것은 강산을 병풍처럼 인식한 것으로 자연과 동화되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09 ㉠의 ‘즌 댜 댜 큰 댜 굴희지 말고’는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이다. ‘진 데’는 땅이 질척질척한 곳을 이르고, ‘마른 데’는 땅이 젓지 않아 말라 있는 곳을 이른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76~27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은 화자와 임이 재회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08 ㉢

01 (가)에서는 동짓날 밤 임의 부재에 따른 화자의 외로움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에서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화자의 애절한 정서가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이상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세계를 이른다. (다)에서는 '미타찰'이라는 공간을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가)와 (나)에는 이러한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자연 친화적인 자세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른다. (가)~(다) 모두 자연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③ (가)~(다)의 화자는 모두 현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안타까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은 (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와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에 나타난 '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화자가 만일 늬이 보았으면 민망했을 텐데 밤이라서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때 쓰인 표현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추상적인 시간인 '밤'은 자를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이지만 한 가운데를 자를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은 사실은 '주추리 삼대'인데, 화자는 오히려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하고 있다.
- ④ '예'는 화자가 있는 곳이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승을 가리킨다.
- ⑤ '떨어질 앞'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시어이다. 이를 통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 (다)는 향가이다.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의 시가는 고대 가요로, (가)~(다)와 같은 갈래는 고대 가요와 달리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고대 가요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 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일컫는다. 고대 가요에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하가' 같은 작품이 있다.

04 초장과 중장에서는 임이 온다는 소식에 화자가 중문과 대문을 지나 건너편 산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지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당시 평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5 <보기>에는 '성안에 담 → 담 안에 집 → 집 안에 두지 → 두지 안에 궤'와 같이 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주추리 삼대'도 화자가 임인 줄로 착각한 대상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중장에서는 임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얹치락뒤치락 허둥지둥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주고 있다. <보기>에서도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주고 있다.
- ③ <보기>의 화자는 한 해 열두 달 한 달 서른 날이라는 수많은 날 중에서 자신을 보러 올 하루도 없느냐며 임을 책망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성 안에 담 → 담 안에 집 → 집 안에 두지 → 두지 안에 궤 → 궤 안에 너'처럼 연결되는 연쇄법과 과장법, 또한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 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는 점강법이 사용되었다.

⑤ (나)에 사용된 '워령총창'은 '우당탕탕'이라는 의성어로, 잘 울리는 바닥에 무엇이 몹시 요란스럽게 떨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뛰는 소리를 나타낸다.

06 [D]는 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누이가 죽어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또한 <보기>에서 월명사는 누이가 무사히 극락세계로 갔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A]는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다는 말로 누이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 ② [B]에서 '나'는 누이로 [B]는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묻다 이르'고에서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C]의 '이른 바람'은 누이의 죽음이 요절임을 알려 준다. [C]는 누이를 '떨어질 앞'에 비유하여, 요절한 누이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E]의 '도 닭아 기다리겠노라'에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참고 자료】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해제: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승려였던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49재를 지내던 중 이 향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한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향가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

07 서술형 ㉠은 화자가 기다리던 임이 오는 시간으로 화자와 임이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화자는 이 시간이 오면 이불 아래 넣어 둔 '밤'을 여러 굵이로 찢어 놓는다고 하였다. ㉡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중에서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정토를 가리키는데, 화자와 죽은 누이가 재회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대상과의 '재회'라는 공통점을 밝혀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8 (나)는 ㉠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앞부분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남이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고 있고, (다)는 ㉡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누이의 죽음으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지만, ㉡은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은 '마침'이라는 부사어로, 종장 전체를 꾸며 주기는 하지만 주제를 집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역시 감탄사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은 앞에서 심화되었던 고뇌와 슬픔의 탄식이 집약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특별히 화자의 정서가 고조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과 ㉡은 둘 다 화자가 독백체로 하는 말로 특정한 청자나 독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다.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❶ 281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④
❷ 283쪽	05 ⑤	06 ④	07 ④	08 ㉠은 소극적 사랑을 의미하고, ㉡은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❸ 285쪽	09 ①	10 ②	11 ①	12 ④

01 「속미인곡」의 갈래는 가사이다. 가사는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3·4(4·4)조, 4음보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정격 가사의 경우 마지막 행은 평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조선 후기에는 마지막 행이 평시조의 종장과 일치하지 않고 길이가 길어진 변격 가사가 많이 창작되었다.

오답 풀이 ② 3단 구성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향찰로 기록된 것은 향가이다.

③ 3장 6구 4음보의 율격을 기본형으로 하며, 종장의 첫 구절이 3음절인 것은 시조이다.

④ 몇 개의 절 또는 연으로 나뉘는 분절체로, 3음보의 율격에 후렴구가 있는 것은 고려 가요이다.

⑤ 자연 발생하여 전해지는 구전 가요로 대개 후렴구가 있고 3음보 또는 4음보인 것은 민요이다.

02 계절에 따른 사상의 전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사’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는 실제로 계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임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속미인곡」의 갈래는 가사로 4음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속미인곡」은 ‘여인 1’과 ‘여인 2’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④ 「속미인곡」은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이 세 편(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뿐이다.’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대부분 우리말로 표현된 「속미인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⑤ 「속미인곡」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D]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은 이미 조물주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라며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가 [C]에서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D]의 첫부분에서도 하늘이나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도 ④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여인 1’이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혼대이고’라고 말하자 [B]에서 ‘여인 2’가 ‘여와 네여이고’라고 답하는 것을 통해 ‘여인 1’은 ‘여인 2’와 서로 알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에서 어찌 백옥경을 이별하고 누구를 보러 가느냐고 묻는 것을 통해 ‘여인 1’이 ‘여인 2’에게 임과 이별한 이유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여인 2’는 ‘수설 드러 보오’라고 말함으로써 하소연을 시작하고

있으며,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훈가마는’이라고 하여 임의 사랑이 과분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여인 2’는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허시니’라고 하여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⑤ [E]에서 ‘여인 2’는 임이 ‘편후실 적 몇 날일고’라고 하며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천(秋日冬天)’을 어떻게 지내는지,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와’ ‘가나긴 밤의 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04 ㉠은 ‘여인 2’가 이별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죄가 산같이 쌓였다고 직유법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물인 강물이 말이 없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어린이를 어른의 스승이라고 한 것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나 그 안에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잘 되면 제 탓과’ ‘못 되면 조상 탓’이 형식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고, 내용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⑤ 지각을 했다는 사실을 비꼬는 표현으로,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05 「속미인곡」은 ‘여인 1’과 ‘여인 2’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여인 1’은 ‘여인 2’에게 질문과 위로를 하며 작품의 전개를 유도하는 보조적 화자이며, ‘여인 2’는 ‘여인 1’의 질문에 응하여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 화자이다. 따라서 ‘여인 2’가 작가인 정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여인 1’은 작가인 정철에게 질문이나 위로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물이다. ‘여인 1’과 중심 화자인 ‘여인 2’는 둘 다 작가인 정철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화자와 이별한 ‘임’이 임금을 가리킨다.

06 여성 화자를 설정하면 정서를 더욱 섬세하고 간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게서 멀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속미인곡」은 대부분 우리말로 표현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②, ⑤ 주로 강한 어조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적 어조보다는 남성적 어조를 통해서이다.

③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 명의 화자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여성 화자라도 「속미인곡」처럼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체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진달래꽃」이나 「가시리」처럼 독백체로 구성할 수도 있다.

07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하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을 의미한다. 화자는 임에게로 가고자 노력하지만 방해되는 요인으로 인해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남아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빈 비’로, 임이 없는 쓸쓸한 마음을 ‘반벽청등’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8 서술형 ㉠ ‘낙월’은 임을 멀리서 비칠 뿐이지만, ㉡ ‘구준비’는 오래도록 내리며 직접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다. 따라서 ㉠ ‘낙월’보다 ㉡ ‘구준비’가 더 적극적인 애정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소극적 애정관과 적극적 애정관의 비교가 잘 드러나게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9 이 시에서는 진달래꽃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진달래꽃을 의인화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어에서도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하여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이 시에서는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진달래꽃’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진달래꽃’은 임이 가시는 길에 뿌려져 임에게 밟히는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이 시는 진달래꽃의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11 공간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에서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이 시는 2연에서 진달래꽃의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지만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 ‘산화공덕(散花功德)’은 불교 용어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길을 영화롭게 축복한다는 뜻이다. ㉢ 역시 임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 그 길을 축원한다는 뜻이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86~289쪽

- 01 ④ 02 ㉠, ㉡ 오면된 계성 03 ② 04 ④
 05 ① 06 ④ 07 ⑤ 08 ① 09 체념 10 ②
 11 ⑤ 12 진달래꽃, ㉢는 ‘권 씨’의 분신으로 ‘권 씨’를 상징한다. ‘진달래꽃’ 역시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13 ⑤
 14 ①

01 역설적 표현은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시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역설적 표현의 예로는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들 수 있다.

70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① 가사는 보통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사 역시 (가)~(나)는 서사, (다)~(마)는 본사, (바)는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 가사는 보조적 화자인 ‘여인 1’과 중심 화자인 ‘여인 2’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화자가 임과 헤어진 이유를 나타내는 (나)에서 과거에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구(낙구)의 글자 수는 평시조의 글자 수와 유사하게 배열되어 있다.

02 (마)에서 ‘꿈’은 화자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오면된 계성’은 날이 셀 무렵에 우는 닭의 소리 혹은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로 해석하는데, 화자의 잠을 깨워 꿈속에서조차 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기능한다.

03 ‘지는 죄’는 화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임과 이별했다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기>에서 ‘선조’는 ‘정철’의 말이 곧고 바르기 때문에 동인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두둔하였다. ‘선조’가 ‘정철’의 바른 말 때문에 정철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네로다 녀기실시’는 ‘너로다 여기심에’라는 의미이므로, 앞의 내용인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과 <보기>의 내용을 볼 때, ‘정철’이 ‘선조’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임’은 임금, 즉 ‘선조’를 가리키고, ‘각시’인 화자는 ‘정철’ 자신을 가리킨다.

④ ‘구름’과 ‘안개’는 화자가 ‘일월’을 볼 수 없게 하는 존재이므로, ‘정철’을 비판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일월’은 임금, 즉 ‘선조’를 가리킨다.

⑤ ‘벽옥경’은 임금이 계신 곳인 한양을 가리킨다. 화자가 ‘벽옥경’과 이별하였다고 했으므로, ‘정철’이 탄핵을 받아 한양에서 떠났음을 알 수 있다.

04 (라)에서 임을 보기 위해 ‘높은 뒀’에 올라갔다가 ‘물 7’에 갔다가 하는 등 바쁘게 돌아다녔던 화자는 (마)에서 지쳐서 잠깐 쉼잠을 들게 되고,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여인 1’이 이별한 이유를 묻자, (나)에서 ‘여인 2’가 자신이 지은 죄가 많으며 자책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조물주의 탓이라며 이별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② (다)에서는 ‘여인 2’가 임이 봄추위 여름 더위를 어떻게 지내며, 가을철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지를 들며 임을 걱정하고 있다.

③ (라)에서 화자는 임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해 ‘높은 뒀’에 올라가기도 하고 뱃길을 알아 보려 ‘물 7’에 가기도 하나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⑤ (바)에서 ‘여인 2’가 죽어서 ‘낙월’이라도 되어 임 계신 곳을 비추고 싶다고 하자, ‘여인 1’은 ‘구준비’가 되라며 조언하고 있다.

05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은 모두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사미인곡」은 여인의 독백체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고, 이후에 창작된 「속미인곡」은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해제: 임과 헤어진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가사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정철이 임금에 대한 충절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로, 우리말 구사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연군지정)

06 ㉔은 ‘오르며 내리며 해매며 서성대니’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바쁘게 임의 소식을 들으려 돌아다니는 화자는 힘이 다해 풋잡을 자게 된다.

07 ㉔ ‘낙월’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멀리서 임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다. ㉔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㉔와 ㉔는 둘 다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② ㉔와 ㉔ 둘 다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소재로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㉔는 멀리서 임을 바라보는 대상이며 ㉔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다.

④ ㉔와 ㉔는 둘 다 화자가 죽어서 된 대상으로 임을 직접 찾아가는 소재이므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

08 (가)의 3연에서는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이별을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의 1연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가시리 가시리잇고’와 같은 시어의 반복, 여음 ‘나논’의 반복, 후렴구 ‘위 증즐가 대평성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는 각 연의 끝에서 ‘~우리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둘 다 여성 화자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④ (가)는 이별의 정한을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고, (나)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⑤ (가)는 ‘가시리/가시리/잇고’처럼 3·3·2조의 3음보이고, (나)는 ‘나 보기/가/여겨워/가실 때에는’처럼 7·5조,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09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이별을 담담한 자세로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0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일부 작품은 궁중 음악의 가사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즉 일반 평민 계층이 주 작자층이었으므로 실제 작자를 알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고려 가요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통해 평민들의 소박한 삶과 꾸밈없는 생활 감정을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③ 고려 가요는 3음보의 분연체로 되어 있으며 후렴구를 사용하여 음악적 경쾌함을 살렸다.

④ 고려 가요는 문자를 모르던 일반 평민들이 주 작자층이었기 때문에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어 정착되었다.

⑤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주 작자층으로 이들이 담아내는 정서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삶의 애환 등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글로 정착될 때 당시 지배층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하여 고려 가요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11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땡땡’, ‘우당탕’ 같은 말을 가리킨다. ‘걸음걸음’은 ‘걸음을 걸을 적마다’를 나타내는 부사로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작품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1, 3, 4연의 1행은 7글자, 2행은 5글자, 3행은 7글자와 5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7·5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1연은 ‘드리우리다’, 2연은 ‘뿌리우리다’, 4연은 ‘흘리우리다’로 ‘~우리다’가 반복되고 있다.

③ 1연을 4연에서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 서술형 <보기>를 통해 ‘권 씨’가 구두를 매우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권 씨’가 신고 나간 한 켤레의 구두는 ‘권 씨’를 상징한다. ‘진달래꽃’ 역시 화자가 임을 축복하기 위해 뿌려준 것으로 화자를 상징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서 ‘진달래꽃’을 찾아 썼다.	☐
㉔와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13 ‘진달래꽃’에는 떠나려는 임과 떠나 보내지 않으려는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을 잡지 못하고 이별의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임을 붙잡고 싶으며 임이 제발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별에 대한 슬픔과 이를 참겠다는 감정이 모두 담긴 것으로 이 감정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한(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자신을 떠나려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임에 대한 원망과 자책이 충돌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므로 체념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미련을 버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꽃을 뿌리는 행위는 임에 대한 축복일 뿐, 원망의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라는 것은 자기희생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몰라주는 임과의 갈등은 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14 ㉔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후렴구로 ‘위’는 감탄사, ‘증즐가’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뜻이 없으므로 빠져도 시상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후렴구가 작품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은, 고려 가요가 민요로 불리다가 나중에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측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떠나는 임을 잡으면 다시는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어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설은 남’의 주체를 임으로 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되어, 임 역시 이별을 슬퍼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주체를 화자로 보면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이 되어, 임이 화자를 떠난 상황으로 해석된다.

④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화자가 추측하는 이별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아니'와 '눈물'의 어순을 바꾸어 의지를 강조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90~291쪽

01 ③ 02 (가)와 (나)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나타낸다.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1 수미 상관은 시가의 첫 연의 내용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나)는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반복하여 시에 안정감을 주고 음악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가사로 4음보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하고, (나)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② (가)는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여인 2'의 처지를 드러내고, (나)는 독백체로 시적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④ (나)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반어법이 사용되어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낙월'과 '구조비'가 화자 '여인 2'의 분신이라 할 수 있으며, (나)에서는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02 **서술형** (가)와 (나)는 둘 다 실제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과의 이별에서 느껴지는 애절한 정서를 절절하게 그려 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여성 화자라는 공통점을 썼다.	☐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바르게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3 '어옛튼 그림재'만 화자를 쫓는 것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가 옛날과 달라져 외로운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금의 은혜가 신하가 머물러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의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천(秋日冬天)'을 염려하고 있다. 화자와 임의 관계를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본다면 이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걱정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알기 위해 '놈픈 뉘'와 '물 7'를 헤매는 것을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볼 때, 신하가 임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놈픈 뉘'에 올라가나 구름과 안개로 인해 '일월(日月)'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이를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볼 때 '일월'은 임금임을 알 수 있고, 지상의 공간에는 신하가, 천상의 공간에는 임금이 있는 것이므로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독수공방하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는 임금과 이별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를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하고 있는 여인으로 바꾸어 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04 ①은 꿈속에서나마 임과 만나고 있는 화자를 깨움으로써 임과 화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이다. ②와 ③은 '높픈 뉘'에 올라간 화자가 '일월' 즉, 임금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소재이고, ④와 ⑤는 화자가 강가에 가서 뱃길을 보려 해도 이를 방해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⑥, ⑦ '낙월'과 '구조비'는 둘 다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대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낙월'이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인 대상이라면, '구조비'는 직접적으로 임의 옷깃을 적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상이다.

05 (나)에서 슬픔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임에게 자신이 뿌린 진달래꽃을 밟으며 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상황만으로 임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 보기가 역겨워'는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이별의 원인이며, 가시는 것의 주체는 임이므로 이 시구는 화자의 슬픔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체념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③ 꽃을 뿌리는 것은 '산화공덕(散花功德)' 사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가시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임과의 이별로 슬프지만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것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보기>에서 말하는 슬픔을 내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보기>의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는 고려 가요이다.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해 인고(忍苦)의 자세를 드러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보기>의 화자는 서경을 사랑하지만 임께서 사랑만 해 주신다면 길쌈 베를 버리고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질삼뵈'를 통해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으며, 떠나간 임을 따르겠다는 태도 역시 여성 화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나) 역시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통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인 점을 통해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여성임을 알 수 있다.

② 음악성이 있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보기>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ㄹ, ㅇ'음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서경(西京)'이라는 지명을 밝히고 있고, (나)에서는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이라는 지명을 밝혀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는 '가실 때에는'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보기>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해제: '서경'은 고려 시대 때 지명이고, '별곡'은 보통 한글로 기록된 고려 가요를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은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주제: 이별의 정한

• <보기> 부분의 현대어 풀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 님은 데 작은 서울 사랑할 만도 하지만 / 여의 기보다는 길쌈 베 버리고 / 사랑하신다면 울어곰 쫓아옵니다.

(3) 허생전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① 295쪽	01 ④	02 ①	03 ④
② 297쪽	04 ③	05 ⑤	06 빈 섹
③ 299쪽	07 ④	08 ④	09 ④
④ 301쪽	10 ④	11 ④	12 ⑤
⑤ 303쪽	13 ④	14 이중적	15 ③
⑥ 305쪽	16 ②	17 ⑤	
⑦ 307쪽	18 ④	19 ⑤	20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된다. /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한다.

01 '변 씨'는 만 냥을 빌려 달라는 '허생'의 당당한 태도에 당장 만 냥을 내준다. 그리고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의 말을 통해, '변 씨'가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허생'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만 냥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처'가 '허생'에게 '변 씨'를 소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허생'은 과거를 보기 위해 글을 읽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변 씨'는 '허생'의 초라한 행색에 놀라지 않은 채 대범하게 돈을 빌려준다.

⑤ '허생'과 '허생의 처'의 대화를 통해 '허생'이 장인바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본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밀천이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허생'이 사대부의 신분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허생'은 십 년을 기약하고 과거에도 뜻을 두지 않고 독서를 하며 독서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독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허생의 처'는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라고 하며, 뒤이어 장인바치 일과 장사는 하지 못하냐고 묻고 있으므로, 글 읽기는 실생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허생'은 십 년을 목표로 글 읽기를 하다 '허생의 처'의 구박에 못 이겨 칠 년 만에 운중가로 나선다. 즉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알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㉔을 통해 '허생'이 사교성이 없어 평소 주변 사람과의 교류를 꺼려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허생'은 처음 보는 사람인 '변 씨'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돈을 빌리는 대범한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독서를 하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허생의 처'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②, ③ '허생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허생'에게 '과거'를 보든가, '장인바치 일'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

라고 구박하는 것을 통해 '허생의 처'가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는 실용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허생'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⑤ '변 씨'에게 돈을 빌리러 간 '허생'의 외양만 보고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은 '거지'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생'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4 '전개 1-㉔'은 '허생'이 '변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 큰돈을 버는 장면이다. '허생'의 매점매석으로 조선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과일과 말총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만 냥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통해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② '허생'이 과일을 몽땅 사들인 후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상인은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과일을 사가게 된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이 제사와 같은 의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과일과 말총은 제사를 지내고 의복을 갖춰 입을 때 꼭 필요한 양반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허생'이 매점매석한 것이다.

⑤ '허생'이 매점매석한 '과일'과 '말총'이 다시 유통되지 못하고 가격이 열 배로 오르는 것을 통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물건을 다시 조달하여 집결할 수 없는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허생'이 독점한 과일과 말총의 의미

'허생'이 시장에서 굳이 과일과 말총을 사들인 것은 조선이 양반 사회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지배층으로 행사하는 양반에게는 명예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번듯한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다. 또 양반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머리에 망건을 두르고, 망건 위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야 했다. 망건, 탕건, 갓의 주 재료가 말총이다. 결국 과일과 말총은 조선 시대 양반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허생'이 이러한 물건들을 매점매석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05 '만 냥'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허생'의 장사 밑천(①)이자 사건을 전개하는 매개체(②)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만 냥'으로 쉽게 큰돈을 벌었으므로 이는 '허생'이 이인(異人)임을 드러내면서도(③)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보여 준다(④). 그러나 이 글에서 '허생'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빈 섬'으로 가려 하고 있으므로 조선에 머문다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허생'은 거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사대부로 남아 있다.

06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벌고 난 후, '늙은 사공'을 찾아가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느냐고 묻는다. 이 '빈 섬'은 '허생'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험적 공간이다.

07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매점매석의 상행위는 '허생'이 '빈 섬'에 오기 전에 했던 행위이다.

08 [A]에는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에 들어가서 당시의 조선 사회와는 다른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약적 제시를 통해 서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09 ㉔에서 ‘허생’이 ‘군도’들에게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 것은 돈이 없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재물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군도가 수천 명이나 우글거리는 것은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② ㉔에서 조정에서는 군사를 징발하여 군도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군도를 토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㉔에서 도둑은 땅과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도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도둑이 된 원인은 피폐한 경제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⑤ ㉔에서 군도들은 ‘허생’을 ‘장군’이라 부르는데, 이는 큰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허생’이 지키는 것을 보고 그가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10 ‘허생’은 빈 섬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듯 작가는 지배층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허생’이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빈 섬에서 문자를 만들려 했으나 이는 빈 섬의 문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에 새로운 문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허생’이 빈 섬에서 나오며 돈 오십만냥을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보아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큰돈이 필요함을 드러내려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허생’은 빈 섬에서 군도들을 데리고 들어가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는 등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유훈자적인 삶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허생’은 땅이 좁고 턱이 없어 빈 섬을 떠난다고 하였지만 이는 섬의 한계일 뿐, 조선의 땅이 좁아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11 ‘허생’은 ‘빈 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허생’이 말한 ‘조그만 시험’이란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自給自足)①, 해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②, 군도들의 교화⑤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③.

12 ㉔을 통해 ‘허생’이 스스로를 장사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 읽기에 있지 결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큰돈을 번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예의범절은 가르치지 않고 ‘장유유서(長幼有序)’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예의범절보다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섬에서 나오면서 다른 배들을 모두 불태우고 가는 이가 없다면 오는 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 세계의 영향이 섬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백만 냥’이 유통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글을 아는 사람을 섬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화근’을 없앤다고 한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 화근이라는 뜻이므로, 당시 식자층이었던 집권층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3 ‘허생’이 자신이 큰돈을 번 과정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변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와 유통 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후세에 당국자들이 자신과 같은 매점매석의 방법을 쓴다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대부들도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변 씨’가 가져온 십만 냥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거절하고, 최소한의 양식과 옷 정도만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생’은 개인의 경제적 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번 돈으로 도적들을 양인으로 만들고, 섬에서 생산한 양식으로 돈을 벌고 빈민을 구휼한다. 또한 나라 안을 두루 다니며 빈민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빈민 구제를 위해 국가의 경제적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이 ‘변 씨’에게 최소한의 양식과 옷을 부탁하면서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재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허생’이 ‘변 씨’가 가져 온 재물을 보고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허생’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사대부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며 장사치를 무시하고, 재물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처럼 ‘허생’은 재물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허생’은 돈을 나누어 열 가지 물건을 사게 되면 단위가 작아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허생’은 이와 달리 만 냥을 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여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매점매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한 가지 물종이 한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요,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를 통해 알 수 있다.

16 '이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당시 집권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허생'이 제안하는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이완'의 모습을 통해 명분만 앞세우는 당시 집권층의 무능함(ㄹ)과 북벌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ㄱ). 또한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ㄴ '이완'은 집권층을 대변하는 존재로 명분을 이유로 들어 '허생'이 제안하는 계책을 모두 거절하고 있을 뿐, '허생'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국정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7 '이완'은 [A]에 해당하는 '허생'의 첫 번째 계책을 듣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뒤,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한다. 이에 '허생'은 '이완'의 간청에 못 이겨 [B]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책을 제안한다. 즉 [A]와 [B]는 서로 다른 계책이므로, [B]가 [A]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허생'은 "내가 와룡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숨어 있는 인재가 많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인재 등용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A]에서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는 인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③ [B]에서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한 대우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B]에서 조정 종실(宗室)의 딸들을 명나라 망명객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 명나라 망명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명의 망명객을 우대함으로써 당시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허생'의 '세 가지 계책' 중에서 두 번째 계책의 내용은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제안한 계책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② 두 번째 계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첫 번째 계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세 번째 계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9 '이완'은 '허생'에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허생'이 제안한 계책이 국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 집권층의 허위의식 때문이다.

20 서술형 이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허생'의 잠적으로 인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유보된 채 종결된다. 이는 '허생'의 비범함과 이인(異人)으로서의 행적을 보다 신비롭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이며,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된다는 내용을 썼다.	☐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내용을 썼다.	☐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한다는 내용을 썼다.	☐
결말 처리 방식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08~311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⑤

01 이 글은 '허생'과 '허생의 처'의 대화, 집을 나가 '변 씨'의 집에 찾아가는 '허생'의 행동, 당당하게 돈을 빌리는 '허생'과 대범하게 돈을 빌려주는 '변 씨'의 행동, 매점매석을 하는 '허생'의 행동 등을 통해 각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인물	한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 혹은 한 시대나 한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나타남
사건	막연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에서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함
주제	주로 행복한 결말이 나타나며,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주제로 함
구성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평면적 구성'이나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남

02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은 '허생'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며 '변 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아해한다. 하지만 '변 씨'는 '허생'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므로, '허생'을 시험해 보려 한다는 것과,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냐고 말한다. 따라서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채는 이는 '변 씨'이다.

오답 풀이 ① 만 냥을 빌려 달라는 '허생'의 부탁에 '변 씨'는 "그러시오."라고 하며 당장 만 냥을 내준다.

② 돈을 빌리러 온 '허생'에 대해 '변 씨'는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허생'은 당당한 태도로 '변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은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 도둑질이라도 못 하느냐는 아내의 구박에 독서를 그만두고 '변 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

④ '허생의 처'는 '허생'에게 글을 공부하여 과거를 볼 것이 아니면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는 못 하느냐고 한다. 이는 선비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03 ㉠ ‘안성’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매점매석하기 위해 이동한 공간이다. 따라서 ‘허생’은 ㉡ ‘변 씨’의 집에서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 ‘안성’으로 이동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 ‘목적골’에서 ㉢ ‘운중가’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으며, ‘변 씨’와 안면이 있지 않다.

② ‘허생’은 ㉡ ‘변 씨’의 집에 가는 목적인 돈을 빌리기 위해 ㉢ ‘운중가’에서 어떤 준비를 한 것은 아니다.

③ ‘허생’은 ㉡ ‘변 씨’의 집에서 돈을 빌릴 때 그저 당당하게 말했을 뿐, ㉠ ‘목적골’에서 공부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④ ‘허생’이 ㉡ ‘변 씨’의 집에서 ㉠ ‘안성’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 ‘목적골’에 들르거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안성이 삼남의 길목이며, 안성에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치는 것을 언급한 것은 ‘허생’이 안성에서 매점매석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각 지역 사람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주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라는 말에서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있다.

② 과일을 열 배의 값을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잔치나 제사 때문이므로 잔치나 제사에 몰두하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이 매점매석한 ‘과일’과 ‘말총’이 다시 유통되지 못하고 가격이 열 배로 오르는 것을 통해 조선 사회가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물건을 다시 조달하여 집결할 수 없는 열악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오른 것을 통해 의관과 걸치레를 중시하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05 ‘변 씨’는 ‘허생’의 말과 행동을 보고 ‘허생’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아채고 선뜻 만 냥을 빌려준다. 이처럼 절차를 따지지 않는 ‘변 씨’의 모습에 자제와 손들은 의아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당시 사회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허생’의 처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과거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선비가 목표로 삼는 일임을 알 수 있다.

④, ⑤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모조리 사들이자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허생’은 말총을 사들이고는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일과 말총이 양반들에게 필요한 품목이며, 양반들이 제사와 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6 ㉠에는 ‘허생’의 초라한 행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은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라는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폐포파립(敝袍破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기세등등(氣勢騰騰)’은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② ‘누란지세(累卵之勢)’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아연失色(嗒然失色)’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을 뜻하는 말이다.

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처럼 됨’을 이르는 말이다.

07 ‘허생’은 (나)에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허생’이 처음 섬에 들어올 때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홍길동’은 ‘율도국을 공략하여 왕위를 쟁취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가난과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 사회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 사회를 건설할 생각으로 율도국을 정벌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도적들을 교화하여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으며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홍길동’ 역시 사회의 모순에 반발하고 도둑들의 과수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후 섬으로 들어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

② ‘허생’은 삼 년 간 빈 섬을 다스리고 난 후 섬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 ‘홍길동’은 율도국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였다.

③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번 돈으로 군도들의 정착을 돕게 되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반면 <보기>의 ‘홍길동’은 ‘각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찾아가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였다.

⑤ ‘허생’은 ‘장기도’와의 해외 무역을 하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며, <보기>의 ‘홍길동’은 왕위를 쟁취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여 가난과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였으므로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참고 자료] 허균, 「홍길동전」

- 해제: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능력이 뛰어나지만 재상이 서얼로 태어난 탓에 천대를 받던 홍길동이, 집을 나와 활빈당이라는 집단을 결성하여 관아와 해인사 따위를 습격하다가 율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회 제도의 결함, 특히 적서 차별(嫡庶差別)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지은 사회 소설이다.
-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 개혁과 이상 사회 건설

08 ‘허생’은 장기도와 해외 무역을 통해 흉년이 든 그 지방을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허생’이 해외 무역을 통해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간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못해 도둑이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생’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엄격한 법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허생’은 섬의 ‘군도들’에게 최소한의 유교적 예절인 ‘장유유서(長幼有

序)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학을 통한 왕도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허생’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은연중에 드러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허생’은 스스로를 장사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며,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 읽기에 있지 결코 돈에 있지 않다. 따라서 장사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허생’의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라)에서 ‘허생’은 자신의 상행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만 가지 중에 하나를 독점해서 이익을 보는 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점매석은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편 ‘허생’은 열 가지 물건을 사서 아홉 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보는 것은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허생’이 사용한 매점매석의 방법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라고 하여, 자신의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화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② ‘허생’은 첫 번째는 과일, 두 번째는 말총을 독점하였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아 이익을 취했다. 즉 ‘허생’은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하였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을 한 것이다.

③ <보기>에서는 매점매석이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고 했고, ‘허생’은 매점매석의 방법을 사용하면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되고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는 병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⑤ ‘허생’은 매점매석을 하면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했고 <보기>에서는 매점매석을 하게 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허생’이 한 매점매석에 의해 장사치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참고 자료] 「허생전」이 쓰인 조선 후기의 상업의 모습

매점매석은 허생이 처음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상인들이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조선시대에 상업은 시전(市廛)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정한 세금을 바친 상인들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가게를 열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상점을 시전이라 불렀다. 시전에는 다양한 점포가 있었는데 허생이 매점매석을 했던 과일과 망건을 파는 과일전, 망건전도 있었다. 시전 상인은 세금을 내는 공식 상인이었던 만큼 각지의 상품 유통권을 장악하였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품은 일단 시전 상인의 손을 거친 후에만 판매될 수 있었다. 시전 상인들의 상행위는 그 자체가 매점매석이었던 셈이다.

10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으로 표현하며 모두 섬에서 내보낸다. 이는 당대 지식인(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된 채 실리를 외면하고 명분만 따지며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312~313쪽

01 ④ **02 ①** **03 ②** **04 ‘변오기’와 ‘무령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신성인하며 실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물들과 달리 사대부는 명분만 중시하여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허생’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05 ⑤** **06 ⑤**

01 이 글에서 ‘허생’은 나라를 위한 계책을 요구하는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완’은 이를 실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대부로서의 명분에만 얽매어 세 가지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완’이 세 번째 계책을 거절했을 때 ‘허생’은 결국 크게 화를 내며 집권층을 비판하고, 심지어 칼을 찾아서 ‘이완’을 찌르려 한다. 따라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허생’과 ‘이완’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서술자의 개입이나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허생’과 ‘이완’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고전 소설에서 전기성이란 비현실적이거나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글에서는 ‘허생’과 ‘이완’의 대화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기성을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사건이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허생’과 ‘이완’의 대화는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에서 ‘허생’은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는데, ‘이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허생’의 계책을 모두 거절한다. 이에 ‘허생’은 예법이라는 명분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 또한 이와 같은 비판 정신을 오늘날에도 적용하여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한 실용적 태도를 가져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허생’은 유교적인 예법만을 중요시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유교적인 예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유교 문화 정립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허생’은 당시 명나라 유민을 출대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오늘날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④ 당시에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아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에 ‘허생’이 인재를 천거하겠으니 임금이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겠냐고 한 것이다. 즉, ‘허생’은 당시 능력이 있던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므로 올바른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 ‘허생’은 명분만을 추구하며 실리를 소홀히 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당시 실리만을 추구하느라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니다.

03 (다)에서 ‘허생’은 자신이 제안한 모든 계책을 거절하는 ‘이완’의 태도를 크게 꾸짖고 있다. ‘허생’은 실리적인 면은 등한시하고 명분만 좇는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허생’이 내놓은 세 가지 계책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허생’이 계책을 내놓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린 '변오기'와 '무령왕'이라는 역사적 인물들을 내세워, 명분만을 중시하는 '이완' 및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③ '허생'은 자신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실행하기 어렵다고만 하는 '이완'의 무능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허생'은 '이완'에게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라고 말하며 고작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는 것이냐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⑤ '허생'은 '변오기'의 머리카락과 '무령왕'의 옷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완'이 말한 '예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댜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04 서술형 (다)에서 '허생'은 "변오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변오기'와 '무령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던 인물로, '허생'은 이와 비교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을 말하면서도 유교적 예법이라는 명분은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변오기'와 '무령왕'이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던 인물들임을 썼다.	☐
'허생'은 사대부가 명분만 중시하여 무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썼다.	☐

05 '허생'이 제안한 세 가지 계책 중 ㉠은 인재 등용 문제 비판, ㉡는 명의 망명객 우대와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 폐지, ㉢는 청과의 교류 및 문물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모두 현실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이 갈수록 비현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이완'의 거부 의사가 확고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동문서답(東問西答)'은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의미하는 말이다. ㉠에서 '이완'은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이유로 들어 '허생'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을 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방약무인(傍若無人)'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허생'은 '이 대장'이 들어왔음에도 움츠리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심사숙고(深思熟考)'는 '깊이 잘 생각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허생'의 제안을 들은 '이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가)에서 '허생'은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

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옛 은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말하며, '허생'은 명나라 장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의미한다. '허생'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정을 정탐하면서 추후에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본문 314~318쪽

대단원 정리 문제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08 ①	09 ③	10 ③		
11 ②	12 만냥	13 ⑤	14 ④	15 ③	

01 (라)는 현대 시로,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자유시이다. 한편 (다)의 갈래는 가사로 4음보의 연속체이며 시조에 비해 긴 형식의 노래이다. 또한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형식상 (라)가 (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1연과 4연에서 나타나는 수미상관은 (라) 작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갈래는 평시조이다. 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서정 문학이다. 시조의 기본 형태는 평시조로, 평시조는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화된 형식을 기본 형으로 한다.

② (나)의 갈래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변형으로, 종장의 첫 마디가 세 글자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장의 어느 마디든지 마음껏 길어질 수 있으며, 그 길이에 제한이 없듯이 정해진 통일성도 없다는 점이 형식적 특징이다.

③ (다)의 갈래는 가사이다. 가사는 시조가 성행한 시기인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다. 가사는 길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조보다 길이가 길고, 율격은 4음보로 시조와 동일하다.

⑤ (리)는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요조의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가)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평시조와 사설시조

	평시조	사설시조
작자층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	중인, 평민 등이 주로 창작
형태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	평시조의 3장 중 어느 장이 길어짐

02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다.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라)가 아니라 (다)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와 '워렁충창'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여인 1'과 '여인 2'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라)는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나)의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에 '지방(地方)' 위에 앉아 기다리다 임의 모습인 듯한 모습이 보이자 버선과 신발을 벗어 들고 건너편 산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다)의 화자 역시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눅픈 뒹'에 올라가고, '물?'에 가서 뱃길을 알아보는 등 임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할 뿐,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③ (다)의 화자는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라고 하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라)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할 뿐,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④ (나)와 (다)에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 (라)의 이별의 상황은 화자가 가정된 상황이며,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이별의 아픔을 참고 인내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가)~(다)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라)의 화자는 아직 임과 이별한 것이 아니며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슬픔을 인내하며 임을 축복하며 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다.

04 (나)의 '밤'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달려간 남을 웃길 뻔한 자신의 실수를 가려 주는 시간을 의미하고, (다)의 '밤'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극대화되어 꿈을 통해 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을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화자가 상대적으로 길게 느끼고 있다.

② (가)의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화자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끼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지만, 밤이 기에 이러한 실수를 남이 보지 못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④ (다)의 '밤'은 화자가 임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시간으로 임에 대한 외로움이 극대화되며, 이후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05 <보기>의 화자는 창 밖에 어른어른 비치는 것을 임이라 착각하고 펄쩍 뛰어 급히 나가보지만, 그것은 임이 아닌 '달빛에 널 구름'이었으며 이러한 실수를 남이 보지 못하기에, 낮이 아니라 밤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가의 발상과 전개 과정이 (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현상의 측면에서도 (나)에는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가, <보기>에는 '어른어른', '펄쩍'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가, <보기>의 화자는 '달빛에 널 구름'이 임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여 뛰어나가고 있다.

③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종장에서 만약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하였다고 남이 보지 못하는 밤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건넌 산(山)'이라고 하여 임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임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나)는 임을 만나러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을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으며, <보기> 또한 '펄쩍 뛰어' 등으로 과장된 표현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C]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이때 '옥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누웠구나'라는 것은 임의 얼굴이 늘어 보인다는 화자의 말이다. 즉 화자와 함께 있을 때는 옥과 같았던 임의 얼굴이 화자와 헤어져 있을 때 늘어났다는 뜻으로, 늘어 버린 화자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이 아니다.

07 (라)에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른 반어적 시구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8 '허생'은 '변 씨'에게서 만 냥을 빌리자 안성으로 내려가 과일을 독점하여 열 배의 이익을 남긴다. 이는 매점매석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만 냥으로 하나의 물품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조선의 경제 규모가 취약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빈 섬'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글을 아는 자들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학문을 왜곡하여 양민들의 삶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화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는 양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 계층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③ 명나라 유민이 조선으로 이동해 온 것은 조선이 예전 임진왜란 때 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온 것이지만 명나라 유민에 대한 정책이 잘 갖추어져 조선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허생'은 두 번째 계책에서 명나라 유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며, 명나라 유민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허생'은 세 번째 계책에서 청나라에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⑤ '이완'은 사대부의 예법을 지키느라 '허생'의 세 가지 계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대부를 중심으로 의복과 의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허생'이 빈 섬을 경영하는 것은 가족 단위를 근간으로 하는 농경 사회로서의 이상 사회 건설을 시험하는 것으로, '허생'은 식자층이지만 당시 집권층이 해결하지 못했던 군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 사회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명분만 중시하고 경험이 없는 식자층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매점매석의 방법으로 큰돈을 벌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의 경제 구조를 걱정하는 비판적 시각도 보이고 있으므로 작가는 이와 같은 방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② '허생'이 매점매석의 방법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서는 유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를 비판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허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책에서 인재 등용의 문제와 훈척 권귀의 기득권 제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⑤ '허생'은 세 번째 계책에서 청나라와 문물 교류를 통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하며, 무능한 지배층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허생'이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이라고 하며 데리고 나오는 것은 글을 아는 자들은 학문을 왜곡하여 양민들의 삶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무능한 지배층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三南)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허생'은 과일을 매점매석하기 위해 안성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허생'은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해와 무역을 시도한다. 그 후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고 말한다. 이처럼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④ 당시 양반들이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베풀은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다. 과일 값이 열 배로 오르는 모습은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군도들이 먹고살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11 '허생'은 (라)의 세 번째 계책에서,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청나라와 전략적 교류를 하며 기회를 노리다가 후에 명나라를 위해 복수를 하자는 의미이다. '저 땅의 호걸들'은 조선의 호걸이 아니며, '허생'의 말에서 청나라를 정벌하고 조선의 영토를 넓히려는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두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③, ④ '허생'의 '첫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⑤ '허생'의 '세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12 '허생'은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과일을 모두 사들이고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파는 매점매석을 통해 돈을 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밀천으로 삼아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 이렇듯 '만 냥'은 '허생'이 이인(異人)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13 (가)와 (나)에는 모두 여성 화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은 정철이 지은 「속미인곡」처럼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계열의 작품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나 보기가 역겨워'와 (나)의 '날리는 엇디 살라' 후고에 화자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② (가)는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나)는 '가시리 / 가시리 / 잇고'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움을 절실하게 노래하는 이별의 정한(情恨)을 주제로 삼고 있다.

④ (가)의 1~4연과 (나)의 1~4연은 각각의 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한 작품 안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면 형식 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참고 자료]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로 사회적 관계인 '충(忠)'을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남성인 화자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서의」 「정과정」,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작품이 있다.

14 (가)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아니'가 '눈물'의 앞에 놓여 도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일 뿐, 화자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종결 어미 '-우리다'를 1, 2, 4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자연물인 '진달래꽃'을 화자의 분신으로 나타내고, 임이 진달래꽃을 밟고 가도록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⑤ 4연에서 표면적으로는 임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이면적으로는 임이 떠날 때 눈물이 나고 슬프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반어법을 통해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15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 작품은 평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화자일 뿐, 평민 여성 작가가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는 처음에 민간에서 유행하였고 하였다. 또한 (나)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에는 본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위 중추가 대평성대(太平盛代)'라는 후렴구가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노래의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으로, 고려 가요의 내용적 특징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⑤ (나)는 여러 연으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에는 한 연으로 구성된 작품도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가시리

- 해제: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사랑하는 임을 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목 '가시리'는 '가시리잇고'의 준말로 떠나는 임에게 정말로 '가시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❶ 323쪽	01 ④	02 ⑤	03 ④	04 노동 비용을 줄여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❷ 325쪽	05 ③	06 ④	07 최신 유행하는 옷을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 열렬히 호응한다.	08 ⑤
❸ 327쪽	09 ④	10 ⑤	11 ④	12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

01 '서론-❶'에서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패스트패션(fast fashion)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또는 패션 사업을 뜻하는 말이다.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처럼, 빠르게 제작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02 '본론 1-❶'에 제시된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점점 내려간 것이고, '본론 1-❷'에 제시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옷 출시 기간이 줄어들어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이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다.

03 ㉠에서는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옷 구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하여 현대인들의 옷 소비가 증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04 서술형 '본론 1-❶'에서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을 만들 때 노동력의 비중이 크므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의류 업체가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05 '본론 2-❸'에서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 디자인에는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특성상 원작 디자이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본론 2-❸'에서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고 하였다.
 ② '본론 2-❹'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고 하였다.
 ④ '본론 2-❷'에서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⑤ '본론 2-❷'에서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6 '본론 2-❹'에서 한 해 생산되는 의류 중 4분의 3이 버려지고, 버려지는 옷과 직물의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옷들이 타지 않아 해양에 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본론 2-❶'을 보면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싸 가격으로 파는 것은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전략에 열렬하게 호응하고 있으며, 의류 업체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소비자가 열렬히 호응한다는 반응을 썼다.	☐
소비자가 그와 같이 반응한 이유를 썼다.	☐

08 쉬운 옷 소비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열렬히 호응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비자가 너무 빠른 유행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은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의류 업체의 사업 전략이 가진 부정적 영향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디자인 도용과 환경 오염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9 '결론-❸'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공정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가격이 비싼 옷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② '결론-❶'에서 의류 업체는 이유를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여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③ '결론-❹'에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결론-❷'에서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본론 2-⑥'에서,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로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11 이 글에서는 유행에 따른 과도한 옷 소비를 비판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옷을 구매할 때 유행에 맞는지, 가격이 저렴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이 글의 '결론'에서 옷이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내가 입을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⑤)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③)고 하였다. 또한 옷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①)고 하였다. 그리고 옷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②).

12 글쓴이는 '결론-④'에서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작은 선택이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28~329쪽

- 01 ③ 02 ① 03 •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내려감
•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유행이 반영된 옷이 빠르게 출시됨
04 ② 05 ④ 06 ④ 07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 따져 본 후 옷을 구매하는 것이다.

01 이 글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라)에 제시된 그린피스 2016년 보도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옷 소비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 즉 (다)에서 디자인 도용 문제, (라)에서 환경 오염 문제, (마)에서 노동력 착취 문제를 제시한 후 (바)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④ (마)에서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 또는 속도 경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02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공감하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의 내용을 유연한 사고로 바라보고 배경지식이나 이전에 읽은 책의 내용을 살려 자신

의 관점에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글을 읽으면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03 **서술형** 이 글의 (가)와 (나)에서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내려간 것을, (나)에서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옷의 출시 기간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저렴해졌음을 썼다.	☐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유행을 반영한 옷이 빠르게 생산됨을 썼다.	☐

04 (바)의 내용을 참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 있다.

05 (라)에서 버려지는 옷과 직물의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천연 섬유인 면화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지만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잃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③ (라)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많은 의류 업체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 업체는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06 나. (라)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를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년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지는 버려지는 의류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리. (마)에 따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의류 업체로 인해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리. (바)에 따르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우리가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류 업체가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발당하여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의류 업체의 디자인 도용 여부를 조사하여 고발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ㄴ. 이 글에서는 개발 도상국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바)의 내용으로 볼 때, 글쓴이는 번거롭더라도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본 후, 이와 같은 정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으로 과도한 옷 소비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제시한 옷 소비 방법을 썼다.	☐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330~331쪽

01 ③ 02 ② 03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도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

04 ② 05 ②

01 이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드러내는 논설문(주장하는 글)이다. 논설문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증명함으로써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쓴다. 때문에 논설문의 문체는 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글쓴이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체를 살펴보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방법이다.

02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와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 (다)~(마)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바)는 해결 방안이다. 의류 업체들이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복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다)의 내용인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의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라)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며, 의류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마)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며,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한 부분이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다)를 통해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

자하지 않으며,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A사는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다)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이유로 ○○○ 씨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다.	☐
디자인을 도용하여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크다는 내용을 썼다.	☐

04 이 글에 비춰 볼 때, <보기>에서 개발 도상국이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드는 것은 싸고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이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축구공을 싼값에 생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 기간이 단축될지는 <보기>나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였고, (마)에서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최소한으로 준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파키스탄 공장의 노동자들은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 회사의 축구공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비자의 의류 불매 운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심화 학습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이미 (마)에서 개발 도상국인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바)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②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디자이너의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와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은 심화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업체가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였고, (마)에서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 집약 산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산업의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재는 그 기간이 훨씬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의류 제작 기간이 6개월인 업체와 2주인 업체의 이익을 비교해 보고, 의류 제작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도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❶ 335쪽 01 ③ 02 ⑤
 ❷ 337쪽 03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04 ③ 05 ②
 ❸ 339쪽 06 ⑤ 07 ④ 08 ① 09 ④

01 ㉠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다. '반대 1'은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이기 때문에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론을 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휴대 전화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④ 찬성 측의 의견이다.

⑤ '반대 2'는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라고 하였으나, 휴대 전화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찬성 1'의 의견이다.

02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이에 대해 논증을 구성하게 된다. '찬성 1'은 ㉡와 같이 휴대 전화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1'은 ㉢와 같이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스스로 이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보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루는 필수 쟁점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03 서술형 '찬성 2'와 '반대 2'는 입론에서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답화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휴대 전화를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하게 썼다.	☐

04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 순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상대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찬성 2'가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사회자가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듣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05 '반대 2'는 '찬성 2'가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유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물으며 반대 신문을 하자,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입론의 근거로 제시하여 이에 답변하였다. 이처럼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6 반론은 상대측에서 제시한 주장, 근거, 사례 그리고 주장과 근거 간의 연결 고리 등에서 허점과 오류를 찾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측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의 내용이 아니다.

07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요약하여 말해 준다. 또한 토론의 배경과 규칙을 설명하고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자들이 규칙을 어길 때 이를 제지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회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밝혀서는 안 된다.

08 '찬성 1'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사용 물품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찬성 2'는 반론에서 휴대 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지 말고 휴대 전화를 학습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09 토론에서 토론자가 제시하는 사례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사례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공정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②, ⑤ 타당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③ 신뢰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참고 자료] 토론의 평가 기준

신뢰성	제시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
타당성	근거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치에 부합하는가?
공정성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고 도리에 맞는 내용이며, 사실이나 가치 판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가?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40~343쪽

01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토론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발언해야 하는데, '반대 1'은 상대측의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상대측의 발언을 방해하였다. **09** ④ **10** ③

01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필수 쟁점이다. 논제에 대해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고, 휴대 전화 규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의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며, 청소년은 절제력이 부족해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썼다.	☐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쟁점을 썼다.	☐

02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질문을 통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들겠습니다.”와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토론의 절차에 따라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토론 참여자에게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논제와 관련한 사건을 밝히고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반대 1’은 입론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과 성인의 휴대 전화 중독률을 비교하고,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전년에 비해 3.7퍼센트 증가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대 1’은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이 과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1’의 입론에는 토론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찬성 1’은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했을 때의 장점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상황을 보여 줄 뿐이다.
- ③ ‘반대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④ ‘반대 1’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휴대 전화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04 [B]에서 ‘찬성 1’은 “이미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논제와 관련한 실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여 상대측 주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의 목적

- 요점을 명확히 한다.
- 주요 논쟁점을 설정한다.
- 상대의 시인이나 용인을 얻어 낸다.
- 상대의 오류, 특히 논리적 오류를 드러낸다.
- 청중에게 자신의 날카로운 비판력과 분석력을 보여 준다.

05 찬성 측은 상당수의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이를 논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찬성 2’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실제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신이 주장한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반대 신문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이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찬성 측의 주장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④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휴대 전화가 유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며 찬성 측이 주장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학습보다는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07 ‘찬성 2’는 입론과 반대 신문에 대한 답에서,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의 여러 기능이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와 실제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이미 제시하였다.

- 오답 풀이** ② ‘찬성 2’는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였다. 이 블로그 주소를 출처로 정확히 밝히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③ ‘반대 1’은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④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 ‘반대 2’는 이러한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반대 2’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 화면을 금방 넘겨 버리는 모습과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 등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의 이러한 휴대 전화 사용 양상으로 볼 때, 휴대 전화가 학습보다는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8 서술형 [A]에서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말하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면 말을 해야 함에도 '반대 1'은 상대측의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상대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론에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해야 함에도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음을 썼다.	☐
상대측의 발언을 방해했음을 썼다.	☐

09 '반대 2'는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반대 2'가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간접적인 소통과 직접적인 소통의 특성을 대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글은 토론의 절차 중 '반론'에 해당한다. 반론에서 토론자들은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허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②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③ '찬성 1'은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관객이 스스로 휴대 전화를 끄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다른 상황에 비유하여 학생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마지막 발언에서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 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10 '찬성 1'은 '반대 1'이 반론에서 제시한 내용 중,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라고 하며 반대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으며,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며 '반대 1'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1'은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을 언급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반대 1'이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반대 2'는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청소년은 직접 소통보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간접 소통에 익숙하다는 청소년의 소통 실태를 제시하여,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반대 2'가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하자,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하며 반박하고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344~345쪽

01 반대 신문식 토론 **02** ③ **03** ⑤ **04** ② **05**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보기>의 설명과 이 토론의 내용을 볼 때, 이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신문에서 질문자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어 질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토론을 진행한다. 질문 과정을 통해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2 '㉠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라는 필수 쟁점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의 근거이다.

03 '반대 1'은 자신이 제시한 자료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2015년 발표한 조사 내용이라고 출처를 밝혔으므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현황을 '상당수'라고 모호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찬성 1'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반대 2'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다.

④ '반대 1'은 학교의 성격을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성격을 본질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토론자의 올바른 태도

- 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토론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참여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04 <보기>는 휴대 전화를 조회 시간에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 중학교의 규정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즉,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찬성 측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보기>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규칙을 정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자는 찬성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05 서술형 [A]는 '찬성 1'의 반대 신문으로, '찬성 1'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 1'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입론에서 '반대 1'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해 교내에서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과, 부족한 절제력과 판단력을 근거로 들었다.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썼다.	☐

본문 346~348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찬성 2'가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활용한다.
06 ④ 07 ⑤

01 (가)와 (나)는 옷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문제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 역시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② (나)는 문제 상황으로 인해 디자인 도용이 발생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③ (다)는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대방에게 논제에 관한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토의이다.
④ (가)~(다) 모두 독자나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보기>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등록하지 못한 이유는 디자인 등록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비용을 낮추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창의성 제발과 도덕성의 회복이 디자인 도용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기>와 (나)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의 문제와 등록 제도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을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의류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이유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의류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한 이유는 그로 인한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보기>를 통해 디자인을 등록하는 데 한 점당 40만 원 정도가 들고, 신청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 소규모 디자인 업체는 따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03 '찬성 1'의 입론에 따르면, 상당수의 다른 학교에서도 휴대 전화, 즉 개인 소지품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찬성 2'는 '반대 2'의 입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신문에서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하며 상대방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 휴대 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나열하여 휴대 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2'는 입론에서 수학 시간, 과학 시간, 국어 시간에 각각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을 활용한 수업 활동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휴대 전화 화면을 볼 때 다음 화면으로 금방 넘겨 버리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인 휴대 전화 사용 습관을 상기시키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휴대 전화는 학습보다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휴대 전화의 주된 용도를 소개하고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지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5 서술형 <보기>에서 휴대 전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찬성 2'가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찬성 2'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썼다.	☐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썼다.	☐

06 토론을 하기 전에 필수 쟁점에 따른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면 효과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찬성 2'의 입론을 보면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2'는 입론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모든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 수업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④이다.

07 이 토론에서 '반대 1'은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며, 반대 신문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근거를 대지 않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 다른 토론자인 '반대 2'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 다른 토론자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시험 전에 풀어 보는 내신 적중 문제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 자화상

본문 350~351쪽

- ① 우물 ② 산문 ③ 한 사나이 ④ 추억
⑤ 가엾어짐 ⑥ 그리워짐 ⑦ 독자 ⑧ 구성 요소
⑨ 현실

- 01 ② 02 ⑤ 03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04 ② 05 ④ 06 ⑤

01 2연에서는 화자가 들여다보는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과 대조되는 풍경으로, 화자는 이를 들여다보면서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 따라서 우물 속 풍경을 통해 화자의 행복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는 '논가 외판 우물'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가만히 들여다'보는 화자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③ 3연에서는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되는 초라한 사나이가 소개되고, 그에 대한 화자의 미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④ 3연에서 미움의 정서를 보인 화자는 4연과 5연에서 연민과 미움, 그리움의 정서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⑤ 6연에서 화자는 '추억' 속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번갈아가며 느끼고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궁극적으로 자아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03 서술형 <보기>의 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담고 있다. 이 시의 '우물'과 <보기>의 '거울'은 화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준다. 이 시의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보기>의 화자가 거울을 닦는 것은 자아 성찰을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운동주, 「참회록」

이 시는 치욕스러운 역사와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자문자답(自問自答)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인 '밤'은 화자의 자기 성찰의 시간이면서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밤'에 '거울'을 닦는 모습은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04 <보기>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학 작품 감상의 관점 가운데 '현실'에 초점을 두어 해석한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작가의 창작 동기나 의도,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작가'에 초점을 둔 표현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③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④ '독자'에 초점을 둔 효용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절대론적 관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창작 의도와 창작 동기, 작가의 삶과 사상 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05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풍경'은 우물 속의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풍경 속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보며 자아 성찰을 하다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물 속 풍경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흔들리는 것을 나타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한 사나이'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보고 있다.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우물 속의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은 화자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과 대조적이다. 우물을 들여다보다 돌아가기를 거듭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던 화자는 마침내 마지막 연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본문 352~353쪽

- ① 독서 ② 청소년기 ③ 가치 ④ 안목
⑤ 간접 ⑥ 성숙 ⑦ 비늘 ⑧ 지평
⑨ 진로

- 01 ⑤ 02 ④ 03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1 (다)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②)과,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③)과,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

식을 창조하는 능력(①)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에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④)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인생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글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글에 과학적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문학 작품을 '상상의 집', 책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마)에서 편견을 '생각의 비늘'에 비유하고 있다.
 ② (가)와 (다)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정보 혁명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대조하여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투성이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여 책 읽기에 대해 독자들이 제기할 법한 반론을 의문문 형태로 제시하고 일리 있는 말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03 서술형 청소년들은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하여,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 때문이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4 ㉔의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 것 천지'의 것들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재미있고 하기 쉬운 일로, 책 읽기와 반대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는 편견이나 자만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소년기는 세상이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비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며 이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을 통해 그 모자람을 채워 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져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어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흩어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정보라 하였으므로 이는 의미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가 혼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④ (라)에서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으로,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05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은 뒤, 느낀 점과 알게 된 내용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흥미 위주로 책을 선정하는 것은 책을 읽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1) 매체를 읽는 눈

본문 354~355쪽

- ① 목념 ② 빈칸 ③ 반복 ④ 긍정적
 ⑤ 부정적 ⑥ 특성 ⑦ 비판적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1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다. (가)의 광고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수용자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신문 기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나)와 (다)의 신문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각적 자료인 내레이션을 활용하였다.
 ② 신문 기사는 디지털 매체나 인쇄 매체 등으로 전달된다.
 ④ 대체로 광고와 신문 기사 모두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한다.
 ⑤ 광고와 신문 기사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02 (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거나, 정보를 왜곡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적절한 평가이다.
 ② (가)의 영상 구성과 문구는 수용자의 흥미를 끌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③ 스마트폰 사용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 광고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한 평가이다.
 ⑤ 목념하는 모습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의 유사점을 활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목념'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하고 있고, (다)는 대학교 교수의 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미혼 요인보다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1990년대 1인 가구의 비중은 (다)에만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는 모두 인구 주택 총조사의 결과만 소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④ (나)에 통계청 관계자의 인터뷰가, (다)에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각 기관의 일원일 뿐이며 (나)와 (다)가 이들 기관의 입장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매체 자료에 반드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본문 356~357쪽

- ① 쓰기 윤리 ② 책임감 ③ 개인적 ④ 사회적
⑤ 출처 ⑥ 저작권 ⑦ 진실 ⑧ 권리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1 (다)에 따르면, 더 큰 감동을 이끌어 내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02 (가)에서 '윤서'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어긴 행동으로,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③, ④ '윤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가기 것인 양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⑤ (라)에서 '윤서'처럼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베끼는 행위는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03 <보기>의 '민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을 허락 없이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행동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라)를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윤서'의 사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② (나)는 글쓰기 윤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부분이다.

③ (다)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⑤ (마)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는 주제가 드러난 부분이다.

04 ㉠은 글을 쓸 때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윤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②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글을 진실하게 써야 하는 도리이므로, 남의 얘기나 상상한 내용을 거짓으로 표현한 ㉡은 이를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

③ 문맥의 의미로 볼 때,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⑤ (마)에서 문맥의 의미를 볼 때,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05 이 글은 글쓰기 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쓸 것을 말하고 있다. 글을 쓸 때에는 ③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하지만, 이는 이 글의 내용이나 글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글쓰기 윤리 서약서'와는 거리가 먼 항목이다.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본문 358~359쪽

- ① 공손성 ② 요령 ③ 최소화 ④ 최대화
⑤ 겸양 ⑥ 교대 ⑦ 목적 ⑧ 의사소통
⑨ 실수 ⑩ 효율성 ⑪ 차별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③ 06 ④

01 (가)에서 '찬우'의 말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이, '지호'의 말에는 겸양의 격률이 각각 나타나 있다. (나)에서 '지호'의 말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이 나타나 있다. 한편 (가)와 (나)에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인 관용의 격률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지호'는 같이 저녁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같이 저녁 먹으면 좋다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같이 못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03 <보기>에서 '유범'은 '규비'에게 부탁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태도를 보여 주며 색연필을 빌리고 있다. 그러나 '유범'이 '규비'를 칭찬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타인에게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ㄱ)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ㄷ).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표현(ㄹ)을 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ㄴ.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다름이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는 어렵다.

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05 밑줄 친 말은 '요리사'가 속한 요리 분야의 전문 용어이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특정한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문상(문화 상품권), 버정(버스 정류장), 열공(열심히 공부하다.)'과 같은 말은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06 '여의사', '여류 작가'와 같은 표현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으로, '의사', '작가'와 같이 고쳐 써야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살색'은 인종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살구색'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②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을 고치는 일을 실천하면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⑤ 지역 방언을 희화화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낸다.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1) 첫사랑

본문 360~361쪽

- ① 시간 ② 사랑 ③ 눈 ④ 눈꽃
⑤ 봄 ⑥ 첫사랑 ⑦ 성숙 ⑧ 눈
⑨ 첫사랑

-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황
홀 07 ② 08 ③

01 시인은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화자, 운율, 심상, 시어, 표현 방법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활용한다. 이 시에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으며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보았겠지’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짜그락’, ‘난분분’, ‘~겠지’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햇살 같은 마음’에서 직유법,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은유법, ‘눈’이 도전하고 두드리고 춤춘다는 표현에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④ 화자는 눈이 내려 눈꽃이 피고, 봄에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전체 4연으로 되어 있으며, 1연과 4연은 2행으로, 2연과 3연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시적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하나의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에 다른 심상을 섞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를 보면 ‘새파란 초승달’이 시각적 심상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시리다’를 더해 촉각적 심상을 섞어 넣고 있다.

02 이 시는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눈꽃을 피우고, 봄이 되어 이 눈꽃이 녹은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신적인 노력으로 이뤄 낸,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3 이 시는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시인은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동시에 인내와 현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피는 것이 ‘봄꽃’이듯이 ‘성숙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는 점을 통해 인내와 현신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 봄이 오면 사라지는 눈꽃에 대한 슬픔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이 시의 제목인 ‘첫사랑’은 이 시의 ‘눈꽃’이라는 시어에 대응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은 위태롭고 순간적이며, 일시적이고 아슬아슬한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준다(③, ④, ⑤). 또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역시 눈꽃, 즉 첫사랑을

의미하므로, 노력 끝에 이뤄 낸 첫사랑의 황홀한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②). 그러나 이 시에서 첫사랑의 냉정한 속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이 시에서 ‘텐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이 끝난 아픔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첫사랑의 아픔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성숙한 사랑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①에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이별’이 이와 유사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6 이 시에서 ‘눈꽃’을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 관념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이다. 이중 첫사랑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2음절의 시어는 ‘황홀’이다.

07 ㉠은 미끄러짐을 거듭하면서도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으려는 눈의 노력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에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현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시구의 함축적인 의미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겪는 수많은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의 존재나 이와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이 시에는 첫사랑의 실패(“그 한 번 텐 자리”)를 발판으로 성숙한 사랑(“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을 이루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한편 〈보기〉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여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데에는 시련과 고통이 수반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겪은 후에 성숙해지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보기〉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와 같이 의문문을 통해 설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 대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보기〉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 어디 있으랴’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시는 그러한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의 ‘바람’은 첫사랑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련을 나타내지만, 〈보기〉의 ‘줄기’는 흔들리면서 곧게 세우고 있는 것이므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도중환, 「흔들리며 피는 꽃」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조적, 긍정적, 서정적
어조	차분하고 담담함
제재	꽃, 사랑, 삶
주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
특징	• 반복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함 • 인생의 진리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본문 362~363쪽

- ① 관찰자 ② 소외 ③ 구두 ④ 자존심
⑤ 수술비 ⑥ 외적 ⑦ 거절 ⑧ 강도

01 ② 02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3 ④ 04 ⑤ 05 ③

01 (나)에서 '권 씨'는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뒤, 길을 내려가다가 돌아서면서 '나'에게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임을 밝힌다. 이는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뒤에 '권 씨'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질을 택한 것으로 보아 이 말은 위기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02 서술형 (가)에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나'는 거금에 해당하는 '십만 원 가까이'에 부담을 느끼며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음을 썼다.	☐
'나'가 겪는 갈등의 유형이 내적 갈등임을 썼다.	☐

03 '권 씨'가 부탁을 거절당한 후 자신의 구두를 바짓가랑이 뒤에 달는 것은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권 씨'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하는 행위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마)에서 '권 씨'가 세들어 사는 방에 가서 비어 있는 '한 켄레의 구두'를 보고 '권 씨'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
②, ③ 구두는 '권 씨'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며,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비어 있는 하나'는 '권 씨'가 신고 나간 구두로,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상징하며, 남겨진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는 '권 씨'의 부재를 상징하며, 비인간적인 산업화 사회 속에서 소외된 '권 씨'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한다.
⑤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인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가장 값나가는 세간이 있을 법한 자리에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을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은 '권 씨'가 그만큼 구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04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인 (마)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되고, '나'가 '권 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다)~(라)에서 '나'는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 씨'와 재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가 '권 씨'를 배려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권 씨'가 자신의 정체가 들쭉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권 씨'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05 (나)에서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하자 낭패스럽고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권 씨'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고학력의 지식인임을 밝혀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3] 결혼

본문 364~365쪽

- ① 소유 ② 관객석 ③ 물질 ④ 결혼
⑤ 빌린 ⑥ 관객 ⑦ 주제 ⑧ 덤
⑨ 시간

01 ⑤ 02 ③ 03 '하인'이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04 ② 05 ⑤

01 이 글의 주요 등장인물은 '남자'와 '여자'이며 보조적 인물은 '하인'이다. '하인'은 '남자'와 '여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강제로 회수해 가고 '남자'를 위협함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등장인물인 '남자'와 '여자', '하인'이 몇 개의 소품만을 활용하여 극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고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

② (나)~(다)에서 소유와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③, ④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등장인물인 '남자'가 직접 관객에게 물건을 빌렸다가 돌려주는 등 무대와 객석의 명확한 구분 없이 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한 일반적인 현대극과 다른 이극의 실험적인 특징이다.

02 '남자'는 (나)에서 나무가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돌려주고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과, 고양이와 시간이 되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글에서 '시간'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계가 주요 소품으로 등장하고, 등장인물 중 '하인'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간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소유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간이 지나면 '하인'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가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라)에서 '여자'는 '남자'가 사실은 빈털터리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남자'가 말하는 소유의 본질에 공감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05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이는 나무의 사례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4] 반통의 물

본문 366~367쪽

- ① 깨달음 ② 농사 ③ 병렬적 ④ 거리
⑤ 공존 ⑥ 생명 ⑦ 경험 ⑧ 개성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밭에서는 잡초를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 06 ⑤

01 이 글은 글쓴이가 농사를 짓는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는 내용의 현대 수필이다. 이 글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거나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농사를 지으며 밭을 일구고 물을 주었던 구체적 체험과 이 체험으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② 글쓴이가 밭에 난 풀을 뽑지 않았던 경험,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를 보았던 경험과 같은 짙막한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다.

③ 농사와 생명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⑤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달갑지 않은 침입자'라고 하거나 원래 언덕에 살던 풀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를 위해 물을 주는 모습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반통의 물'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3 <보기>는 푸성귀, 즉 식물을 키우는 데는 물과 같은 단순한 생태적 조건뿐 아니라 부지런히 밭을 오가며 식물을 돌보는 농부의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는 농작물을 부지런히 또 정성스럽게 돌봐야 함을 알 수 있다.

04 <보기>의 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과 속에서 원래 살던 벌레를 쫓아내고 죽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가 모두 수확을 위해 힘쓰는 농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인간이 사과 호미로 쫓아내는 원주민 풀들에 대해서, <보기>는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벌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③ (가)는 풀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며 사람을 '달갑지 않은 침입자'라고 하였고, <보기>는 '누가 사과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정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④ <보기>에서 사과와 벌레는 공존하는데, 이는 (가)의 숲에서 풀들이 공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사과와 공존하고 있는 벌레를 사람들이 쫓아낸 것은 (가)에서 밭이 생기기 전,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던 풀을 사람들이 사과 호미로 뽑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택, 「짧은 이야기」

사람들이 사과와 벌레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짓밟는다는 내용을 '사과'의 입장에서 노래한 시이다. 사람들의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05 서술형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라는 것은, 땅의 본래적 질서가 선택보다는 공존이라고 여기는 글쓴이의 판단 때문이다.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숲과 달리 밭에서는 잡초는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밭에서는 잡초를 뽑는다는 내용을 썼다.	☐
밭과 달리 숲은 생명이 공존한다는 내용을 썼다.	☐

06 ④ 김을 매는 것, ⑥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 ⑦ 침입자가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풀을 쫓아내는 것, ④ 채소가 자랄 수 있게 잡초를 뽑아 주는 것은 모두 잡초를 죽이는 반생명적인 행위이다. 이와 달리 ⑤는 잡초라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생명 존중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나머지와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

4.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의 변동

본문 368~369쪽

- ① 뜻 ② 환경 ③ 비음화 ④ ㄴ
⑤ 날로 ⑥ 형식 ⑦ ㅈ, ㅊ ⑧ 갈동
⑨ 축약 ⑩ ㅎ ⑪ 첨가

01 ①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⑤
07 ⑤ 08 ⑤ 09 '있었기'에는 [이썸끼예]로 발음된다. '엿'에서 음절 끝의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고, 이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으로 발음된다.

01 ④ '갈증(渴症)'은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ㄱ)에 해당한다. ⑤ '마실 것'은 [마실꺼슬]로 발음되며, '마실'의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것'의 'ㄱ'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ㄷ)에 해당한다.

02 '흔치'는 '흔하-'에 '-지'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ㅈ'이 탈락하여 '흔ㅎ-+지'의 형태로 결합하였고,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되어 최종적으로 [흔치]로 발음되었으며, 소리와 일치하도록 표기 또한 변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모두 'ㄷ'이 탈락한 경우이다.

④ 모음 'ㅏ'가 탈락한 경우이다.

03 <보기>에서 첫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된소리되기이며,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음화이다. '줄넘기[줄림끼]'는 앞 음절 '줄'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변하는 유음화가 일어났으며, 어간 '넘-'의 받침 'ㅁ'의 영향을 받아 '기'의 'ㄱ'이 'ㄱ'으로 변하는 된소리가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줄넘기'는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모두 일어난 단어이다.

04 ‘꺼’는 ‘ㄱ-+-어서’가 결합한 것으로,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써서’는 ‘쓰-+-어서’의 결합으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② ‘놓고’는 [노코]로 발음되며, 받침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었다.
 ④ ‘밤물’은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바뀌어 [밤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⑤ ‘갈등’은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교체되어 [갈똥]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05 ‘굳이’는 받침의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변화한 음운’ 항목에 ‘ㄷ → ㅈ’이 들어가야 한다.

06 ㉓는 ‘가-+-아라’가 결합된 것으로, 중복된 모음 ‘ㅏ’가 탈락하였고, ㉔는 ‘고프-+-아서’가 결합될 때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모음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㉓는 [버떡]으로 발음되며 자음이 축약되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㉔는 [학교]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② ㉓는 ‘ㅂ’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교체된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 자음에서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㉔는 중복된 ‘ㅏ’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으로, 모음에서 변동이 일어났다.
 ③, ④ ㉔는 된소리되기를 통해 음운이 교체된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고 탈락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㉓와 ㉔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07 ‘앞날’의 받침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인 ‘ㅂ’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이 ‘ㅂ’은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㉒에는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08 ‘맞는’은 받침 ‘ㅈ’이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이 ‘ㄷ’이 뒤에 연결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교체되므로 최종적으로 [만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ㅈ’이 음절 끝에서 ‘ㅈ’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09 **서술형** ‘있었기에’는 [이썸끼에]로 발음된다. ‘있’의 받침 ‘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 받침 ‘ㄷ’은 뒤에 오는 ‘ㄱ’을 된소리인 ‘ㄲ’으로 바뀌어 발음되게 만든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있었기에’의 정확한 발음을 썼다.	☐
어떤 음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양상을 정확히 썼다.	☐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2) 한글 맞춤법

본문 370~371쪽

- ① 소리 ② 어법 ③ 단어 ④ 어미
 ⑤ 사이시옷 ⑥ ㅏ, ㅑ ⑦ 까닭 ⑧ 두음 법칙
 ⑨ 조사 ⑩ 의존

- 01 ⑤ 02 ① 03 ‘내과’라고 써야 한다. 사이시옷은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하기 때문에, ‘내(內)’와 ‘과(科)’를 결합한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 않는다. 04 A:
 뒤야 B: 놓- C: -었-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만으로는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원칙이 추가로 존재한다. 또한 ‘각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 역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빠꾸기’는 의성어 ‘빠콧’의 원래 형태를 살리지 않고, 연음이 일어나 발음되는 대로 [빠꾸기]라고 적은 것이다.
 ② ‘꽃과, 꽃이, 꽃만’의 발음은 각각 [꼴꽈], [꼬치], [꼴만]인데, 발음대로 적지 않고 체언인 ‘꽃’과 조사 ‘과, 이, 만’을 구별하여 적은 것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③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문장의 의미가 ‘속이 상해요.’인지, ‘속이 상해요.’인지 알기 어렵다.
 ④ ‘소리대로’는 말 그대로 단어를 발음하는 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며,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02 ①의 ‘얹’은 어간 ‘알-’에 ‘-ㅁ’이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며, ‘곳곳이’는 명사 ‘곳곳’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다.

- 오답 풀이** ② ‘줄음’은 어간 ‘줄-’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되었고, ‘굳이’는 어간 ‘굳-’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둘 다 제19항의 예이다.
 ③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붙어 명사(또는 부사)가 되었고, ‘미닫이’는 어간 ‘미닫-’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둘 다 제19항의 예이다.
 ④ ‘집집이’는 명사 ‘집집’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며, ‘같이’는 어간 ‘갈-’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다.
 ⑤ ‘날날이’는 명사 ‘날날’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며, ‘달맞이’는 어간 ‘달맞-’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다.

03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서 ‘넋과’는 사이시옷을 제거하고 ‘내과’로 고쳐야 한다. ‘내과’는 한자어 ‘내(內)’와 한자어 ‘과(科)’의 결합이므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는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넋과’의 바른 표기는 ‘내과’임을 썼다.	☐
사이시옷은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받쳐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썼다.	☐

04 모음 ‘ㅜ’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면 ‘ㄹ’이 된다. 따라서 ‘두어야’의 준말은 ‘뒤야’이다(㉠).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1]에 따르면 ‘놓아’는 ‘놔’로 줄어든다(㉡). 어간이 ‘ㄹ’로 끝나는 말에 어미 ‘-었-’이 결합하면 ‘ㄷ’이 된다. 따라서 어간 ‘괴-’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는 ‘-었-’이다(㉢).

05 ④ ‘쏟아하다’는 [쏟아하다]로 발음되는데, 제5항에 따라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는 제13항을 고려하면, 앞글자 ‘쏟’을 따라 ‘쏟아하다’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깎두기[깎뚜기]’는 ‘ㄷ’이 ‘ㅌ’으로 바뀌어 된소리가 나타나지만,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의해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② ‘갑자기[갑짜기]’는 ‘ㄷ’이 ‘ㅌ’으로 바뀌어 된소리가 나타나지만,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눅눅하다’는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은 것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⑤ ‘뭉뚱그리다’는 받침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난 것이므로, 제5항의 ‘뚜렷한 꺾임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06 1-㉠과 2-㉡의 경우 앞 단어의 품사는 모두 명사(번, 대궐)로 같다. 다만 1-㉠의 ‘만’은 의존 명사, 2-㉡의 ‘만금’은 조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7 ③의 ‘도착할 지’는 어간 ‘도착하-’에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또한 ‘수▽가’의 경우, ‘가’는 조사이므로 앞말 ‘수’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며,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안’은 부사로, 뒤의 동사 ‘하다’를 꾸미는 경우이므로 ‘청소를 안 하면’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느커녕’은 보조사 ‘느’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로,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8 ④는 한자어 ‘등교(登校)’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발음은 [등교길] 혹은 [등곶길]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써서 ‘등곶길’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어미 ‘-(으)ㄹ걸, -(으)ㄹ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청소할게’가 맞는 표기이다.
 ②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어야 하므로 ‘잘하더라’가 맞는 표기이다.
 ③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⑤ 어간 ‘만들-’에 ‘-ㅁ’이 붙어 명사가 될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만듬]으로 소리나더라도 ‘만듬’으로 표기해야 한다.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본문 372~373쪽

- ① 뇌 ② 실험 ③ 무주의 맹시 ④ 선택
 ⑤ 포용 ⑥ 제목 ⑦ 밑줄 ⑧ 목적
 ⑨ 점검

01 ① 02 ② 03 ⑤ 04 ④ 05 ‘찬우’가 화장실을 찾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인 ‘수현’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 현상이 나타났다. 06 ②

01 이 글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라는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정의, 예시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가 낯선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수필, ③ 연구 보고서, ④ 전기문, ⑤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는 ‘무주의 맹시’라는 과학적 개념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연한 뒤’, ‘아버지의 늙은 모습을 본 날’ 등과 같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유, ③ 과정, ④ 분석, ⑤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03 이 글의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⑤와 같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4 글쓴이는 눈으로 물체를 보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낄 당혹스러운 감정을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정말 황당한 소리’라고 하면서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에 호응하고 있다.

05 서술형 제시된 상황에서는 ‘무주의 맹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주의 맹시’는 주의를 다른 곳을 향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찬우’는 화장실을 찾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대상인 ‘수현’이 눈앞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나타난 현상이 ‘무주의 맹시’임을 썼다.	☐
특정 대상(화장실)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상(수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썼다.	☐

06 〈보기〉의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 쓰고 있어서 나도 충분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어.’, ‘무주의 맹시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안 되었지.’라는 부분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터

넷으로 검색해 보고 나서야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라고 밝힌 부분을 통해서 <보기>를 쓴 학생은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해 가면서 읽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를 쓴 학생은 글의 제목을 보면서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을 예측하였고,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보기>에 드러난 읽기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의 제목을 보며 내용을 추측하고,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었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검색을 통해 보충하였으므로 읽기 목적에 적합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를 쓴 학생이 읽은 내용을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을 수행했는지는 <보기>에 드러나지 않았다.
- ⑤ <보기>를 쓴 학생은 '무주의 맹시'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고 하였다.

[2] 조선의 얼, 광화문

본문 374~375쪽

① 소제목	② 신문	③ 광화문	④ 조선 총독부	
⑤ 경복궁	⑥ 복원	⑦ 여론	⑧ 고별사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1 (다)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함을 드러내면서, 광화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광화문 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광화문 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라는 소제목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일제의 탄압으로 광화문을 비롯한 조선의 유물들이 겪은 수난을 다루고 있다.
- ②, ③ (나)는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와 그로 인해 형성된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④ (다)는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광화문 복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광화문을 '경복궁의 얼굴', '대한민국의 대표',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 등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광화문이 가지는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다시 재건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여 광화문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광화문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ㄷ).

- 오답 풀이** ㄱ.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분석의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ㄷ. 이 글에서는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특정 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03 (나)에서 광화문 철거 계획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을 때,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본인이 광화문 철거를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끝부분을 보면 '일왕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당시에 왕을 섬기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의 앞부분에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이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광화문이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 따르면 경복궁의 건물은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조선 총독부가 근정전과 광화문 사이에 위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가)에 따르면 일제가 광화문을 빼먹히게 비틀거나 국사당을 허물고 신사를 짓는 일들은 모두 조선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04 글을 읽고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읽기를 통해 형성한 자신의 관점을 학급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은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05 이 글에서 '광화문'은 민족의 역사이자 혼, 민족의 정기로 간주되고 있다. <보기>에서도 역시 '왕궁은 그 민족,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확인이자 상징'이며 '경복궁'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둘이 상징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글쓴이는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 민족에게 조선 총독부는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아니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왕가를 동경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보기>에 문화재를 반드시 원형대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 ⑤ 이 글의 '몇몇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광화문 철거에 반대하였다. <보기> 역시 민족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둘의 의견은 유사하다.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본문 376~377쪽

① 강당	② 참여자	③ 대안	④ 기능성
⑤ 조정	⑥ 양보	⑦ 합의	⑧ 공공성

01 ④ 02 사진 전시회를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이다. 03 ④ 04 ⑤ 05 ③

01 제시된 답화는 '협상'이다. 협상의 참여자들은 서로 주장이나 이익이 달라 갈등을 빚는 상태(⑤)이지만, 둘의 이익은 상호 의존적(①)이므로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상 참여자들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내고(③), 이를 책임지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②). 한편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토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토론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02 서술형 (가)에서 '상우'는 학교가 아닌 구청 강당에서 굳이 전시회를 열려는 이유에 대해 묻는 '구 공무원'에게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진 전시회가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상우'는 전시회 기간을 줄이는 대신 구청 측에서 전시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시회 기간이 줄면 관람객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점과, 학생인 자신들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들고 있다. 지역 주민 강연회가 구청 강당에서 실시되는 것을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상우'는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이라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절충안에 대해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구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상우네 동아리가 전시회를 통해 얻은 후원금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③ '상우'는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었음을 밝히며, 구청에서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줄 수 있다고 묻고 있다. 이는 전시회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⑤ (나)에서 '구 공무원'은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 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우'가 처음 요구한 4일 동안은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04 '상우'는 첫 발언에서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다.'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의를 갖추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05 (나)에서 '상우'의 발언에 따르면 상우네 동아리는 평일에는 방과 후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강당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구 공무원'의 발언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구청의 강당 대여 규정상 강당을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 그러므로 평일 및 토요일 10시까지 강당을 빌려 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상우'와 '구 공무원'은 각각 사진 동아리와 구청을 대표하여 전시회를 위한 구청 강당의 대여 여부를 안건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② '상우'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이라는 최종 합의된 강당 대여 날짜와 기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구 공무원'의 발언에서 상우네 동아리가 전시회를 통해 얻은 후원금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나)에 따르면 상우네 동아리는 전시회 기간을 줄이면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구청 측에 전시회 홍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청 측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본문 378~379쪽

① 시나리오 ② 장 씨 ③ 조로증 ④ 미라
⑤ 대수

01 ⑤ 02 ③ 03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04 ③ 05 ③

01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창작한 문학 작품을 읽고, 독자는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창작된 시나리오이다.
 ② 이 글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름'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아름'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아름'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창작한 허구적인 인물이다.
 ④ 이 글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한 문제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독자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의 '아름'은 '여자'나 '불량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반대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다)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창피해하며,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있다.
 ② '여자', '불량한 학생들', 길에 다니는 행인들은 '아름'을 혐오하거나 괴롭히고 있다.
 ④ (나), (다)를 통해 '아름'이 평범한 또래와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미라'의 말을 통해 '아름'이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부모님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속이 깊은 '아름'의 성격을 보여 준다.

03 서술형 (라)에서 '아름'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한 것은, 평범한 삶의 가치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름'이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라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 '여자'와 ㉡ '아이들'은 '아름'의 외모만 보고 '아름'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05 이 글은 '아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나)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아름'을 괴롭히는 장면에서는 '아름'의 대응 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량한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본문 380~381쪽

- ① 갈릴레이 ② 존 스노 ③ 이단 ④ 인용
⑤ 주제 ⑥ 목적 ⑦ 예상 독자 ⑧ 매체
⑨ 쓰기 맥락 ⑩ 고쳐쓰기

- 01 ⑤ 02 ④ 03 ① 04 개요 작성과 글 쓰기
05 ② 06 ③ 07 ㉠는 격식체를, ㉡는 비격식체를 사용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와 ㉡의 예상 독자가 다르거나, 글이
실릴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01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글쓰기 상황인 쓰기 맥락을 살펴야 하는데, 쓰기 맥락에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의 요인이 있다. 글에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는 글을 쓴 뒤 평가해 볼 사항으로 글을 쓰기 전 고려해야 할 다른 쓰기 맥락들과 거리가 멀다.

02 이 글은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와 같이 글쓴이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발굴하려 하거나 이를 통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쓴 목적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함이다.

② 이 글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예로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논설문의 구성을 갖춘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인쇄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수 있다.

03 이 글은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지배적 통념과 다른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조직과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짐을 주장하고 있다.

04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로, 이와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보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한 후에는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써야 한다.

05 글을 쓰기 전에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 단체의 재정 현황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라는 주제와 관련 된다고 보기 어렵다.

06 설득하는 글의 ‘본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과 관련된 사례, 또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산업화 시대 이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은 ‘본론’보다 ‘서론’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07 서술형 ㉠와 ㉡는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쓰기 맥락 요인 가운데 예상 독자 혹은 글이 실릴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와 ㉡의 차이점을 알맞게 썼다.	☐
차이를 불러온 쓰기 맥락 요인으로 예상 독자와 글이 실릴 매체를 썼다.	☐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1) 국어의 문법 요소

본문 382~383쪽

- ① 청자 ② 종결 ③ 목적어 ④ 일치
⑤ 진행상 ⑥ 완료상 ⑦ 라고 ⑧ 피동문
⑨ 주체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우
리는 국어 선생님께 “선생님, 재밌는 옛날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즐
랐다. 07 ⑤ 08 ② 09 ②

01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높임 표현은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와 ‘-(으)시-’의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며, 시간 표현은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인용 표현은 ‘고’, ‘라고’의 조사를 통해 실현된다.

②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은 능동문이며, 피동문은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③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면 미래 시제이다.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시제의 종류가 나뉜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려는 본래의 말과 글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유지되지만, 간접 인용 표현은 형식은 유지되지 않고 내용만 인용된다.

02 ㉢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한 ‘있으시다’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의 ‘걱정거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생각인 ‘걱정거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03 ㉢에서 ‘없다’의 주어는 ‘물건은’이다. 물건은 국어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며, ㉢에 제시된 ‘물건’은 청자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없으십니다’를 ‘없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또한 ‘찾으시는’의 주체는 청자이므로 ‘찾는’으로 바꾸거나, ‘저희’를 ‘우리’로 바꿀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바르게 고치려면 ‘찾으시는 물건은 저희 가게에는 없습니다.’라고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로, '에게'를 '께'로, '먹으라고'를 '잡수시라고'로 고친 것은 객체 높임법에 맞다.
- ② 높임의 대상은 주어인 '삼촌'으로 주체 높임법에 맞게 주격 조사를 '께서'로 바꾸었다. 또한 '놀러 오다'의 주체는 '미영'이므로 '오시라고'가 아닌 '오라고'로 표현해야 하고, '했어'의 주체는 '삼촌'이므로 '하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
- ④ '올'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이므로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오실'로 고치는 것이 맞다.
- ⑤ 문장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몰어볼게'를 특수 어휘를 사용해 '여쭙어볼게'로 고치는 것이 맞다.

04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⑤의 '들어올'에서 '-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오답 풀이** ① '먹은'의 '-은'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② '먹는다고'의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어렸던'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던'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④ '끝났겠더라'의 '-았-'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겠-'은 시제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5 '늑다'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상을 나타내는 '-어 가다'를 사용해도 자연스럽다. 참고로 '늑다'의 반의어인 '젊다'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①, ⑤ '깨끗하다', '아름답다'는 모두 형용사인데, 각각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과 동작상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③, ④ '어둡다', '평화롭다'는 모두 형용사인데, 진행상을 표현하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06 서술형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쓴다. <조건>에서 직접 인용절에 청자를 포함하고 높임 표현은 비격식체로 쓰라고 하였으므로, '선생님'을 쓰고, 높임 표현은 '해오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문장 전체를 고쳐 쓰면, '우리는 국어 선생님께 "선생님, 재밌는 옛날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즐랐다.'로 쓸 수 있다.

07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는 '-어/-아지다'와 '-게 되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해 '나누었다'를 바꾸면 '나누어졌다' 또는 '나누게 되었다'가 되어야 한다. '나뉘었다'는 '나누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ㄱ은 능동문으로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고, ㄴ은 피동문으로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다.
- ②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는 '걸었네요'가 된다. 그런데 ㄴ에는 '걸다'의 행위를 한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능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를 추가해야 한다.
- ③ ㄱ은 주체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의미가 강조되는데, ㄴ은 전화가 잘못 걸렸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 ④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였다.'가 된다. '덮었다'는 '덮었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표현이다.

08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따라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게 되다'가 붙은 형태인 '새우게 되었다.'는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잊혀질'은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③ '가결되어졌다'는 피동 접미사 '-되다'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④ '뉘어지지는'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⑤ '빨려진다'는 피동 접미사 '-리-'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9 연결 어미 '-면서'와 보조 용언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므로, '준현이가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좋으세요'의 주어는 '반응'이므로 높여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 제품은 반응이 아주 좋아요.'라고 써야 한다.
- ③ 문맥상 참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가한 것이므로, '참가되었다'가 아니라 '참가하였다'로 써야 한다.
- ④ 큰따옴표가 사용된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인용절 뒤에 '고'가 아닌 '라고'를 써야 한다.
- ⑤ '아직까지도'는 현재까지 상황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읽어 버렸다'는 '-어 버리다'를 사용한 완료상이어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본문 384~385쪽

- ① 성조 ② 모음 조화 ③ 명사형 어미 ④ 외래어
⑤ 8종성법 ⑥ 끊어적기 ⑦ 동국정운 ⑧ 에
⑨ 이동 ⑩ 이어적기

-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07 ①

01 (가), (나)는 15세기, (다)는 16세기의 글로, 모두 중세 국어 시기에 쓰였다. 중세 국어에 유입된 외래어를 통해 이웃 나라와의 접촉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서구 문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구 문물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
- ②,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한자어의 쓰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가운데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이 지속되었고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 ⑤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몽고, 중국, 여진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그 나라들의 문물과 언어가 유입되었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나)의 ‘말쓰미’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인 ‘말씀’이 사용되었고, (다)의 ‘밭조은’에서는 기본형 ‘밭죽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죽-’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루·매’에서는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짓는 이어적기가, ‘일·흙·을’에서는 앞말의 종성을 그대로 앞말에 적고 뒷말의 초성에는 ‘ㅇ’을 적는 끊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쉽게’라는 의미의 ‘수·비’에 ‘ᄃ(순경음 비읍)’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의 ‘발조온’은 15세기에는 ‘발조불’으로 쓰였으나 16세기에는 ‘ᄃ’이 소실되어 ‘발조온’으로 표기되었다.

③ ‘구·래’는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지만, ‘비·르·소·마·오’는 ‘비룻+-옴-+-이오’와 같이 ‘비룻-’이 음성 모음으로 끝났음에도, 양성 모음인 ‘-옴-’이 왔으므로 모음 조화에 어긋난 것을 알 수 있다.

⑤ ‘字·중’는 한자어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표기한 반면, ‘子·조’는 종성은 표시하지 않고, 현실음대로 표기했다.

03 (나)의 ‘이셔도’는 ‘있어도’라는 말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다)의 ‘굴으샤디’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디’는 ‘ㄷ’이 ‘ㅣ’ 모음을 만나서 ‘ㅌ’으로 바뀌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뿌메’는 ‘뿌-+-움-+-에’의, ‘아니흠이’는 ‘아니ㅎ-+-움-+-이’의 형태로 명사형 어미 ‘-움’과 ‘-음’이 사용되었다.

④ ‘쁘들’에서 ‘ㅂ’을, ‘뽀’에서 ‘ㅍ’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배’는 ‘바+ㅣ’로, ‘공지’는 ‘공주+ㅣ’로,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ㅣ’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바르·매 아·니 :뵤·씨’의 ‘뵤·씨’는 ‘뵤+--르씨’의 형태로 ‘뵤다’는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르씨’는 연결 어미이다. 즉 이 구절은 ‘바람에 가깝지 아니하므로’가 아닌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라고 해석해야 한다.

05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중세 국어의 음운에는 ‘△(반치음)’, ‘♢(순경음 비음)’, ‘· (아래아)’가 있는데, 이 중 ①에 나타난 것은 ‘♢(순경음 비음)’, ‘· (아래아)’이다. 그런데 ②에는 이런 음운들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대 국어에서도 쓰이는 음운들만 사용되었다.

06 (가)에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 ㉠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의 차이를 인식한 점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며, ㉡은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라는 의미로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07 ‘ㅎ 종성 체언’은 현대 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수탉, 수평아리, 수캐, 암개’ 등과 같이 접두사 ‘암’이나 ‘수’가 붙은 말에서 나타난다. ‘암개’는 ‘암ㅎ+개’로 여기서도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본문 386~387쪽

① 세계화 ② 국내 ③ 모아쓰기 ④ 소리
⑤ 위상 ⑥ 순화 ⑦ 성찰

01 ④ 02 ② 03 • 문제점: 외국어와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 해결 방안: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어는 쉽게 풀어서 쓰거나 순화된 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04 ④ 05 ①

01 (가)에서는 한국어 보급 기관과 기관의 수강생, 발간된 한국어 교재의 수, 한국어 능력 시험의 외국인 응시자 수를 제시하였을 뿐, 한국어 사용자 수의 증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글쓴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한국어의 세계화의 의미와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왜 적합한 문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라)에서 현재 우리의 언어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정부, 매체, 개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02 <보기>는 한글을 활용한 자판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유용한 문자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정보화 시대의 관계를 언급한 (나)에 추가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03 서술형 <보기>에는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와 어려운 한자어를 지나치게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라)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를 고쳐 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행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점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제점으로 외국어와 한자어의 과도한 사용을 썼다.	☐
해결 방안으로 '외국어와 한자어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하여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4 ㉗은 잘못된 언어생활을 가리킨다. 그런데 ㉔의 '가리어졌다'는 '가리다'의 어간 '가리-'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말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맞으므로 잘못된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도착하지 않는 상태는 현재 완료 상태이므로 ‘-고 있다’의 진행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도착하지 ~~않~~습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간접 인용이므로 조사는 '라고'가 아닌 '고'로 써야 한다. 따라서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강조하였다.'로 바꾸어야 한다.
- ③ '남다'의 주어는 '웃'이므로 이를 높이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남으셨 습니다'를 '남았습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 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이므로 미래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된 '예상되었습니다'가 아닌 '예상됩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05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②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 ③ 말 뒤에 곁에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뜻이 있다는 말이다.
- ④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 고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8. 한국 문학의 빛깔

(1) 시조 두 수

본문 388~389쪽

- ① 사설시조 ② 음성 상징어 ③ 이불 ④ 밤
⑤ 의태어 ⑥ 임 ⑦ 주추리 삼대

01 ⑤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①

01 (가)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은 짧게,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은 길게 늘이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급히 달려 나가 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픔을 종교 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처럼 (가)~(다)의 화자는 모두 이별 한 상황에서 그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달려 나간 자신의 모습을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라고 하며 멋쩍어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화자가 멋쩍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다)는 '생사 길은 / 예 있으매'를 통해 이별의 원인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나)는 이별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나)의 화자가 임이 온 줄 알고 버선과 신을 벗고 임에게 달려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가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 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음성 상징어는 음의 성질이나 높낮이, 강약에 따라 다른 단어와 구별되는 말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가)는 '서리서리', '구뵈구뵈'를 통해 이불을 넣고 펼치는 화자의 행동을, (나)는 '천 방지방 지방천방', '워령충창' 등을 통해 임을 보기 위해 달려 나 가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다)의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으 나, (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다)의 '물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다)의 '물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 설의법이 쓰였으나, (가), (나)에는 쓰이지 않았다.
- ⑤ (가)~(다) 모두 명령적 어조나 화자의 강한 의지, 신념 표출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가)와 (나)의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이다. ②의 화자 역시 깊은 산속에 살면서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이 혹시 임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노라.'라고 하며, 외로운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노래를 부르며 인생사에서 느끼는 시름과 고뇌를 풀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노래를 통한 시름 해소이다.
- ③ 화자는 소반에 놓인 감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효심이다.
- ④ 화자는 '성 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흥취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전원생활의 흥취이다.
- ⑤ 화자는 지리산 양단수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며 즐기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두류산 양단수의 절경 예찬 혹은 자연으로의 귀의이다.

04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나 어느 한 장이 두 구 이상, 특히 중장이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음보도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3음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평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문학이다.
- ② 평시조는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로 초창, 중창, 종창의 3장 6구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한다.
- ③ 사설시조는 평시조가 변형된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다.
- 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길이가 나타나지만 종창의 첫째 마디는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세 글자로 고정된 형태이다.

05 ㉠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라는 뜻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한 화자의 괴로움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즉 누이가 자신이 간다고 말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이별의 순간 누이가 했던 말이 아니다.

06 (다)의 '미타찰'은 화자가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의 '어론 님 오신 날 밤'도 기다리던 임이 온 시간이므로 둘은 '재회'의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건넌 산'은 임이 오는 길로, 화자가 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거머뿔'은 화자가 임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대상으로, '주추리 삼대'의 모습이다.
- ④ '주추리 삼대'는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대상이다.
- ⑤ '한 가지'는 누이와 화자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본문 390~391쪽

- | | | | |
|------|-------|--------|------------|
| ① 여인 | ② 민요 | ③ 대화 | ④ 방해물(장애물) |
| ⑤ 낙월 | ⑥ 구준비 | ⑦ 자기희생 | ⑧ 이별 |
| ⑨ 극복 | | | |

- 01 ③ 02 ③ 03 ② 04 구름, 안개, 바람, 물결
05 ④

01 (가)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나)는 임과 이별한 한 명의 화자만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님 다히 / 소식을 / 아쁘려나 / 아자 후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나)는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없이 / 고이 보내 / 드리우리다.'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② (나)에는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가)에는 수미 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으로 가상의 이별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이미 이별한 상황에서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⑤ 공감각적 심상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가)와 (나)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나)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고, 이를 밟고 가라고까지 한다. 이처럼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것은 임을 향한 사랑과 헌신, 희생적 태도일 뿐, 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없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도 자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만을 다짐하고 있다.

03 화자가 일월(日月)을 보고 싶어 하며, 산천이 어두워 일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산천이 어두운 상황은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일월은 정철이 그리워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는 임금의 소식을 전해 줄 신하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빈 비'는 임에게로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남아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홀로 지내는 정철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꿈에서 본 임의 얼굴이 늙었음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로 임금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임을 찾으며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신의 그림자만 보였다는 것으로, 임금과 떨어져 있는 '정철'의 쓸쓸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4 (가)에서 '구름'과 '안개'는 '산천'을 어렵게 하여 화자가 '임'을 의미하는 '일월'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바람'과 '물결'도 뱃길을 어수선하게 하여 화자가 배를 타고 임을 보러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모두 화자를 '임'에게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05 ㉠은 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내면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반어적 표현은 ㉡에 나타난다.

[3] 허생전

본문 392~393쪽

- | | | | |
|-------|------|------|-------|
| ① 실학 | ② 선비 | ③ 상인 | ④ 사대부 |
| ⑤ 북벌론 | ⑥ 실리 | ⑦ 명분 | |

- 01 ② 02 ② 03 ⑤ 04 이완 대장

01 이 글의 '허생'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파악하여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벌고, 또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계책을 '이완 대장'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허생'은 조선의 현실을 꿰뚫고 있음이 나타나며, 이 글은 이러한 '허생'의 모습을 통해 당대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무능한 양반은 '이완 대장'인데 그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성격이 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허생'이 활동하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이며, 이와 나란히 배치된 비현실적 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허생'은 매점매석이라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나,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이며,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⑤ 이 글은 북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책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02 (가)에서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매점매석에도 흔들리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엿볼 수 있다. 국가가 이와 같은 상행위를 장려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3 '허생'은 (나)에서 세 번째 계책으로, 청나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벼슬을 하도록 하고,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도록 간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제시한 첫 번째 계책으로, 자신이 '외롱 선생' 같은 이를 추천하면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다. 이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② '허생'은 체면이나 예의보다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에게 삼고초려를 하거나, 변발과 호복을 할 것 등을 제안한 것이다.

③ '허생'은 세 번째 계책으로 변발과 호복을 하는 등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하여 조선의 실리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④ '허생'은 두 번째 계책으로 종실의 딸을 시집보내는 등 명나라 망명객을 우대하고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4 '허생'이 제안한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이완 대장'의 태도를 통해 당시 지배층은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허생'과 '이완 대장'의 갈등을 통해 이러한 당대의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본문 394~395쪽

- ① 옷 ② 문제점 ③ 속도 ④ 유행
⑤ 디자인 ⑥ 환경 오염 ⑦ 노동력 ⑧ 상생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③

01 비판적 읽기는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논증의 방식이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제시된 자료는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인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급 독서 활동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 사전을 찾아본 것은 적극적인 독서 활동에는 해당되지만 비판적인 읽기로 보기는 어렵다.

02 (다)에서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라고 하였다. 즉,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환경 오염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력 착취 측면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② (라)에서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임금 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력 착취 측면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디자인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며 이 때문에 의류 업체들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디자인 도움 측면이므로 [A]에 해당한다.

⑤ (다)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 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 오염 측면으로 [B]에 해당한다.

03 ㉠은 더 많은 옷을 팔기 위해 의류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옷의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과 옷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이를 문제 상황으로 생각하며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옷의 생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전략이므로 ㉡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04 이 글에서 의류 업체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소비자에게 더욱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하고, 이로 인해 디자인 도움과 노동력 착취,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05 ㉢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의미이다.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음'은 '정정(訂正)'의 의미이다.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본문 396~397쪽

- ① 반대 신문 ② 필수 쟁점 ③ 휴대 전화 ④ 수업
⑤ 반론 ⑥ 중독

01 ④ 02 ① 03 ④ 04 ④ 05 ⑤

01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이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을 하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토론이다.

오답 풀이 ①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다.

② 원탁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포럼에 대한 설명이다.

⑤ 패널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02 토론에서 반대 신문이나 반박을 할 때에는 상대의 오류가 드러난 즉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순서에 맞추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한다.

03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학생들이 이미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1'의 주장이 휴대 전화 중독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즉 휴대 전화 중독은 막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04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고, 강제적인 휴대 전화 규제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의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며,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인가'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스스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임을 알 수 있다.

05 ㉠은 '반대 1'의 주장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고 휴대 전화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학생들이 독립된 존재라는 내용을 근거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② 학교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을 제시하여,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③ 학교는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곳이라는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학교는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④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m e m o

